



■ 연구보고서 2014-26-3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정영호 · 고숙자

【책임연구자】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우리나라 금연정책 통합지수 비교연구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재단, 2013(공저)

【공동연구진】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14-26-3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발행일 2014년 12월 31일

저자 정영호

발행인 최병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39-00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전화 대표전화: 02)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정가 5,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ISBN 978-89-6827-203-5 93510

발간사 <<

우리나라는 소득 불균형 심화, 계층간 불평등 확대, 세대간 갈등, 정치적 이념 대립 등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제도 등을 망라하는 여러 갈등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행정에서의 갈등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사회갈등을 잘 관리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고 이러한 토대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 국가의 운명에 절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사회갈등에 관한 연구로 사회갈등요인 및 갈등관리를 계량화하여 OECD 국가간 갈등지수와 갈등관리 지수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거시경제적 접근을 통해 사회갈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본 원의 정영호 연구위원과 고숙자 부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진은 2차례의 워크숍, 포럼 등을 통해 귀중한 논평과 제언을 해준 사회통합센터의 여유진 센터장, 김미곤 선임연구위원, 정해식 부연구위원 등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견직 교수(한림대), 문상호 교수(성균관대)와 본 원의 박세경 연구위원, 황도경 부연구위원 등 검토자들에게도 감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사회갈등지수 산출	19
제1절 갈등의 개념과 갈등지표	21
제2절 사회갈등지수 사례	24
제3절 사회갈등지수 산출 방법	28
제4절 사회갈등요인의 영역별 지표 비교	30
제5절 사회갈등 관리지수	68
제6절 OECD 국가의 사회갈등지수 비교	76
제3장 사회갈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79
제1절 갈등과 경제성장: 선행연구	81
제2절 사회갈등지수와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	100
제3절 패널분석 결과	102
제4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3
부 록	117

표 목차

〈표 2- 1〉 사회갈등지수 측정에 사용된 변수	26
〈표 2- 2〉 사회갈등지수 구성 요소	29
〈표 2- 3〉 정치적 갈등지수의 구성	30
〈표 2- 4〉 OECD국가의 정부 불안정성	32
〈표 2- 5〉 OECD국가의 공공서비스의 정치적 비독립성	33
〈표 2- 6〉 OECD국가의 정부 의사결정의 비효과적 실행	34
〈표 2- 7〉 OECD국가의 정보접근제한 수준	36
〈표 2- 8〉 OECD국가의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	37
〈표 2- 9〉 OECD국가의 언론자유 법적 제한	39
〈표 2-10〉 OECD국가의 뉴스매체 내용에 대한 정치적 통제	40
〈표 2-11〉 OECD국가의 시민의 합법시위 참가	41
〈표 2-12〉 Polity IV의 민주주의 지표 구성 및 가중치	42
〈표 2-13〉 OECD국가의 민주주의 미성숙도	43
〈표 2-14〉 OECD국가의 정치적 갈등지수	45
〈표 2-15〉 경제적 갈등지수의 구성	47
〈표 2-16〉 OECD국가의 Gini계수	48
〈표 2-17〉 OECD국가의 소득 분포: P90/P50	49
〈표 2-18〉 OECD국가의 소득 분포: P90/P10	50
〈표 2-19〉 OECD국가의 경제적 갈등 지수	52
〈표 2-20〉 OECD국가의 민족문화적 갈등지수	55
〈표 2-21〉 OECD국가의 민족문화적 갈등지수	56
〈표 2-22〉 인구스트레스 갈등지수의 구성	57
〈표 2-23〉 OECD국가의 인구밀집도	57
〈표 2-24〉 OECD국가의 도시인구 집중도	59
〈표 2-25〉 OECD국가의 인구스트레스 갈등지수	61
〈표 2-26〉 OECD국가(N=17)의 사회갈등요인지수: 2006년	63

〈표 2-27〉 OECD국가(N=28)의 사회갈등요인지수: 2009년	64
〈표 2-28〉 OECD국가(N=25)의 사회갈등 요인 지수: 2010년	65
〈표 2-29〉 OECD국가(N=24)의 사회갈등요인지수: 2011년	66
〈표 2-30〉 정치적 갈등지수의 구성	68
〈표 2-31〉 OECD국가의 정부 효과성 지수	69
〈표 2-32〉 OECD국가의 규제의 질 지수	70
〈표 2-33〉 OECD국가의 부패통제 지수	71
〈표 2-34〉 OECD국가의 정부소비지출비중	72
〈표 2-35〉 OECD국가의 갈등관리지수	75
〈표 2-36〉 OECD 국가의 사회갈등지수(1) 비교	77
〈표 2-37〉 OECD 국가의 사회갈등지수(2) 비교	78
〈표 3- 1〉 갈등요인과 갈등관리와의 관계	101
〈표 3- 2〉 사회갈등지수와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	101
〈표 3- 3〉 Pooled OLS 결과(2009~2011년)	102
〈표 3- 4〉 Fixed Effect 분석결과(사회갈등지수1 적용)	103
〈표 3- 5〉 Fixed Effect 분석결과(사회갈등지수2 적용)	103
〈표 3- 6〉 Fixed Effect 분석결과	104
〈표 3- 7〉 Fixed Effect 분석결과	105
〈표 3- 8〉 Random Effect 분석결과	105
〈표 3- 9〉 Random Effect 분석결과	106
〈표 3-10〉 Random Effect 분석결과	107
〈표 3-11〉 Random Effect 분석결과	107

부표 목차

〈부표 1〉 OECD국가의 공공서비스의 정치적 비독립성	117
〈부표 2〉 OECD국가의 정부 비효과적 실행	118
〈부표 3〉 OECD국가의 정보접근제한 수준	119
〈부표 4〉 OECD국가의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	120
〈부표 5〉 OECD국가의 언론자유(법적) 제한	121
〈부표 6〉 OECD국가의 뉴스매체 내용에 대한 정치적 통제	122
〈부표 7〉 OECD국가의 시민의 합법시위 참가	123
〈부표 8〉 OECD국가의 Gini계수	124
〈부표 9〉 OECD국가의 소득 분포	125
〈부표 10〉 OECD국가의 사회문화적 갈등지수	126
〈부표 11〉 OECD국가의 사회이질성 갈등지수	127
〈부표 12〉 OECD국가의 인구밀집도	128
〈부표 13〉 OECD국가의 도시인구 집중도	129

그림 목차

[그림 2-1] 갈등수준과 단계	23
[그림 2-2] 갈등지표의 개념	23
[그림 2-3] OECD국가의 정치적 갈등지수 순위: 2011년 기준	46
[그림 2-4] OECD국가의 경제적 갈등 지수 순위	53
[그림 2-5] OECD국가의 민족다양성 및 문화다양성 지표 순위	54
[그림 2-6] OECD국가의 인구스트레스 갈등지수 순위	60
[그림 2-7] OECD국가(N=24)의 사회갈등요인지수 순위: 2011년	67
[그림 2-8] OECD 국가의 갈등관리지수 순위	74
[그림 3-1] 갈등관리제도의 질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도식도	85



Abstract <<

Social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on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The social conflict on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has significantly important issues in Korea. The conflict to which income distribution, political stability, social structure leads must be managed. Also, conflict management has a positive influence to resolve the social conflict.

Recently the social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has analysed the effect on economic growth. This study measured a social conflict index,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using Rodrik's framework.

The social conflict index of South Korea is ranked 4th for 28 OECD countries in 2009. We used a panel data set for OECD countries for 2009 to 2011. The social conflict index i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economic growth, but the conflict management has positive growth effect. A 10% reduction in social conflict index should increase the GDP per person by 1.43~ 1.46%.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conflict management seems to be a better candidate to effect on economic performance.

* Key word: social conflict index, conflict management, economic growth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속가능한 성장 요인으로서 사회통합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확대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갈등관리,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 사회갈등을 야기시키는 요소에 대해서는 이념적, 정치적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중립적 관점에서 분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사회갈등이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하고 갈등수준의 위치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사회갈등이 야기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고찰하고,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사회갈등지수를 산출하고자 함.
- 산출된 사회갈등지수를 토대로 OECD 국가와 우리나라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수준에 대한 현 위치를 파악함.

4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또한, 본 연구는 거시경제적 접근을 통해 사회갈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이를 위하여 OECD 국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종횡단면 회귀분석을 수행

II. 사회갈등 지수

1. 사회갈등지수 산출 방법

- 사회갈등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갈등요인과 갈등관리의 2가지로 구분하여 산출
 - 갈등요인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
 - 정치영역은 공공서비스의 정치적 비독립성, 정부의사결정에서의 비효과적인 실행 평가, 정보접근제한,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 언론자유제한
 - 경제영역에는 소득불평등 GINI, 소득분포 p90/p50와 소득분포 p90/p10의 변수를 고려
 - 사회문화영역은 인구 이질성과 인구구조적 스트레스로 구분
 - 인구 이질성은 민족다양성, 문화다양성
 - 인구구조적 스트레스는 인구밀집도와 도시인구증가율로 구성
 - 갈등관리는 행정/제도 영역으로 정부의 효과성, 규제의 질적 수준, 부패규제, 그리고 정부소비지출 비중을 포함

- 갈등요인, 즉 잠재적 사회갈등과 갈등관리제도를 구성하는 지표들을 활용하여 개별변수의 표준화를 통하여 아래의 사회갈등지수가 산출

$$\text{사회갈등지수} = \frac{\text{잠재적 사회갈등}}{\text{갈등관리제도}}$$

2. 정치적 갈등지수

- 1) 공공서비스의 정치적 비독립성, 2)정부의사결정에서의 비효과적인 실행 평가, 3)정보접근제한, 4)언론의 정치적 편향성, 5)언론제한, 6)시민의 합법시위 참여, 7)민주주의 미성숙도에 관한 표준화된 지표를 선형합산하여 산출함. 그리고, 언론제한은 크게 언론자유의 법적 제한과 뉴스매체의 정치적 통제로 구성하였으며, 각 지표에 0.5의 가중치를 부여
-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정치적 갈등지수는 2000년에 6위이었으나, 2005년에 5위, 2011년에 10위인 것으로 나타남.
 - 2011년을 기준하여 정치적 갈등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스페인→이탈리아→터키→프랑스→칠레 등의 순이었음.

3. 경제적 갈등지수

- 경제적 갈등지수는 Gini계수, P90/P50비율, P90/P10비율로 구성된 지표를 활용하여 산출

6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2010년과 2011년의 우리나라의 경제적 갈등지수 순위는 11위였음.
- 2011년 경제적 갈등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 순으로 보면, 칠레→ 터키→미국→이스라엘→스페인→포르투갈

4. 민족문화적 갈등지수

- 사회문화적 갈등지수에는 민족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을 결합하여 산출하였으나, 사회갈등요인지수 산출에서 민족문화적 갈등지수를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를 모두 제시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함.

5. 인구스트레스 갈등지수

- 인구스트레스 갈등지수는 인구밀집도와 도시인구집중도로 구성
- 인구스트레스 갈등지수의 순위를 살펴보면(2011년 기준), 이스라엘→우리나라→일본→포르투갈→네덜란드 등의 순이었음.

6. 사회갈등요인지수

- 사회갈등요인지수는 정치적 갈등, 경제적 갈등, 민족문화갈등, 인구스트레스의 4개 항목으로 구성
- 정치갈등과 경제갈등에 대해서는 0.4의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민족문화갈등과 인구스트레스 갈등에 0.2의 가중치를, 그리고 인구스트레스 갈등에는 0.2의 가중치를 각각 부여하여 선형합산

- 민족문화갈등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결과 값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지수를 제외한 갈등요인지수도 추가로 산출
- 2006년의 사회갈등요인지수를 보면, 17개의 OECD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6위에 있었고, 민족문화갈등지수를 제외한 사회갈등요인지수(2)를 보면, 17개의 OECD국가 중에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의 사회갈등요인지수는 28개 OECD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9위였고, 민족문화갈등지수를 제외한 사회갈등요인지수(2)는 4위에 위치함.
- 2010년에는 OECD 25개 국가 중에 11위이었고, 사회갈등요인지수(2)는 4위이었음.
- 2011년은 24개 OECD국가 중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요인지수 10위, 사회갈등요인지수(2) 4위인 것으로 나타남.

7. 사회갈등 관리지수

- 본 연구에서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정부 효과성, 규제 의 질, 부패통제, 정부소비지출비중이 포함
 - 정부 효과성, 규제 의 질, 부패통제, 정부소비지출비중 각각에 0.25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선형합산
- OECD 국가의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덴마크→스웨덴→핀란드→네

8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덜란드→뉴질랜드 등의 순이었고,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 27위인 것으로 나타남.

8. OECD 국가의 사회갈등지수 비교

□ 사회갈등지수는 사회갈등요인지수와 사회갈등관리지수의 관계로 산출

○ 사회갈등요인지수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산출

- 첫 번째 사회갈등요인지수는 정치갈등과 경제갈등의 가중치를 각각 0.4로 부여하였고, 민족문화갈등과 인구스트레스의 가중치는 0.1로 각각 부여하여 산출

- 또 다른 사회갈등요인지수는 민족문화갈등을 제외하고 인구스트레스 갈등의 가중치를 0.2로 부여

□ OECD 국가의 첫 번째 사회갈등요인지수를 적용하여 사회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

○ 2009년에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28개 국가 중에 4위에 있었고, 2010년에는 OECD 25개 국가 중에 5위, 2011년에는 OECD 24개 국가 중에 5위

○ 2009년을 기준하여 사회갈등지수가 높은 국가 순으로 보면, 터키→칠레→그리스→한국→이스라엘→이탈리아 등의 순이었고, 사회갈등지수가 낮은 국가 순으로 보면, 덴마크→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네덜란드 등의 순이었다.

○ 민족문화갈등지수를 제외한 또 다른 사회갈등요인지수를 적용한

OECD 국가의 사회갈등지수를 살펴보면, 2009년에 우리나라는 3위, 2010년 4위, 2011년 5위 인 것으로 나타남.

III. 사회갈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사회갈등지수와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

□ 사회갈등지수=사회갈등요인지수/사회갈등관리지수로 표현하여 갈등지수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

○ 2009년~2011년 동안 OECD 국가의 사회갈등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갈등요인과 사회갈등관리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

- 즉, 사회갈등요인과 사회갈등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사회갈등관리와 사회갈등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사회갈등관리는 사회갈등을 감소시키는 것을 기대

□ 사회갈등지수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산출한 사회갈등지수와 일인당 GDP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갈등지수와 일인당 GDP는 (-)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음.

2. 패널분석 결과: 고정효과분석

□ 사회갈등지수(1)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0.162 인 것으로 나타남.

10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사회갈등지수2를 적용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 0.179인 것으로 나타남.
- 사회갈등지수를 분해하여 사회갈등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갈등요인지수와 사회갈등관리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 사회갈등요인지수1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음.
 - 그러나, 사회갈등관리지수는 경제성장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갈등관리지수가 10% 증가할 경우에 일인당 GDP는 2.41~ 2.47%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3. 패널분석 결과: 랜덤효과(Random Effect) 분석 결과

- 국가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완화하여 랜덤효과(Random Effect)모형을 활용하여 분석
- 분석결과, 사회갈등지수1은 일인당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갈등지수1이 10%감소할 경우 일인당 GDP는 1.43% ~ 1.46%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
- 사회갈등지수를 사회갈등요인지수와 사회갈등관리지수로 분해해서 분석한 결과, 갈등요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그러나 갈등관리는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인당 GDP는 1.74% ~ 1.75% 증가하게 됨을 보여줌.

IV. 결론

- 2011년의 갈등요인지수는 민족갈등지수를 포함한 경우 24개국 중 10위, 민족문화갈등지수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4위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갈등요인지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한편, 사회갈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정부 효과성, 규제질, 부패통제, 정부소비지출을 포함한 갈등관리지수 순위는 34개 OECD 국가 중 2000년 32위의 매우 낮은 순위에서 31위(2005년) → 29위(2009년) → 29위(2010년) → 27위(2011년)로 조금씩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갈등요인지수와 사회갈등관리지수를 결합한 사회갈등지수를 산출하여 OECD 국가간 비교를 수행한 결과에서는 우리나라가 비교대상 25개국 중 5위(2011년 기준)로 하위 20%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사회갈등지수를 경제성장모형에 포함하여 갈등요인과 갈등관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 하는 분석을 시도
- 사회갈등지수와 일인당 GDP와의 상관관계에서는 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

12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패널분석결과, 갈등지수는 경제성장과 연관이 있는 데, 갈등요인보다는 갈등관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음.
- 즉, 갈등요인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보다 갈등관리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주요용어: 사회갈등지수, 갈등관리, 경제성장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소득 불균형 심화, 계층간 불평등 확대, 빈곤감소를 위한 사회지출 증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조 변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제도 등을 망라하는 여러 갈등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행정에서의 갈등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사회갈등을 잘 관리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고 이러한 토대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 국가의 운명에 절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 요인으로서 사회통합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확대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갈등관리,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갈등관리, 사회통합, 사회자본(신뢰)과 같은 요소들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Rodrick, 1998; Grauwe and Skudelny, 1999; Schneider and Wagner, 2001; Corvalan 2013).

사회갈등은 사회구성원간 신뢰를 위협하며, 개인 역량 뿐 아니라 사회적 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사회갈등은 한 국가가 직면해 있는 내부적인 사회구조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도 사회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갈등에 대해 대내외적 경제환경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갈등을 야기시키는 요소에 대해서는

이념적, 정치적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중립적 관점에서 분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갈등이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하고 갈등수준의 위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갈등은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현안이 다양하고 복잡화됨에 따라 정책 현안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갈등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통합, 갈등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고할 수 있는지, 또는 사회갈등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객관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사회 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규모를 가장 쉽게 전달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피해규모를 특정 수치로 계량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화폐단위로 산출하여 사회갈등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향후 사회통합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보고서는 사회갈등이 야기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고찰하고,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사회갈등지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을 고찰하여 사회갈등에 포함되는 변수, 예를 들어 지니계수, 동종언어 그룹, 모국어 비사용자 비중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사회갈등을 계층갈등지수, 지역갈등지수 등 영역별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갈등을 계량

화된 지표로 나타내기에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정 불가능한 갈등을 신뢰성 있는 지수로 산출하기 위해 어떤 변수를 대리변수로 취할 것인지, 그리고 국제비교를 위해 가용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등을 고려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사회갈등지수를 토대로 OECD 국가와 우리나라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수준에 대한 현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거시경제적 접근을 통해 사회갈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갈등은 경제사회 전반에 비용을 발생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Schneider and Wagner, 2011). 반면에, 사회갈등에 대한 효과적 관리는 사회갈등 또는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대해서도 협조적이고 비용효과적인 행태를 통하여, 경제위기를 원활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갈등의 부정적인 영향과 사회갈등관리 노력의 긍정적인 영향을 경제성장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OECD 국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중횡단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제2장

사회갈등지수 산출

- 제1절 갈등의 개념과 갈등 지표
- 제2절 사회갈등지수 사례
- 제3절 사회갈등지수 산출 방법
- 제4절 사회갈등요인의 영역별 지표 비교
- 제5절 사회갈등 관리지수
- 제6절 OECD 국가의 사회갈등지수 비교 결과



2

사회갈등지수 산출 <<

제1절 갈등의 개념과 갈등지표

현재 civil conflict의 단일 개념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몇몇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다(Fearon & Laitin 2003; Sambanis 2004). UCDP/ PRIO(2010)에서는 armed conflict를 대립되는 양당에 대해 정부는 공권력을 활용하여 대처상황에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최소 25명이상의 사망자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Internal Armed Conflict는 Civil Conflict라고 하기도 하는데, 다른 국가의 개입없이 정부와 1개 이상의 집단 간에 대립이 발생한 경우로 보고 있다.

갈등을 폭력(violence) 수준에 따라 구분하면(Schmid, 1998),

- 전쟁 또는 고강도 갈등: 연평균 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혼란기 동안 인구의 5%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 저강도 갈등: 연평균 백명 이상 천명미만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혼란기 동안 인구의 5%미만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또한, 갈등의 속성에 따라 구분하면,

- 내전(civil war): 한 국가 내에 집단간 공권력을 동원한 갈등(armed conflict)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때에 각 통제 영역에서는 정부의 기능을 가지고, 공권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일부시민에 대해 충성하는 형태를 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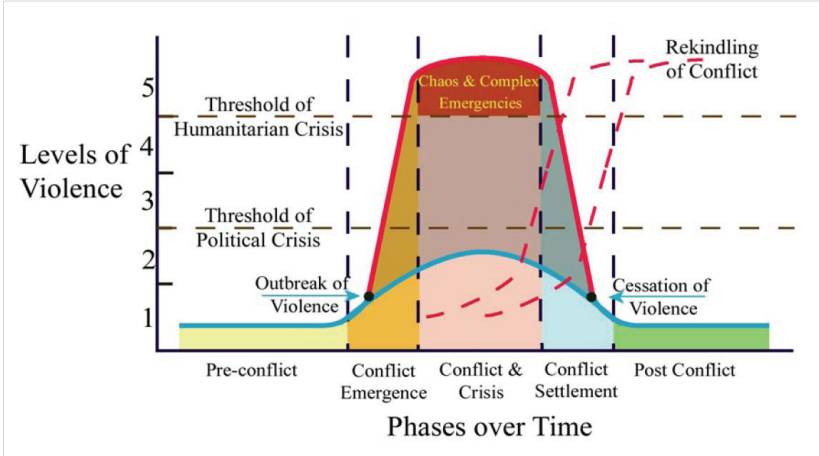
22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폭동(insurgency): 공권력을 활용하여 정부를 반목할 목적을 지닌 조직화된 움직임이라 할 수 있음.
- 고질화된 사회갈등(protracted social conflict): 종교, 문화, 인종 등의 차이가 중심이 된 지속적인 갈등으로, 안전, 상호인정, 배분적 정의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의 만족에 의존함.

갈등의 수준(level)과 갈등의 국면(phase)으로 구분해 보면, [그림 2-1]과 같다. 여기에서는 갈등 수준과 갈등 국면을 각각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갈등 수준은 폭력성(사망자수, 폭력관련자 비중)에 영향을 받는 변수이고, 갈등의 국면은 시간에 따라 갈등을 악화 또는 완화시키는 변수를 나타낸다. 갈등에 내재된 폭력적 속성은 여러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갈등에서부터 상당히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갈등지표의 개념을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 가능요인, 구조적 요인, 선제적 요인이 있으며,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특정 동태적 요인, 근사적 요인, 상황적 요인이 있다. 그리고 갈등을 가속화시키는 요인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갈등 지표를 4사분면에 그려보면 [그림 2-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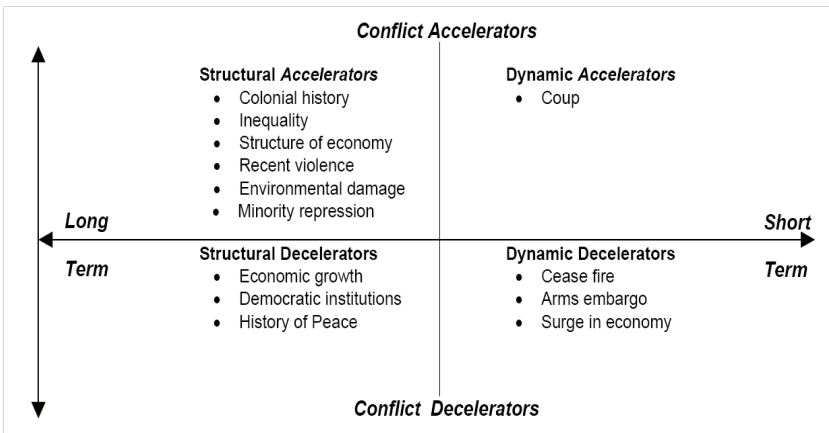
[그림 2-1] 갈등수준과 단계



- 주: 1단계(안정단계, peaceful stable situation)
- 2단계(정치적 긴장 단계, political tension situation)
- 3단계(과격하한 정치적 갈등, violent political conflict)
- 4단계(저강도 갈등, low-intensity conflict)
- 5단계(고강도 갈등, high-intensity conflict)

자료: Samarasinghe et al(2001), Conflict Vulnerability Analysis. Tulan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그림 2-2] 갈등지표의 개념



자료: Samarasinghe et al(2001), Conflict Vulnerability Analysis. Tulan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갈등관련 지표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는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IPRI)로, 1,260여개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지표는 다음의 9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정의 및 인권
- 사회문화적 요소
- 안전 환경
- 지리정치적 환경
- 국방과 안전
- 환경 및 자원관리
- 거버넌스 및 정치적 안정성
- 사회경제적 요소
- 지역 및 국가 특수적 요소

제2절 사회갈등지수 사례

1. Rodrick(1998)의 사회갈등지수

Rodrick(1998)은 사회갈등과 갈등관리가 경제성장에서의 외생적 충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경제성장 모형에 갈등과 관련한 변수를 포함하였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외생적 충격의 영향은 잠재적 사회갈등으로 증가하는 반면, 갈등관리제도를 통해 외생적 충격의 영향이 감소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잠재적 사회갈등(latent social conflict)을 측정하기 위해서 불평등도, 민족 및 언어 다양성, 사회적 (불)신뢰에 대한 대리지표로 구성하였으

며, 갈등관리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제도의 질적 수준, 사회보험에서의 공공지출에 대한 대리지표로 구성하였다.

$$\text{사회갈등지수} = \frac{\text{잠재적 사회갈등}}{\text{갈등관리제도}}$$

2. De Grauwe & Skudelny(1999)의 사회갈등지수

De Grauwe & Skudelny(1999)은 EU국가에서의 사회갈등과 갈등관리의 차이를 모형에 포함시키기 위해 앞서 제시한 Rodrick(1998)이 제안한 구조를 활용하여, 일반적인 경제성장모형에 사회갈등지표와 사회갈등관리지표를 포함하였다.

사회갈등지표에는 지니계수, 민족-언어 다양성, 특정기간동안 정부 및 국무총리 변화 수로 구성하였으며, 사회갈등 관리제도는 행정효율성 지표, 정부소비지출, 조세수입으로 구성하였다.

$$CONFL_i = \begin{cases} GINI_i \\ ELF_i \\ GOVC \\ PMC \end{cases}$$

$$MGTINST = \begin{cases} BUR_i \\ GVTEXP \\ TAX \end{cases}$$

CONFL=사회갈등

(GINI 지니계수; ELF 언어수; GOVC 정부수; PMC 국무총리 수)

MGTINST=사회갈등관리제도

(BUR 행정효율성지수; GVTEXP GDP대비 정부소비지출 비중;

TAX GDP대비 세수 비중)

3. 박준 외(2009)의 사회갈등지수

박준 외(2009)¹⁾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갈등지수를 산출하였다. 사회갈등지수는 Rodrick(1998)의 갈등의 경제적 모형을 바탕으로 산출하였고, 이 때에 사회갈등지수가 높을수록 사회갈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갈등지수는 갈등요인과 갈등관리 시스템을 반영하는 변수인 소득불균형(지니계수), 민주주의 성숙도(민주주의 지수), 정책수행능력(정부효과성지수)로 구성되어 산출하고 있다.

소득 불균형 지표로는 지니계수를, 민주주의 수준은 Polity IV의 민주주의 지수를, 정책수행능력은 세계은행의 정부효과성지수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값은 0~1로 표준화하여 적용하였다.

$$\text{사회갈등지수} = \frac{\text{소득불균형 지니계수}}{(\text{민주주의 지수} + \text{정부효과성 지수})/2}$$

〈표 2-1〉 사회갈등지수 측정에 사용된 변수

구성요인	변수	지표	설명
갈등요인	소득불균형	지니계수	2000년대 중반 (OECD Fackbook 2009)
갈등관리 시스템	민주주의 성숙도	민주주의 지수	행정수반의 선출절차, 행정권에 대한 제한, 정치적 경쟁 등으로 구성 (1991~2007년 평균) (Polity IV project)
	정책수행능력	정부효과성 지수	정부정책의 일관성, 정부관료의 전문성, 정부규제의 품질 등(2005년)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orld Bank)

자료: 박준 외, 2009.

1) 박준,김용기,이동원 외,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2009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를 산출하고 OECD국가와 사회갈등수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27개 OECD 국가 중에 네 번째로 사회갈등이 심각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0.71로, OECD 평균인 0.44를 상회하고 있다.

4. Hagmeyer-Gaverus & Weissmann(2003)²⁾의 갈등 및 모니터링 접근방식

Hagmeyer-Gaverus and Weissmann(2003)은 violent conflict에 대한 유형을 예측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 통계적 지표에 기반한 데이터베이스 모형: 이는 시계열 데이터로, World Bank와 United Nations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매년 데이터를 생산하여 제공해 주고 있다.
- 추이에측을 위한 전문가지식을 활용한 모형(models that use expert knowledge to forecast trends):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이나 인터뷰를 통한 정보를 활용하여 지표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모형은 일반적으로 정기적이고 신속하며 표준화된 방식으로 된 정보원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 뉴스와이어 모니터링/분석시스템: 뉴스서비스를 통한 체계적이고 기계적으로 코드화된 분으로 갈등위험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2) Early warning indicators for preventive policy: a new approach in early warning research,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Working paper 2003.

5. Conflict Management Toolkit(CMP, 2011)

Conflict Management Toolkit(CMP, 2011)에서는 갈등조기경보에 관한 지표를 다음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 인구구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이동, 테러 증가
- 경제: 경제성과에서의 장단기 변화, 빈공 또는 불평등 증가, 실업률 증가, 경제적 충격(shocks) 또는 재정위기
- 정치관련: 특정집단에 대한 정부의 고의적 행동, 종교지역의 파괴, 한 집단의 다른 집단에 대한 실질적 차별 또는 법적 호의, 선거불안정성
- 사회적 여론 또는 사회적 요소: 사회적 편견 및 intolerance 증가, 데모횟수 증가
- 외부적 요인: 외부행위자에 의한 특정집단의 개입 또는 지원, 이웃국가에서의 갈등, 난민의 유입 등

제3절 사회갈등지수 산출 방법

사회갈등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갈등요인과 갈등관리의 2가지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갈등요인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세부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치영역은 공공서비스의 정치적 비독립성, 정부의사결정에서의 비효과적인 실행 평가, 정보접근제한,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 언론자유제한 등이 설명될 수 있다.

갈등요인 중 경제영역에는 소득불평등 GINI, 소득분포 p90/p50와 소득분포 p90/p10의 변수를 고려하였다.

사회문화영역은 인구 이질성과 인구구조적 스트레스로 구분되며, 인구 이질성은 민족다양성, 문화다양성으로 인구구조적 스트레스는 인구밀집도와 도시인구증가율로 구성하였다.

한편, 갈등관리는 행정/제도 영역으로 정부의 효과성, 규제의 질적 수준, 부패규제, 그리고 정부소비지출 비중을 포함한다.

〈표 2-2〉 사회갈등지수 구성 요소

구성요인	세부영역	설명
갈등요인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서비스의 정치적 비독립성 - 정부의사결정에서의 비효과적인 실행 평가 - 정보접근제한 -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 - 언론자유제한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불평등 GINI - 소득분포 p90/p50 - 소득분포 p90/p10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이질성〉 - 민족다양성 - 문화다양성 〈인구구조적 스트레스〉 - 인구밀집도 - 도시인구증가율
갈등관리	행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효과성 - 규제의 질적 수준 - 부패규제 - 정부소비지출 비중

이와 같은 갈등요인, 즉 잠재적 사회갈등과 갈등관리제도를 구성하는 지표들을 활용하여 개별변수의 표준화를 통하여 아래의 사회갈등지수가 산출된다.

$$\text{사회갈등지수} = \frac{\text{잠재적 사회갈등}}{\text{갈등관리제도}}$$

제4절 사회갈등요인의 영역별 지표 비교

1. 정치적 갈등지수

가. 정치적 갈등지수의 구성

본 연구에서 정치적 갈등지수는 공공서비스의 정치적 비독립성, 정부의사결정에서의 비효과적인 실행 평가, 정보접근제한,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언론제한은 언론자유 법의 제한과 뉴스매체의 정치적 통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시민의 합법시위 참여, 민주주의 미성숙도로 구성하여 정치적 갈등지수를 산출하였다.

정치적 갈등에 관한 자료는 주로 Democracy Barometer(2014)에서 추출하였으며, 영역별 자료원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3〉 정치적 갈등지수의 구성

영역	세부영역	자료원
정치 갈등	- 공공서비스의 정치적 비독립성	Democracy Barometer(2014)
	- 정부의사결정에서의 비효과적인 실행 평가	Democracy Barometer(2014)
	- 정보접근제한	Democracy Barometer(2014)
	-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	Democracy Barometer(2014)
	- 언론제한 • 언론자유 법의 제한 • 뉴스매체의 정치적 통제	Democracy Barometer(2014)
	- 시민의 합법시위 참여	Democracy Barometer(2014)
	- 민주주의 미성숙도	Polity IV

De Grauwe & Skudelny(1999)는 사회갈등지표로 집권기간동안 정부 변화 수와 국무총리 변화 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제2장에서 살펴본 바 있다. Democracy Barometer(2014)의 자료에서도 정부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데, 정부의 불안정성은 전체 행정기간 동안에 정부(또는 내각)의 변화 정도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특정 행정기간 동안에 정부(또는 내각)가 변하지 않을 경우는 100%의 점수가 부여되고, 만약에 내각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안정적이었던 일수(days)를 남아있는 잔여기간의 비율(%)로 제시하고 있다.

〈표 2-4〉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집권기간 동안에 정부의 변화가 전혀 없는 국가에 해당되며, 우리나라이외에 미국, 멕시코, 스위스와 같은 대통령제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가 행정기간 동안 정부(또는 내각)가 변하지 않는 100%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불안정성 지표는 각 국가가 지니고 있는 선거체계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므로, 정부 불안정성 지표는 정치적 갈등지표에서 제외하였다.

나. 정치적 갈등지표: 공공서비스의 정치적 비독립성

공공서비스의 정치적 비독립성은 공공서비스가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수준을 나타내며, 0~10점으로 점수가 분포되어있다.³⁾ 이 점수를 표준화한 결과가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공공서비스의 정치적 비독립성은 OECD 34개 국가 중에 2번째이었으며, 이탈리아 다음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에는 이러한 측면이 다소 개선되어 OECD 34개 국가 중에 19위, 2011년에는 OECD 34개 국가 중에 16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원자료의 빈도는 부록에 제시하였음.

32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표 2-4〉 OECD국가의 정부 불안정성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Korea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Australia	100.00	-	100.00	-	83.41	17	31.91	3	31.91	4
Austria	70.09	9	78.01	10	42.85	6	42.85	9	42.85	9
Belgium	96.17	16	100.00	-	26.19	2	26.19	1	26.19	2
Canada	60.73	6	30.23	3	50.05	9	50.05	12	50.05	11
Chile	99.98	28	99.98	25	100.00	-	100.00	-	100.00	-
Czech	97.74	21	90.58	13	68.60	12	52.79	14	52.79	12
Denmark	91.58	14	68.31	8	92.83	20	92.83	19	92.83	19
Estonia	70.71	11	94.91	16	95.25	22	95.25	21	95.25	21
Finland	97.95	23	97.85	22	79.40	16	99.34	27	99.34	27
France	70.32	10	96.86	18	96.86	24	96.86	23	96.86	23
Germany	99.66	27	96.17	17	96.17	23	96.17	22	96.17	22
Greece	96.65	17	87.06	12	51.47	10	51.47	13	25.11	1
Hungary	93.84	15	100.00	30	85.99	18	85.99	17	85.99	17
Iceland	98.77	25	65.98	7	42.37	5	42.37	8	42.37	8
Ireland	97.80	22	99.27	24	67.08	11	67.08	15	67.08	15
Israel	27.17	1	31.62	4	44.97	8	44.97	10	59.33	13
Italy	46.87	3	90.99	14	44.19	7	46.21	11	46.21	10
Japan	40.93	2	22.59	1	17.52	1	37.92	4	63.22	14
Luxembourg	97.03	19	97.03	19	97.03	25	97.03	24	97.03	24
Mexico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Netherlands	100.00	-	77.82	9	74.88	13	38.77	5	38.77	5
New Zealand	87.70	13	100.00	-	100.00	31	100.00	-	100.00	-
Norway	98.91	26	97.74	21	97.74	26	97.74	25	97.74	25
Poland	48.60	4	27.35	2	26.46	3	26.46	2	26.46	3
Portugal	60.10	5	100.00	-	40.18	4	40.18	7	40.18	7
Slovak	97.26	20	62.24	6	75.24	14	39.56	6	39.56	6
Slovenia	66.56	7	85.80	11	75.84	15	75.84	16	75.84	16
Spain	96.99	18	97.33	20	90.21	19	90.21	18	90.21	18
Sweden	98.56	24	98.97	23	98.91	27	98.91	26	98.91	26
Switzerland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Turkey	68.72	8	93.85	15	94.66	21	94.66	20	94.66	20
UK	81.70	12	42.82	5	100.00	-	100.00	-	100.00	-
USA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OECD(평균)	84.09		83.28		75.19		72.34		72.73	

주: 정부불안정성(집권기간내 정부의 변화수)

정부불안정성=0(내각변화가 없는 국가)인 경우에는 순위를 부여하지 않음.

자료: Democracy Barometer, 2014.

2011년을 기준으로 공공서비스의 정치적 비독립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그리스→헝가리→슬로바키아→포르투갈→체코 등의 순이었다.

〈표 2-5〉 OECD국가의 공공서비스의 정치적 비독립성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Korea	0.878	2	0.532	19	0.590	16	0.590	16	0.590	16
Australia	0.324	28	0.268	30	0.246	32	0.246	32	0.246	32
Austria	0.531	19	0.480	21	0.446	25	0.446	25	0.446	25
Belgium	0.739	10	0.827	5	0.793	10	0.793	10	0.793	10
Canada	0.230	32	0.396	28	0.255	31	0.255	31	0.255	31
Chile	0.669	13	0.410	26	0.522	19	0.522	19	0.522	19
Czech	0.827	6	0.748	8	0.845	6	0.845	6	0.845	6
Denmark	0.441	23	0.180	34	0.169	34	0.169	34	0.169	34
Estonia	0.635	15	0.478	22	0.466	23	0.466	23	0.466	23
Finland	0.113	34	0.196	33	0.495	21	0.495	22	0.495	22
France	0.692	12	0.687	13	0.748	12	0.748	12	0.748	12
Germany	0.367	26	0.421	25	0.394	27	0.394	27	0.394	27
Greece	0.862	3	0.827	5	0.932	2	0.932	2	0.932	2
Hungary	0.727	11	0.732	10	0.921	3	0.921	3	0.921	3
Iceland	0.384	25	0.396	27	0.482	22	0.500	21	0.500	21
Ireland	0.255	29	0.545	18	0.360	28	0.360	28	0.360	28
Israel	0.527	20	0.746	9	0.728	13	0.728	13	0.728	13
Italy	0.887	1	0.903	2	0.971	1	0.971	1	0.971	1
Japan	0.597	17	0.624	16	0.538	18	0.538	18	0.538	18
Luxembourg	0.360	27	0.583	17	0.450	24	0.450	24	0.450	24
Mexico	0.808	8	0.674	15	0.804	8	0.804	8	0.804	8
Netherlands	0.183	33	0.237	31	0.236	33	0.236	33	0.236	33
New Zealand	0.234	31	0.221	32	0.322	29	0.322	29	0.322	29
Norway	0.477	21	0.442	24	0.568	17	0.568	17	0.568	17
Poland	0.633	16	0.984	1	0.827	7	0.827	7	0.827	7
Portugal	0.827	6	0.869	3	0.858	5	0.858	5	0.858	5
Slovak	0.755	9	0.462	23	0.867	4	0.867	4	0.867	4
Slovenia	0.853	4	0.768	7	0.701	15	0.701	15	0.701	15
Spain	0.586	18	0.689	12	0.710	14	0.710	14	0.710	14
Sweden	0.660	14	0.698	11	0.412	26	0.412	26	0.412	26
Switzerland	0.254	30	0.317	29	0.300	30	0.300	30	0.300	30
Turkey	0.813	7	0.678	14	0.755	11	0.755	11	0.755	11
UK	0.439	24	0.822	6	0.793	10	0.793	10	0.793	10
USA	0.459	22	0.525	20	0.507	20	0.507	20	0.507	20

주: (-)공공서비스의 정치적 비독립성(공공서비스가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수준)
자료: Democracy Barometer, 2014

다. 정치적 갈등지표: 정부 의사결정의 비효과적 실행

Democracy Barometer(2014)에서 정부 의사결정에서의 효과적인 실행 평가 수준을 0~10점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를 부여하여 비효과적인 실행평가 수준으로 전환하여 지표를 산출하였다.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 20위로, 실행평가가 OECD 국가에서 중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OECD국가의 정부 의사결정의 비효과적 실행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Korea	0.706	4	0.630	13	0.759	8	0.470	23	0.467	20
Australia	0.234	27	0.162	32	0.395	27	0.565	20	0.534	19
Austria	0.379	20	0.329	26	0.538	23	0.450	26	0.444	21
Belgium	0.470	13	0.662	9	0.705	13	0.781	10	0.591	15
Canada	0.222	28	0.484	18	0.562	21	0.454	25	0.294	25
Chile	0.430	15	0.254	30	0.591	19	0.399	28	0.196	33
Czech	0.801	1	0.676	8	0.659	16	0.673	16	0.618	13
Denmark	0.185	32	0.031	34	0.095	34	0.313	32	0.237	30
Estonia	0.472	12	0.428	20	0.719	12	0.372	29	0.243	28
Finland	0.000	34	0.155	33	0.317	30	0.294	33	0.197	32
France	0.344	23	0.503	17	0.637	17	0.675	15	0.689	10
Germany	0.484	11	0.687	7	0.523	24	0.550	21	0.408	22
Greece	0.519	10	0.737	3	0.999	1	0.893	5	0.873	5
Hungary	0.394	16	0.556	15	0.952	2	0.944	3	0.741	8
Iceland	0.193	31	0.265	27	0.214	33	0.892	6	0.881	4
Ireland	0.235	26	0.414	21	0.611	18	0.662	17	0.608	14
Israel	0.438	14	0.570	14	0.700	14	0.613	19	0.536	18
Italy	0.776	2	0.730	4	0.803	7	0.804	9	0.912	2
Japan	0.583	6	0.661	10	0.840	4	0.741	11	0.899	3
Luxembourg	0.150	33	0.259	29	0.317	30	0.326	30	0.262	27
Mexico	0.520	9	0.721	5	0.808	6	1.000	1	0.797	7
Netherlands	0.215	30	0.541	16	0.473	25	0.640	18	0.400	23
New Zealand	0.360	22	0.345	25	0.332	28	0.460	24	0.242	29
Norway	0.390	17	0.379	23	0.409	26	0.433	27	0.272	26
Poland	0.657	5	0.918	1	0.730	11	0.697	14	0.643	12
Portugal	0.563	8	0.778	2	0.552	22	0.702	13	0.722	9
Slovak	0.579	7	0.263	28	0.737	10	0.815	8	0.682	11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Slovenia	0.727	3	0.692	6	0.683	15	0.910	4	0.951	1
Spain	0.251	25	0.638	11	0.915	3	0.955	2	0.850	6
Sweden	0.390	18	0.464	19	0.257	32	0.285	34	0.089	34
Switzerland	0.219	29	0.249	31	0.301	31	0.314	31	0.218	31
Turkey	0.386	19	0.351	24	0.590	20	0.517	22	0.298	24
UK	0.363	21	0.630	12	0.809	5	0.858	7	0.542	17
USA	0.327	24	0.404	22	0.744	9	0.718	12	0.562	16

주: (-) 정부의사결정에서의 비효과적인 실행 평가
 자료: Democracy Barometer, 2014.

라. 정치적 갈등지표: 정보접근제한

정보접근제한은 정보접근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거나, 공식정보 (official information) 접근에 장벽을 두는 수준을 나타낸다. 이는 카테고리 변수로 제공하고 있는 데, 정보자유없음=0, 높은 제한(예, 정보에 대한 높은 요금 및 2주이상의 지체)=1, 다소간의 제한(예, 요금 또는 지체 중 1개 요인)=2, 제한없음=3(요금없음, 2주이내 제공)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변수의 0~3인 값을 역순으로 바꾸어 정보접근 제한이 높을수록 높은 값을 갖게 한 후, 표준화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접근제한 수준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다소간의 제한'이 있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순위의 측면에서 보면, 2000년에 OECD 국가 중에 20위 있었으나 2011년에는 15위로, 다른 국가에서 정보접근 제한을 완화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보접근 제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표 2-7〉 OECD국가의 정보접근제한 수준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Korea	0.333	20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Australia	0.333	20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Austria	0.333	20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Belgium	0.333	20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Canada	0.333	20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Chile	1.000	6	1.000	3	0.333	15	0.333	15	0.333	15
Czech	0.667	12	0.667	6	0.667	3	0.667	3	0.667	3
Denmark	0.000	31	0.000	30	0.000	30	0.000	30	0.000	30
Estonia	0.000	31	0.000	30	0.000	30	0.000	30	0.000	30
Finland	0.000	31	0.000	30	0.000	30	0.000	30	0.000	30
France	0.333	20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Germany	1.000	6	1.000	3	0.333	15	0.333	15	0.333	15
Greece	0.333	20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Hungary	0.333	20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Iceland	0.000	31	0.000	30	0.000	30	0.000	30	0.000	30
Ireland	0.667	12	0.667	6	0.667	3	0.667	3	0.667	3
Israel	0.333	20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Italy	0.333	20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Japan	1.000	6	0.667	6	0.667	3	0.667	3	0.667	3
Luxembourg	1.000	6	1.000	3	1.000	1	1.000	1	1.000	1
Mexico	1.000	6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Netherlands	0.000	31	0.000	30	0.000	30	0.000	30	0.000	30
New Zealand	0.333	20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Norway	0.000	31	0.000	30	0.000	30	0.000	30	0.000	30
Poland	1.000	6	0.000	30	0.000	30	0.000	30	0.000	30
Portugal	0.000	31	0.000	30	0.000	30	0.000	30	0.000	30
Slovak	1.000	6	0.000	30	0.000	30	0.000	30	0.000	30
Slovenia	0.333	20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Spain	0.333	20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Sweden	0.000	31	0.000	30	0.000	30	0.000	30	0.000	30
Switzerland	1.000	6	1.000	3	0.333	15	0.333	15	0.333	15
Turkey	1.000	6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UK	1.000	6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USA	0.333	20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주: 정보접근제한(정보접근에 대한 자유 제한수준)

자료: Democracy Barometer, 2014

마. 정치적 갈등지표: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은 개별 신문에서 특정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특정 정당을 선호하는 수준을 나타내는데, 1~3은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좌편향적인 측면을 나타내며, 4~6은 우편향적인 측면을 나타낸다고 할 때,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은 중립성을 나타내는 점수인 3.5로부터 떨어져 있는 수준을 말하며, 측정값의 범위는 -2.5에서 0의 값에 해당된다. 따라서 중립적 가치를 담고 있는 점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값(수치가 높은 값)일수록 중립적이지 않음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은 OECD국가 중에서 18위이었으나, 2005년 13위, 2011년 12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을 기준으로 언론의 정치적 색이 분명한 국가는 칠레→호주→뉴질랜드→영국 등의 순이었다.

〈표 2-8〉 OECD국가의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Korea	0.244	18	0.364	13	0.357	12	0.357	12	0.357	12
Australia	0.794	2	0.784	2	0.706	2	0.706	2	0.706	2
Austria	0.224	21	0.224	21	0.230	23	0.230	23	0.230	23
Belgium	0.299	15	0.061	28	0.061	28	0.061	28	0.061	28
Canada	0.408	7	0.381	12	0.381	11	0.381	11	0.381	11
Chile	0.928	1	0.917	1	1.000	1	1.000	1	1.000	1
Czech	0.372	10	0.393	10	0.257	20	0.257	20	0.257	20
Denmark	0.401	8	0.464	6	0.417	6	0.417	6	0.417	6
Estonia	0.170	24	0.593	3	0.593	5	0.593	5	0.593	5
Finland	0.053	30	0.055	29	0.055	29	0.055	29	0.055	29
France	0.029	33	0.010	33	0.003	33	0.003	33	0.003	33
Germany	0.322	13	0.399	9	0.399	9	0.399	9	0.399	9
Greece	0.038	32	0.037	32	0.010	31	0.010	31	0.010	31
Hungary	0.302	14	0.311	17	0.311	17	0.311	17	0.311	17
Iceland	0.545	4	0.344	14	0.344	14	0.344	14	0.344	14
Ireland	0.414	6	0.416	8	0.411	7	0.411	7	0.411	7
Israel	0.094	29	0.094	26	0.026	30	0.026	30	0.026	30

38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Italy	0.289	17	0.333	15	0.233	21	0.233	21	0.233	21
Japan	0.153	25	0.153	22	0.142	25	0.142	25	0.142	25
Luxembourg	0.147	26	0.147	23	0.147	24	0.147	24	0.147	24
Mexico	0.236	19	0.234	18	0.286	19	0.286	19	0.286	19
Netherlands	0.224	23	0.232	19	0.232	22	0.232	22	0.232	22
New Zealand	0.581	3	0.552	5	0.695	3	0.695	3	0.695	3
Norway	0.231	20	0.231	20	0.342	15	0.342	15	0.342	15
Poland	0.297	16	0.075	27	0.349	13	0.349	13	0.349	13
Portugal	0.389	9	0.389	11	0.389	10	0.389	10	0.389	10
Slovak	0.039	31	0.039	31	0.341	16	0.341	16	0.341	16
Slovenia	0.341	11	0.326	16	0.296	18	0.296	18	0.296	18
Spain	0.224	22	0.137	24	0.085	26	0.085	26	0.085	26
Sweden	0.113	28	0.113	25	0.081	27	0.081	27	0.081	27
Switzerland	0.140	27	0.052	30	0.000	34	0.000	34	0.000	34
Turkey	0.335	12	0.434	7	0.399	8	0.399	8	0.399	8
UK	0.499	5	0.553	4	0.611	4	0.611	4	0.611	4
USA	0.017	34	0.004	34	0.009	32	0.009	32	0.009	32

주: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신문에서의 이데올로기적 수준)
 자료: Democracy Barometer, 2014

바. 정치적 갈등지표: 언론자유 제한

언론자유는 법적 제한은 법적인 환경 하에서 언론자유는 제한수준을 나타내며, 제한이 없는 경우는 0점(best), 제한이 매우 강한 경우는 -30점(worst)이 부여된 항목이다. 그리고 뉴스매체의 정치적 통제는 정치적 환경 하에서, 뉴스 매체의 내용에 대해 정치적 통제 수준을 평가한 항목이며, 통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0점(best), 통제를 가장 강하게 받는 경우가 -40점(worst)에 해당된다.

언론자유는 법적 제한 수준을 나타내는 값과 뉴스매체의 정치적 통제를 나타내는 값에 절대값을 부여하여 표준화한 결과가 다음의 표와 같다.

언론자유는 법적 제한 수준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 14위(2000년)→6위(2005년)→6위(201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 수준을 볼 때, 2000년에 5위에서 2005년에 8위이

었다가 2011년에 다시 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OECD국가의 언론자유 법적 제한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Korea	0.217	14	0.304	6	0.348	5	0.348	5	0.348	6
Australia	0.043	30	0.130	18	0.217	14	0.217	15	0.174	19
Austria	0.217	14	0.304	6	0.304	8	0.304	8	0.304	9
Belgium	0.043	30	0.043	29	0.087	27	0.087	27	0.087	27
Canada	0.087	24	0.087	22	0.174	18	0.174	19	0.174	19
Chile	0.348	7	0.304	6	0.348	5	0.348	5	0.304	9
Czech	0.217	14	0.217	8	0.130	23	0.130	23	0.130	23
Denmark	0.043	30	0.043	29	0.043	31	0.043	32	0.043	32
Estonia	0.174	19	0.174	13	0.130	23	0.130	23	0.174	19
Finland	0.043	30	0.043	29	0.087	27	0.087	27	0.087	27
France	0.043	30	0.130	18	0.217	14	0.217	15	0.217	14
Germany	0.217	14	0.174	13	0.217	14	0.217	15	0.217	14
Greece	0.391	5	0.304	6	0.348	5	0.348	5	0.348	6
Hungary	0.174	19	0.174	13	0.174	18	0.261	11	0.391	4
Iceland	0.043	30	0.000	34	0.000	34	0.000	34	0.000	34
Ireland	0.217	14	0.087	22	0.130	23	0.130	23	0.174	19
Israel	0.435	3	0.174	13	0.261	10	0.261	11	0.261	11
Italy	0.043	30	0.348	3	0.435	3	0.435	3	0.435	3
Japan	0.043	30	0.043	29	0.043	31	0.043	32	0.043	32
Luxembourg	0.043	30	0.043	29	0.043	31	0.043	32	0.043	32
Mexico	0.391	5	0.435	2	0.609	2	0.652	2	0.696	2
Netherlands	0.217	14	0.000	34	0.043	31	0.087	27	0.087	27
New Zealand	0.130	22	0.043	29	0.087	27	0.087	27	0.087	27
Norway	0.130	22	0.087	22	0.087	27	0.087	27	0.087	27
Poland	0.304	8	0.174	13	0.304	8	0.304	8	0.304	9
Portugal	0.348	7	0.043	29	0.130	23	0.130	23	0.174	19
Slovak	0.609	2	0.174	13	0.261	10	0.261	11	0.217	14
Slovenia	0.217	14	0.087	22	0.261	10	0.304	8	0.304	9
Spain	0.217	14	0.130	18	0.174	18	0.174	19	0.130	23
Sweden	0.130	22	0.043	29	0.043	31	0.043	32	0.043	32
Switzerland	0.130	22	0.087	22	0.174	18	0.174	19	0.174	19
Turkey	0.913	1	0.652	1	0.870	1	0.913	1	0.913	1
UK	0.261	9	0.174	13	0.217	14	0.217	15	0.217	14
USA	0.043	30	0.174	13	0.174	18	0.174	19	0.130	23

주: 언론자유(법적) 제한 press freedom, leagal environment (worst 30, best 0)
 자료: Democracy Barometer, 2014

40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표 2-10〉 OECD국가의 뉴스매체 내용에 대한 정치적 통제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Korea	0.500	5	0.344	8	0.375	8	0.375	9	0.438	5
Australia	0.063	32	0.219	20	0.281	13	0.281	14	0.281	15
Austria	0.125	25	0.250	16	0.250	18	0.250	18	0.250	18
Belgium	0.156	22	0.125	28	0.125	29	0.125	29	0.125	31
Canada	0.188	19	0.250	16	0.250	18	0.250	18	0.250	18
Chile	0.344	10	0.313	9	0.375	8	0.406	7	0.406	8
Czech	0.281	12	0.281	12	0.219	21	0.219	21	0.250	18
Denmark	0.063	32	0.094	32	0.125	29	0.125	29	0.188	25
Estonia	0.188	19	0.188	24	0.156	26	0.188	24	0.188	25
Finland	0.219	16	0.094	32	0.094	33	0.094	33	0.094	33
France	0.406	8	0.281	12	0.281	13	0.313	11	0.313	12
Germany	0.125	25	0.188	24	0.188	23	0.219	21	0.219	22
Greece	0.500	5	0.438	3	0.438	5	0.438	4	0.469	4
Hungary	0.563	3	0.250	16	0.281	13	0.281	14	0.344	10
Iceland	0.063	32	0.125	28	0.125	29	0.156	27	0.156	29
Ireland	0.219	16	0.219	20	0.188	23	0.188	24	0.188	25
Israel	0.469	6	0.406	5	0.500	3	0.438	4	0.469	4
Italy	0.406	8	0.406	5	0.344	9	0.375	9	0.406	8
Japan	0.375	9	0.375	7	0.406	6	0.406	7	0.406	8
Luxembourg	0.125	25	0.125	28	0.094	33	0.094	33	0.094	33
Mexico	0.781	2	0.625	2	0.844	1	0.938	1	0.969	1
Netherlands	0.125	25	0.188	24	0.219	21	0.219	21	0.219	22
New Zealand	0.094	29	0.125	28	0.156	26	0.156	27	0.188	25
Norway	0.000	34	0.094	32	0.094	33	0.094	33	0.125	31
Poland	0.219	16	0.250	16	0.281	13	0.281	14	0.313	12
Portugal	0.125	25	0.188	24	0.188	23	0.188	24	0.188	25
Slovak	0.219	16	0.281	12	0.281	13	0.281	14	0.281	15
Slovenia	0.313	11	0.281	12	0.313	10	0.313	11	0.313	12
Spain	0.250	13	0.406	5	0.438	5	0.438	4	0.406	8
Sweden	0.094	29	0.094	32	0.156	26	0.125	29	0.156	29
Switzerland	0.063	32	0.094	32	0.094	33	0.094	33	0.094	33
Turkey	0.781	2	0.656	1	0.563	2	0.563	2	0.656	2
UK	0.188	19	0.219	20	0.250	18	0.250	18	0.250	18
USA	0.156	22	0.219	20	0.250	18	0.250	18	0.250	18

주: political control over the content of news media (worst 40, best 0)
 자료: Democracy Barometer, 2014

사. 정치적 갈등지표: 시민의 합법시위 참가

시민의 합법시위 참가는 서베이를 통하여, 응답자 중에 합법적 시위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을 나타낸다. 2011년을 기준하였을 때, 스페인→캐나다→프랑스→룩셈부르크→미국 등의 순이었으며, 우리나라는 19위에 있었다.

〈표 2-11〉 OECD국가의 시민의 합법시위 참가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Korea	0.415	16	0.529	3	0.228	16	0.153	19	0.153	19
Australia	0.597	8	0.597	2	0.597	3	0.597	3	0.597	3
Austria	0.214	26	0.214	17	0.111	24	0.085	25	0.085	25
Belgium	0.190	27	0.190	19	0.181	20	0.179	17	0.179	17
Canada	0.578	9	0.410	10	0.718	2	0.795	2	0.795	2
Chile	0.530	10	0.325	12	0.307	13	0.302	13	0.302	13
Czech	0.297	22	0.097	28	0.095	25	0.094	24	0.094	24
Denmark	0.217	25	0.217	16	0.213	17	0.213	15	0.213	15
Estonia	0.621	7	0.000	34	0.015	34	0.019	32	0.019	32
Finland	0.360	20	0.114	25	0.033	31	0.013	33	0.013	33
France	0.457	15	0.457	8	0.566	4	0.593	4	0.593	4
Germany	0.750	4	0.263	15	0.315	12	0.328	10	0.328	10
Greece	0.124	32	0.124	24	0.140	21	0.144	20	0.144	20
Hungary	0.247	24	0.018	33	0.033	30	0.037	29	0.037	29
Iceland	0.400	18	0.400	11	0.400	7	0.400	8	0.400	8
Ireland	0.153	29	0.153	22	0.182	19	0.190	16	0.190	16
Israel	0.467	13	0.467	6	0.231	15	0.172	18	0.172	18
Italy	0.491	12	0.491	5	0.203	18	0.132	22	0.132	22
Japan	0.364	19	0.097	27	0.067	27	0.059	27	0.059	27
Luxembourg	0.459	14	0.459	7	0.459	5	0.459	5	0.459	5
Mexico	0.409	17	0.499	4	0.357	10	0.322	12	0.322	12
Netherlands	0.125	31	0.125	23	0.136	22	0.139	21	0.139	21
New Zealand	0.638	5	0.427	9	0.427	6	0.427	7	0.427	7
Norway	0.791	3	0.281	14	0.366	9	0.387	9	0.387	9
Poland	0.263	23	0.083	30	0.017	33	0.001	34	0.001	34
Portugal	0.063	34	0.063	31	0.050	28	0.047	28	0.047	28
Slovak	0.334	21	0.054	32	0.029	32	0.023	31	0.023	31
Slovenia	0.091	33	0.091	29	0.043	29	0.031	30	0.031	30
Spain	0.870	2	0.654	1	0.841	1	0.887	1	0.887	1
Sweden	1.000	1	0.199	18	0.252	14	0.265	14	0.265	14
Switzerland	0.492	11	0.288	13	0.318	11	0.326	11	0.326	11
Turkey	0.151	30	0.169	20	0.112	23	0.098	23	0.098	23
UK	0.163	28	0.163	21	0.082	26	0.062	26	0.062	26
USA	0.638	6	0.104	26	0.368	8	0.434	6	0.434	6

주: 시민의 합법시위 참가(합법적 시위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
 자료: Democracy Barometer, 2014

아. 정치적 갈등지표: 민주주의 미성숙도

POLITY IV(2013)에서는 정치체제의 특성과 이행에 관해 1800년~2012년에 걸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정치학계에서 민주주의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polity score는 민주 수준에서 독재 수준을 차감한 점수로 산출되며, +10(강한 민주적, strongly democratic)에서 -10(강한 독재적 strongly autocratic)까지의 점수가 스펙트럼으로 부여된다. 이때에 민주 수준은 행정수반의 경쟁 수준, 절차적 제도화, 행정수장의 권한에 대한 제한 수준, 정치참여의 경쟁수준으로 0~10점의 점수가 부여되며, 또는 독재 수준은 행정수반 선출에 관한 개방도 및 행정수장에 대한 제한, 참여규제, 정치적 참여의 자유 경쟁수준(competitiveness)에 따라 0-10점의 점수가 부여된다.

〈표 2-12〉 Polity IV의 민주주의 지표 구성 및 가중치

구분	민주수준 Scale weight	구분	독재수준 Scale weight
행정부 임명 경쟁수준 -투표(election)	+2	행정부 임명 경쟁수준 선정	+2
-과도기적	+1	행정부 임명 개방도	
행정부 임명 개방도		폐쇄적	+1
-dual/election	+1	-dual/designation	+1
-election	+1	행정수장에 대한 제한	
행정수장에 대한 제한		- 제한없음	+3
집권당과 동등	+4	- 중간적 분류	+2
중간적 분류	+3	다소간의 제한	+1
실제적 제한	+2	참여규제	
중간적 분류	+1	제한적	+2
정치 참여의 자유경쟁수준		중파적	+1
경쟁적	+3	참여의 자유경쟁수준	
과도기적	+2	억압됨	+2
당파적	+1	억제됨	+1

자료: Marshall et al. 2013

Polity IV에서 제시하고 있는 2011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를 보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8점, 벨기에 8점, 에스토니아 9점, 프랑스 9점, 멕시코 8점, 터키 9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10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값에 (-)를 부여한 후, 표준화하여 민주주의 미성속도를 산출하였다.

〈표 2-13〉 OECD국가의 민주주의 미성속도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Korea	0.333	3	0.333	3	0.333	3	0.333	3	0.333	2
Australia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Austria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Belgium	0.000	21	0.000	20	0.333	3	0.333	3	0.333	2
Canada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Chile	0.167	6	0.167	6	0.000	20	0.000	20	0.000	20
Czech
Denmark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Estonia	0.167	6	0.167	6	0.167	6	0.167	6	0.167	5
Finland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France	0.167	6	0.167	6	0.167	6	0.167	6	0.167	5
Germany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Greece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Hungary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Iceland
Ireland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Israel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Italy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Japan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Luxembourg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Mexico	0.333	3	0.333	3	0.333	3	0.333	3	0.333	2
Netherlands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New Zealand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Norway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Poland	0.167	6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Portugal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Slovak	0.167	6	0.167	6	0.000	20	0.000	20	0.000	20
Slovenia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Spain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44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Sweden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Switzerland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Turkey	0.500	1	0.500	1	0.500	1	0.500	1	0.167	5
UK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USA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자료: Polity IV project

자. 정치적 갈등지수: 종합

앞 서 살펴본 지표를 종합하여 정치적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1) 공공서비스의 정치적 비독립성, 2)정부의사결정에서의 비효과적인 실행 평가, 3)정보접근제한, 4)언론의 정치적 편향성, 5)언론제한, 6)시민의 합법시위 참여, 7)민주주의 미성숙도에 관한 표준화된 지표를 선형합산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언론제한은 크게 언론자유의 법적 제한과 뉴스매체의 정치적 통제로 구성하였으며, 각 지표에 0.5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정치적 갈등지수는 2000년에 6위이었으나, 2005년에 5위, 2011년에 10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을 기준하여 정치적 갈등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스페인→이탈리아→터키→프랑스→칠레 등의 순이었다.

〈표 2-14〉 OECD국가의 정치적 갈등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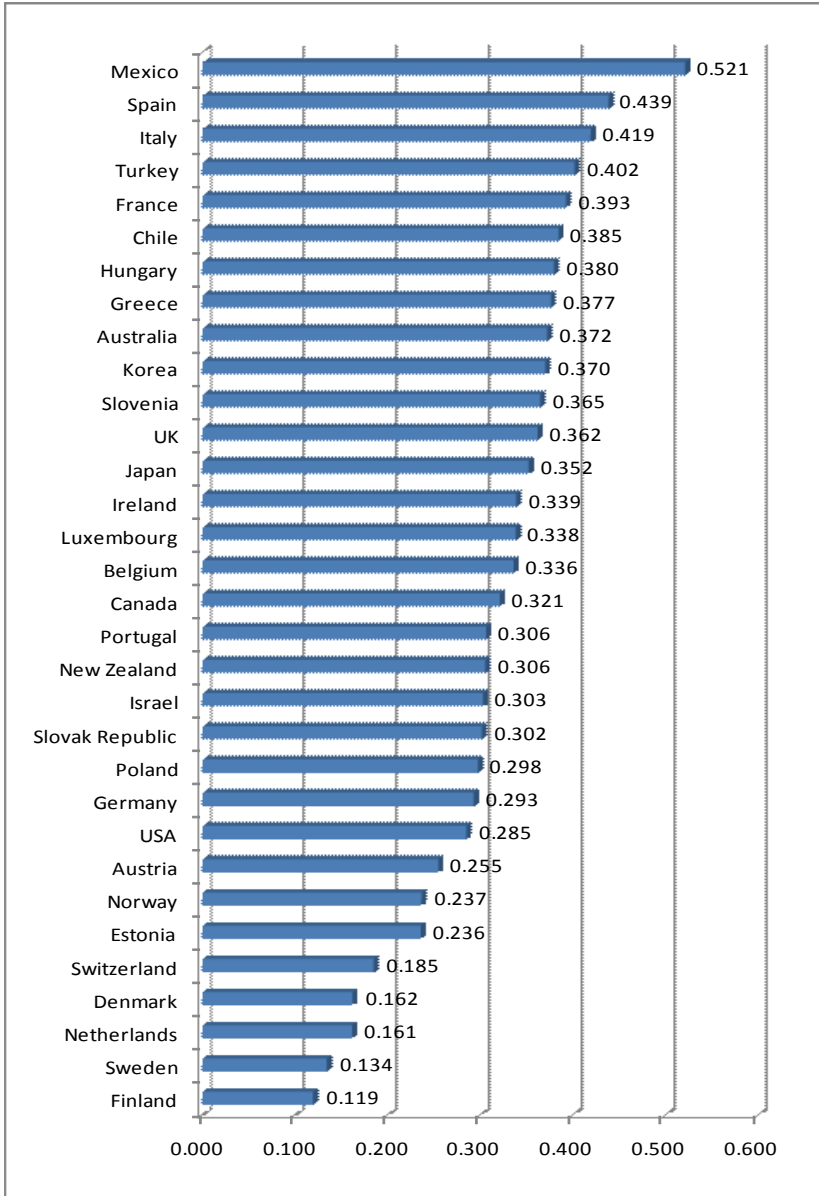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Korea	0.460	6	0.429	5	0.415	5	0.366	11	0.370	10
Australia	0.331	14	0.330	16	0.357	11	0.379	9	0.372	9
Austria	0.261	29	0.262	24	0.271	26	0.256	26	0.255	25
Belgium	0.300	23	0.301	21	0.352	12	0.361	12	0.336	16
Canada	0.270	27	0.305	19	0.346	13	0.343	16	0.321	17
Chile	0.577	1	0.480	1	0.439	4	0.415	4	0.385	6
Czech
Denmark	0.183	30	0.137	31	0.139	31	0.168	30	0.162	29
Estonia	0.316	20	0.259	25	0.293	24	0.250	27	0.236	27
Finland	0.094	32	0.082	32	0.138	32	0.132	32	0.119	32
France	0.317	19	0.332	14	0.380	10	0.391	8	0.393	5
Germany	0.437	7	0.415	6	0.304	22	0.312	20	0.293	23
Greece	0.326	15	0.340	11	0.391	8	0.377	10	0.377	8
Hungary	0.335	13	0.303	20	0.387	9	0.393	7	0.380	7
Iceland
Ireland	0.275	26	0.331	15	0.335	17	0.343	15	0.339	14
Israel	0.326	16	0.351	10	0.336	16	0.311	21	0.303	20
Italy	0.421	8	0.445	3	0.411	6	0.403	6	0.419	3
Japan	0.409	9	0.338	12	0.345	15	0.331	18	0.352	13
Luxembourg	0.313	21	0.359	9	0.346	14	0.347	14	0.338	15
Mexico	0.551	3	0.468	2	0.513	1	0.543	1	0.521	1
Netherlands	0.129	31	0.170	30	0.168	29	0.193	29	0.161	30
New Zealand	0.319	18	0.277	23	0.315	19	0.332	17	0.306	19
Norway	0.275	25	0.200	28	0.249	27	0.256	25	0.237	26
Poland	0.462	5	0.315	17	0.309	21	0.303	23	0.298	22
Portugal	0.291	24	0.308	18	0.281	25	0.301	24	0.306	18
Slovak	0.464	4	0.170	29	0.313	20	0.323	19	0.302	21
Slovenia	0.365	11	0.335	13	0.328	18	0.359	13	0.365	11
Spain	0.354	12	0.382	7	0.446	3	0.458	3	0.439	2
Sweden	0.321	17	0.216	27	0.155	30	0.158	31	0.134	31
Switzerland	0.312	22	0.283	22	0.195	28	0.198	28	0.185	28
Turkey	0.572	2	0.442	4	0.481	2	0.472	2	0.402	4
UK	0.380	10	0.379	8	0.401	7	0.404	5	0.362	12
USA	0.264	28	0.220	26	0.303	23	0.309	22	0.285	24

주: 각 지표를 표준화하여 선형 합산한 결과임.

체코, 아이슬란드가 제외된 OECD32개국을 대상으로 순위를 부여한 결과임.

46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그림 2-3] OECD국가의 정치적 갈등지수 순위: 2011년 기준



2. 경제적 갈등지수

가. 경제적 갈등지수의 구성

본 연구에서 경제적 갈등지수는 Gini계수, P90/P50비율, P90/P10비율로 구성된 지표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Gini계수, P90/P50비율, P90/P10비율은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OECD statistics(2014)에서 추출하였으며, 영역별 자료원은 아래의 표와 같다.

소득구간을 10분위로 나누었을 때, P90/P50비율은 중위소득(median income)대비 상위10% 소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나타내며, P90/P10비율은 소득의 하위10% 대비 상위10%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나타낸다.

〈표 2-15〉 경제적 갈등지수의 구성

영역	세부영역	자료원
경제 갈등	Gini 계수	OECD stat
	p90/p10	OECD stat
	p90/p10	OECD stat

나. 경제적 갈등지표: Gini계수

2009년에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수준을 지니계수로 살펴보면, OECD 32개국가 중에 13위 이었으며, 2010년에는 OECD 29개국가 중에 14위, 2011년에는 28개국가 중에 1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48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표 2-16〉 OECD국가의 Gini계수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Korea	0.333	13	0.319	14	0.323	13
Australia	0.344	8	0.400	9	.	.
Austria	.	.	0.153	21	0.181	25	0.181	21	0.224	19
Belgium	.	.	0.215	17	0.181	23	0.165	23	.	.
Canada	0.337	9	0.342	10	0.353	11	0.351	11	0.338	12
Chile	0.997	1	.	.	0.973	1
Czech	.	.	0.155	20	0.143	29	0.144	25	0.137	24
Denmark	0.039	17	0.055	23	0.074	32	0.123	26	0.125	25
Estonia	.	.	0.403	5	0.317	15	0.343	12	0.362	10
Finland	0.134	15	0.171	19	0.151	28	0.167	22	0.168	22
France	0.241	12	0.245	14	0.262	18	0.296	16	0.316	14
Germany	0.165	13	0.275	11	0.245	19	0.237	17	0.262	17
Greece	.	.	0.440	4	0.392	8	0.413	7	0.405	8
Hungary	0.263	10	0.254	12	0.190	22
Iceland	.	.	0.202	18	0.169	27	0.102	29	0.118	26
Ireland	.	.	0.364	8	0.326	14	0.330	13	0.291	16
Israel	0.445	4	0.550	2	0.532	4	0.543	4	0.548	4
Italy	0.363	7	.	.	0.335	12	0.358	10	0.358	11
Japan	0.410	6	.	.	0.407	7
Luxembourg	.	.	0.227	16	0.211	21	0.187	19	0.205	20
Mexico	0.985	1	0.848	1	.	.
Netherlands	0.258	11	0.231	15	0.228	20	0.228	18	.	.
New Zealand	0.418	5	.	.	0.367	10	.	.	0.363	9
Norway	0.153	14	.	.	0.099	31	0.112	27	0.115	27
Poland	.	.	0.376	7	0.304	16	0.308	15	0.299	15
Portugal	.	.	0.545	3	0.422	6	0.437	5	0.426	7
Slovak	.	.	0.245	13	0.169	26	0.162	24	0.155	23
Slovenia	.	.	0.103	22	0.107	30	0.104	28	0.099	28
Spain	.	.	0.363	9	0.382	9	0.401	8	0.434	6
Sweden	0.091	16	.	.	0.181	24	0.181	20	0.195	21
Switzerland	0.279	17	.	.	0.248	18
Turkey	0.662	2	0.682	2	0.665	2
UK	0.462	3	0.402	6	0.437	5	0.424	6	0.436	5
USA	0.477	2	0.558	1	0.552	3	0.557	3	0.588	3
국가수		17		23		32		29		28

자료: OECD stat

다. 경제적 갈등지표: P90/P50비율

소득구간을 10분위로 나누었을 때, 중위소득(median income)대비

상위 10% 소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1년에 OECD 28개국 중에 14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7〉 OECD국가의 소득 분포: P90/P50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Korea	0.211	15	0.211	14	0.211	14
Australia	0.263	7	0.263	10	.	.
Austria	.	.	0.105	19	0.158	22	0.105	24	0.158	20
Belgium	.	.	0.105	19	0.105	28	0.105	24	.	.
Canada	0.211	10	0.211	11	0.211	15	0.211	14	0.211	14
Chile	0.947	1	.	.	0.947	1
Czech	.	.	0.158	14	0.158	22	0.105	24	0.105	24
Denmark	0.000	17	0.053	22	0.053	32	0.053	28	0.053	28
Estonia	.	.	0.316	5	0.263	9	0.316	7	0.316	7
Finland	0.105	15	0.105	19	0.105	28	0.105	24	0.105	24
France	0.211	10	0.211	11	0.211	15	0.211	14	0.211	14
Germany	0.158	13	.	.	0.158	22	0.158	19	0.211	14
Greece	.	.	0.316	5	0.211	15	0.263	10	0.211	14
Hungary	0.211	10	0.211	11	0.211	15
Iceland	.	.	0.105	19	0.105	28	0.053	28	0.105	24
Ireland	.	.	0.211	11	0.263	9	0.263	10	0.211	14
Israel	0.316	4	0.421	2	0.368	4	0.368	4	0.368	4
Italy	0.263	7	.	.	0.211	15	0.211	14	0.211	14
Japan	0.263	7	.	.	0.263	9
Luxembourg	.	.	0.158	14	0.158	22	0.158	19	0.158	20
Mexico	0.947	1	0.737	1	.	.
Netherlands	0.158	13	0.158	14	0.158	22	0.158	19	.	.
New Zealand	0.316	4	.	.	0.263	9	.	.	0.316	7
Norway	0.053	16	.	.	0.053	32	0.053	28	0.053	28
Poland	.	.	0.316	5	0.211	15	0.211	14	0.211	14
Portugal	.	.	0.474	1	0.368	4	0.368	4	0.316	7
Slovak	.	.	0.105	19	0.158	22	0.158	19	0.158	20
Slovenia	.	.	0.105	19	0.105	28	0.105	24	0.105	24
Spain	.	.	0.263	8	0.263	9	0.316	7	0.316	7
Sweden	0.105	15	.	.	0.105	28	0.105	24	0.105	24
Switzerland	0.158	22	.	.	0.158	20
Turkey	0.526	2	0.526	2	0.526	2
UK	0.316	4	0.263	8	0.316	6	0.316	7	0.316	7
USA	0.316	4	0.368	3	0.368	4	0.368	4	0.421	3
국가수		17		22		32		29		28

주: 소득분포(P90/P50 disposable income decile ratio)

자료: OECD stat

라. 경제적 갈등지표: P90/P10비율

소득구간을 10분위로 나누었을 때, 소득의 하위10% 대비 상위10%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나타내는 P90/P10비율은 2009년에 OECD 32개국 중 8위였으며, 2010년에는 OECD 29개국 중 6위, 2011년에는 28개국 중 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을 기준으로 P90/P10비율에 따른 소득 불평등도를 보면, 칠레 → 터키 → 이스라엘 → 미국 → 스페인 등의 순이었다. 이는 지니계수로 본 칠레 → 터키 → 미국 → 이스라엘 → 영국 → 스페인 등의 순과 비교해 볼 때,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니계수로 본 순위는 13위, P90/P10비율로 본 순위는 7위로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2-18〉 OECD국가의 소득 분포: P90/P10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Korea	0.276	8	0.276	6	0.276	7
Australia	0.211	6	.	.	0.079	24	0.237	9	.	.
Austria	.	.	0.066	17	0.079	24	0.066	24	0.105	19
Belgium	.	.	0.092	14	0.092	22	0.079	20	.	.
Canada	0.171	9	0.184	9	0.197	11	0.184	13	0.184	12
Chile	0.789	1	.	.	0.763	1
Czech	.	.	0.053	19	0.039	30	0.053	26	0.039	26
Denmark	0.000	17	0.000	22	0.013	32	0.026	28	0.026	27
Estonia	.	.	0.250	6	0.184	14	0.224	10	0.224	9
Finland	0.026	14	0.053	19	0.053	29	0.066	24	0.066	24
France	0.105	11	0.092	14	0.105	20	0.118	17	0.118	18
Germany	0.066	13	.	.	0.118	18	0.118	17	0.118	18
Greece	.	.	0.276	5	0.211	9	0.250	8	0.276	7
Hungary	0.118	10	0.092	14	0.092	22
Iceland	.	.	0.039	21	0.053	29	0.013	29	0.013	28
Ireland	.	.	0.171	10	0.145	16	0.145	15	0.145	15
Israel	0.289	4	0.461	1	0.461	3	0.487	3	0.461	3
Italy	0.211	6	.	.	0.184	14	0.211	11	0.197	11
Japan	0.316	3	.	.	0.329	5
Luxembourg	.	.	0.105	11	0.105	20	0.092	18	0.092	21
Mexico	1.000	1	0.895	1	.	.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Netherlands	0.079	12	0.092	14	0.079	24	0.079	20	.	.
New Zealand	0.197	8	.	.	0.197	11	.	.	0.197	11
Norway	0.013	16	.	.	0.026	31	0.026	28	0.039	26
Poland	.	.	0.237	7	0.171	15	0.171	14	0.171	14
Portugal	.	.	0.329	3	0.276	8	0.250	8	0.263	8
Slovak	.	.	0.066	17	0.066	27	0.066	24	0.079	22
Slovenia	.	.	0.053	19	0.066	27	0.066	24	0.066	24
Spain	.	.	0.276	5	0.289	6	0.316	5	0.355	5
Sweden	0.013	16	.	.	0.079	24	0.079	20	0.092	21
Switzerland	0.118	18	.	.	0.132	16
Turkey	0.474	2	0.500	2	0.474	2
UK	0.211	6	0.197	8	0.197	11	0.184	13	0.171	14
USA	0.355	2	0.421	2	0.421	4	0.447	4	0.447	4
국가수		17		22		32		29		28

주: 소득분포(P90/P10 disposable income decile ratio)
 자료: OECD stat

마. 경제적 갈등지수: 종합

경제적 갈등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Gini계수, P90/P50비율, P90/P10 비율로 구성된 지표를 선형합산하였으며, 이의 결과가 다음의 표와 같다. 2000년과 2005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등이 산출되지 않아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몇 개국에 국한하여 산출하였다. 2009년에는 OECD 32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갈등지수 순위가 10위이었다. 2009년을 기준으로 경제적 갈등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칠레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터키→이스라엘→미국→포르투갈→일본→영국→스페인 등의 순이었다.

2010년에는 2009년도 자료에서 칠레, 일본, 헝가리, 뉴질랜드, 스위스의 5개국이 제외되고, 호주, 멕시코인 2개 국가에 대한 지수가 포함되어 29개 국가에 대한 순위가 산출되었다. 2010년에 경제적 갈등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 순으로 보면, 멕시코→터키→이스라엘→미국→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순위였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갈등지수 순위는 11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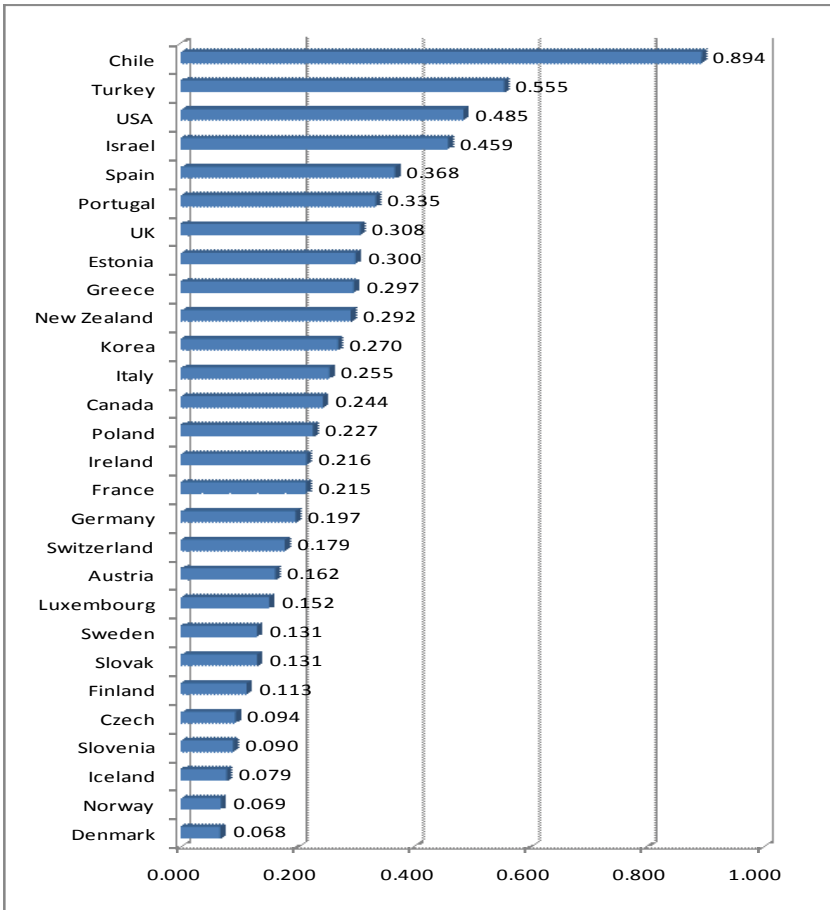
2011년에는 2010년도 자료에서 호주, 벨기에, 멕시코, 네덜란드의 4개국이 제외되고, 칠레, 뉴질랜드, 스위스의 3개국이 추가로 포함되어, 28개국에 대한 순위가 산출되었다. 2011년 경제적 갈등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 순으로 보면, 칠레→터키→미국→이스라엘→스페인→포르투갈 등의 순위였고 우리나라는 1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9〉 OECD국가의 경제적 갈등 지수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Korea	0.273	10	0.269	11	0.270	11
Australia	0.272	8	0.300	9	.	.
Austria	.	.	0.108	20	0.139	23	0.117	22	0.162	19
Belgium	.	.	0.137	16	0.126	25	0.116	23	.	.
Canada	0.240	9	0.245	10	0.254	13	0.249	13	0.244	13
Chile	0.911	1	.	.	0.894	1
Czech	.	.	0.122	17	0.114	27	0.101	25	0.094	24
Denmark	0.013	17	0.036	22	0.047	32	0.067	27	0.068	28
Estonia	.	.	0.323	5	0.255	12	0.294	10	0.300	8
Finland	0.088	14	0.110	19	0.103	29	0.113	24	0.113	23
France	0.186	11	0.182	12	0.193	17	0.208	16	0.215	16
Germany	0.129	13	.	.	0.174	19	0.171	17	0.197	17
Greece	.	.	0.344	4	0.271	11	0.309	7	0.297	9
Hungary	0.197	10	0.186	11	0.164	20
Iceland	.	.	0.116	18	0.109	28	0.056	29	0.079	26
Ireland	.	.	0.249	9	0.245	14	0.246	14	0.216	15
Israel	0.350	3	0.477	1	0.454	3	0.466	3	0.459	4
Italy	0.279	7	.	.	0.243	15	0.260	12	0.255	12
Japan	0.330	4	.	.	0.333	6
Luxembourg	.	.	0.164	13	0.158	21	0.146	19	0.152	20
Mexico	0.977	1	0.826	1	.	.
Netherlands	0.165	12	0.160	14	0.155	22	0.155	18	.	.
New Zealand	0.310	6	.	.	0.276	9	.	.	0.292	10
Norway	0.073	15	.	.	0.059	31	0.064	28	0.069	27
Poland	.	.	0.309	6	0.229	16	0.230	15	0.227	14
Portugal	.	.	0.449	3	0.356	5	0.352	5	0.335	6
Slovak	.	.	0.139	15	0.131	24	0.128	20	0.131	22
Slovenia	.	.	0.087	21	0.093	30	0.092	26	0.090	25
Spain	.	.	0.301	7	0.312	8	0.344	6	0.368	5
Sweden	0.070	16	.	.	0.122	26	0.122	21	0.131	21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Switzerland	0.185	18	.	.	0.179	18
Turkey	0.554	2	0.569	2	0.555	2
UK	0.329	5	0.288	8	0.317	7	0.308	8	0.308	7
USA	0.383	2	0.449	2	0.447	4	0.458	4	0.485	3
국가수		17		22		32		29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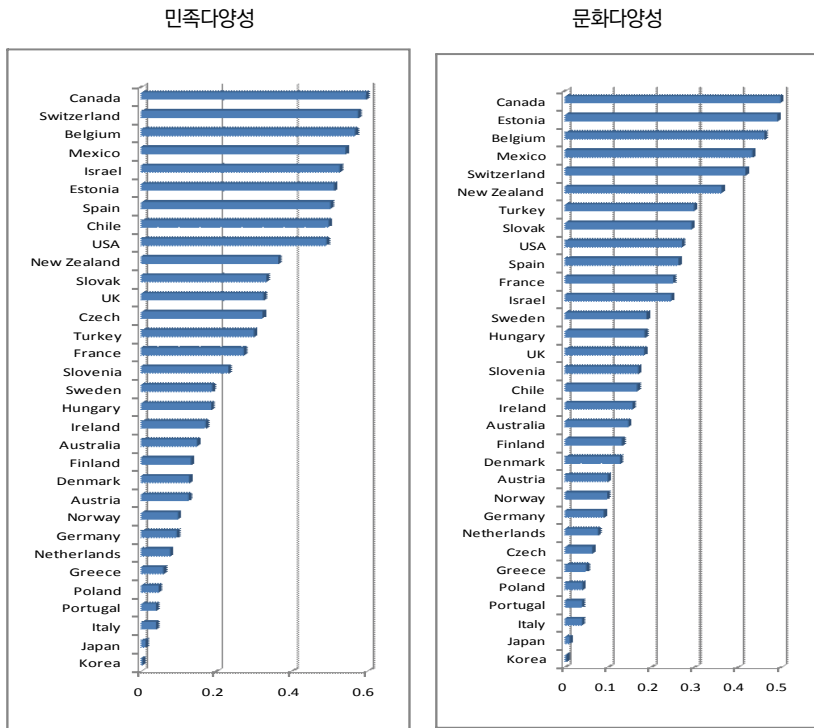
[그림 2-4] OECD국가의 경제적 갈등 지수 순위



3. 민족문화적 갈등지수

사회문화적 갈등지수에는 민족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을 결합하여 산출하였다. Fearon(2003)에서는 세계 각 국가의 민족다양성 지표와 문화다양성 지표를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OECD국가만을 선별하여 표준화한 결과표가 다음과 같다. 민족다양성이 높은 국가 순으로 보면, 캐나다→스위스→벨기에→멕시코 등의 순이었고, 문화다양성이 높은 국가 순으로 보면, 캐나다→에스토니아→벨기에→멕시코→스위스 순이었다.

[그림 2-5] OECD국가의 민족다양성 및 문화다양성 지표 순위



자료: Fearon, 2003

〈표 2-20〉 OECD국가의 민족문화적 갈등지수

국가명	민족다양성			문화다양성			민족문화적 갈등지수	
	점수	표준화 지표	순위	점수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Korea	0.004	0.000	32	0.004	0.000	32	0.000	32
Australia	0.149	0.245	20	0.147	0.289	19	0.534	20
Austria	0.126	0.206	23	0.100	0.194	22	0.400	23
Belgium	0.567	0.951	3	0.462	0.925	3	1.876	2
Canada	0.596	1.000	1	0.499	1.000	1	2.000	1
Chile	0.497	0.833	8	0.167	0.329	17	1.162	10
Czech	0.322	0.537	13	0.064	0.121	26	0.658	18
Denmark	0.128	0.209	22	0.128	0.251	21	0.460	22
Estonia	0.511	0.856	6	0.492	0.986	2	1.842	3
Finland	0.132	0.216	21	0.132	0.259	20	0.475	21
France	0.272	0.453	15	0.251	0.499	11	0.952	13
Germany	0.095	0.154	25	0.090	0.174	24	0.327	25
Greece	0.059	0.093	27	0.050	0.093	27	0.186	27
Hungary	0.186	0.307	18	0.185	0.366	14	0.673	17
Iceland
Ireland	0.171	0.282	19	0.157	0.309	18	0.591	19
Israel	0.526	0.882	5	0.246	0.489	12	1.371	6
Italy	0.040	0.061	30	0.040	0.073	30	0.134	30
Japan	0.012	0.014	31	0.012	0.016	31	0.030	31
Luxembourg
Mexico	0.542	0.909	4	0.434	0.869	4	1.777	5
Netherlands	0.077	0.123	26	0.077	0.147	25	0.271	26
New Zealand	0.363	0.606	10	0.363	0.725	6	1.332	9
Norway	0.098	0.159	24	0.098	0.190	23	0.349	24
Poland	0.047	0.073	28	0.041	0.075	28	0.147	28
Portugal	0.040	0.061	30	0.040	0.073	30	0.134	30
Slovak	0.332	0.554	11	0.293	0.584	8	1.138	11
Slovenia	0.231	0.383	16	0.170	0.335	16	0.719	15
Spain	0.502	0.841	7	0.263	0.523	10	1.364	7
Sweden	0.189	0.313	17	0.189	0.374	13	0.686	16
Switzerland	0.575	0.965	2	0.418	0.836	5	1.801	4
Turkey	0.299	0.498	14	0.299	0.596	7	1.094	12
United Kingdom	0.324	0.541	12	0.184	0.364	15	0.904	14
United States	0.491	0.823	9	0.271	0.539	9	1.362	8

자료: Fearon, 2003

또한, 최근에 Desmet et al.,(2014)이 민족다양성과 문화다양성 지표에 대해 각 국가마다 산출하고 있는데, 앞서 산출한 Fearon(2003)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민족다양성은 매우 낮은 반면, 문화다양성은 OECD 국가 중에 1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사회갈등요인지수 산출에서 민족문화적 갈등지수를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를 모두 제시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21〉 OECD국가의 민족문화적 갈등지수

국가명	민족다양성		문화다양성		민족문화적 갈등지수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Korea	0.000	23	0.552	11	0.528	17
Australia	0.244	7	0.552	8	0.918	10
Canada	0.626	3	0.558	5	1.602	1
Chile	0.162	10	0.565	4	0.983	9
Czech	0.007	20	0.537	20	0.318	22
Estonia	0.486	4	0.517	23	0.757	12
Finland	0.053	17	0.552	10	0.613	14
France	0.135	11	0.583	1	1.210	4
Germany	0.073	14	0.576	2	1.014	7
Italy	0.000	23	0.557	6	0.614	13
Japan	0.004	21	0.527	21	0.159	23
Mexico	0.643	1	0.548	13	1.464	3
New Zealand	0.041	18	0.538	19	0.378	20
Norway	0.066	15	0.539	18	0.441	19
Poland	0.020	19	0.544	15	0.444	18
Slovak	0.134	12	0.542	17	0.583	15
Slovenia	0.056	16	0.547	14	0.540	16
Spain	0.294	6	0.552	9	0.993	8
Sweden	0.228	8	0.544	16	0.760	11
Switzerland	0.638	2	0.557	7	1.595	2
Turkey	0.204	9	0.519	22	0.336	21
UK	0.127	13	0.573	3	1.049	5
USA	0.336	5	0.551	12	1.042	6
국가수		23		23		23

주: Austria, Belgium, Denmark, Greece, Hungary, Iceland, Israel, Luxembourg, Netherlands, Portugal 이 제외됨.

자료: Desmet et al., 2014

4. 인구스트레스 갈등지수

가. 인구스트레스 갈등지수의 구성

인구스트레스 갈등지수는 인구밀집도와 도시인구집중도로 구성되며,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서 제시하고 있다.

〈표 2-22〉 인구스트레스 갈등지수의 구성

영역	세부영역	자료원
인구 스트레스	인구밀집도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도시인구집중도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나. 인구스트레스 갈등지수: 인구밀집도

OECD국가의 인구 밀집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인구 밀집도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을 기준하여 인구 밀집도의 그 다음 순위는 네덜란드→벨기에→이스라엘→일본→영국 등의 순이었다.

〈표 2-23〉 OECD국가의 인구밀집도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Korea	0.949	1	0.968	1	0.986	1	0.991	1	0.998	1
Australia	0.000	34	0.001	34	0.001	34	0.001	34	0.001	34
Austria	0.185	19	0.191	18	0.194	18	0.194	18	0.195	18
Belgium	0.658	4	0.672	4	0.693	3	0.701	3	0.709	3
Canada	0.002	32	0.002	32	0.003	32	0.003	32	0.003	32
Chile	0.036	28	0.038	28	0.040	27	0.040	27	0.041	27

58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Czech	0.255	11	0.254	11	0.260	11	0.261	11	0.261	11
Denmark	0.241	12	0.245	12	0.250	12	0.251	12	0.252	12
Estonia	0.060	25	0.058	26	0.057	26	0.057	26	0.057	26
Finland	0.029	29	0.029	29	0.030	29	0.030	29	0.030	29
France	0.213	17	0.221	14	0.226	14	0.228	14	0.229	14
Germany	0.456	7	0.458	7	0.455	7	0.454	7	0.454	7
Greece	0.161	20	0.164	22	0.165	22	0.165	22	0.164	22
Hungary	0.218	14	0.216	16	0.212	17	0.211	17	0.211	17
Iceland	0.001	33	0.001	33	0.002	33	0.002	33	0.002	33
Ireland	0.103	23	0.113	23	0.124	23	0.125	23	0.125	23
Israel	0.564	5	0.622	5	0.672	5	0.684	4	0.697	4
Italy	0.374	8	0.381	8	0.388	8	0.390	8	0.390	8
Japan	0.676	3	0.681	3	0.680	4	0.679	5	0.681	5
Luxembourg	0.325	10	0.347	10	0.371	10	0.378	9	0.387	9
Mexico	0.100	24	0.107	24	0.112	24	0.114	24	0.115	24
Netherlands	0.918	2	0.941	2	0.954	2	0.959	2	0.963	2
New Zealand	0.024	30	0.026	30	0.027	30	0.028	30	0.028	30
Norway	0.019	31	0.025	31	0.026	31	0.027	31	0.027	31
Poland	0.240	13	0.239	13	0.241	13	0.241	13	0.243	13
Portugal	0.215	15	0.220	15	0.221	15	0.221	15	0.221	15
Slovak	0.214	16	0.214	17	0.214	16	0.215	16	0.215	16
Slovenia	0.188	18	0.190	19	0.193	19	0.194	19	0.195	19
Spain	0.153	22	0.166	21	0.177	20	0.178	21	0.179	21
Sweden	0.038	27	0.038	27	0.040	28	0.040	28	0.040	28
Switzerland	0.351	9	0.359	9	0.374	9	0.378	10	0.382	10
Turkey	0.156	21	0.168	20	0.176	21	0.179	20	0.181	20
UK	0.471	6	0.484	6	0.499	6	0.503	6	0.507	6
USA	0.056	26	0.058	25	0.061	25	0.061	25	0.062	25

다. 인구스트레스 갈등지수: 도시인구 집중도

인구스트레스 갈등지수의 또 다른 지표인 도시인구 집중도를 도시인구 증가율로 산출하였다. 우리나라의 도시인구증가율은 2000년에 11위이었으나, 2011년에는 14위로 증가율이 다소 감소되었다. 이스라엘, 포르투갈, 이스라엘, 칠레 등에서 도시인구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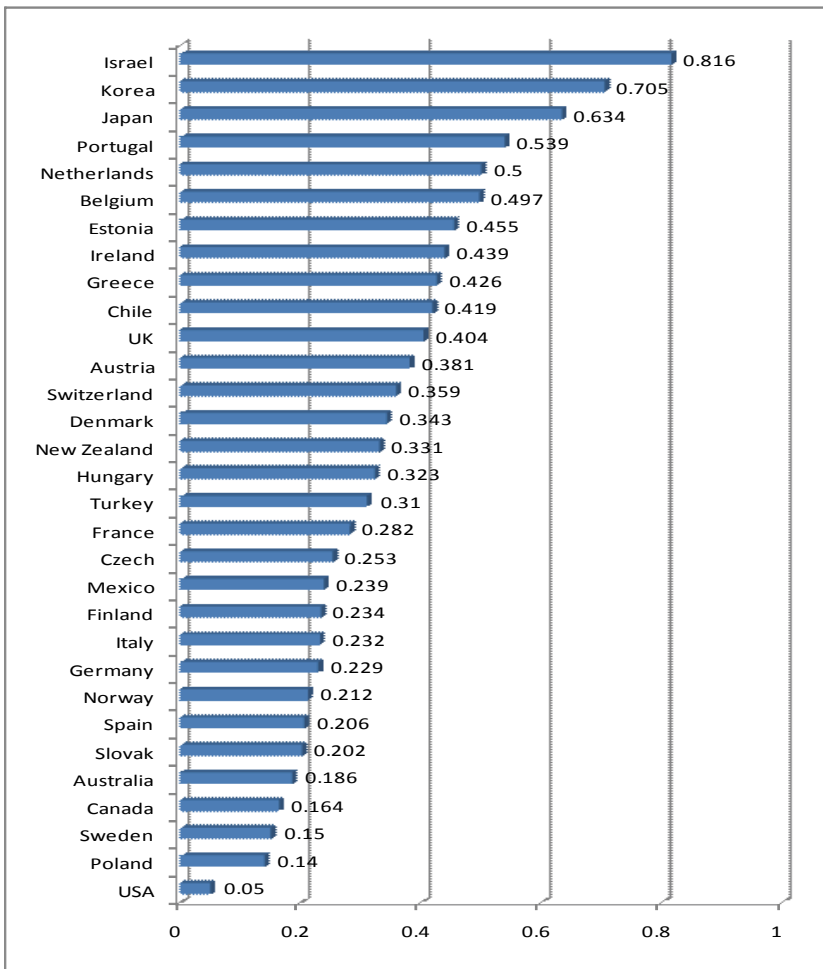
〈표 2-24〉 OECD국가의 도시인구 집중도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Korea	0.466	11	0.437	11	0.421	14	0.417	14	0.412	14
Australia	0.419	12	0.402	14	0.381	16	0.375	16	0.371	16
Austria	0.534	9	0.554	9	0.562	9	0.565	9	0.567	9
Belgium	0.278	22	0.286	22	0.288	22	0.286	22	0.285	22
Canada	0.297	20	0.311	20	0.321	20	0.323	20	0.325	20
Chile	0.829	4	0.821	4	0.804	4	0.800	4	0.797	4
Czech	0.221	25	0.236	24	0.241	24	0.243	24	0.246	24
Denmark	0.406	15	0.418	13	0.427	12	0.430	13	0.433	13
Estonia	0.801	5	0.831	3	0.847	3	0.850	3	0.853	3
Finland	0.412	13	0.425	12	0.433	11	0.436	11	0.438	11
France	0.347	18	0.339	18	0.335	19	0.335	19	0.335	19
Germany	0.001	31	0.000	31	0.002	31	0.003	31	0.003	31
Greece	0.773	6	0.729	6	0.695	6	0.691	6	0.687	6
Hungary	0.482	10	0.463	10	0.444	10	0.439	10	0.436	12
Iceland
Ireland	0.860	3	0.799	5	0.748	5	0.750	5	0.753	5
Israel	0.946	1	0.944	1	0.936	1	0.935	1	0.934	1
Italy	0.073	27	0.072	27	0.073	27	0.073	27	0.074	27
Japan	0.649	7	0.602	8	0.591	8	0.591	8	0.588	8
Luxembourg
Mexico	0.408	14	0.386	17	0.370	17	0.367	17	0.363	17
Netherlands	0.059	28	0.045	29	0.039	29	0.038	30	0.037	30
New Zealand	0.596	8	0.624	7	0.631	7	0.631	7	0.633	7
Norway	0.382	16	0.387	16	0.393	15	0.395	15	0.397	15
Poland	0.033	30	0.035	30	0.038	30	0.039	29	0.038	29
Portugal	0.945	2	0.892	2	0.865	2	0.859	2	0.856	2
Slovak	0.192	26	0.194	26	0.190	26	0.189	26	0.188	26
Slovenia
Spain	0.241	23	0.232	25	0.227	25	0.230	25	0.232	25
Sweden	0.237	24	0.242	23	0.254	23	0.257	23	0.260	23
Switzerland	0.333	19	0.338	19	0.337	18	0.336	18	0.335	18
Turkey	0.354	17	0.388	15	0.423	13	0.433	12	0.440	10
UK	0.291	21	0.298	21	0.300	21	0.301	21	0.301	21
USA	0.053	29	0.046	28	0.040	28	0.039	28	0.038	28

라. 인구스트레스 갈등지수: 종합

인구스트레스 갈등지수의 순위를 살펴보면(2011년 기준), 이스라엘→우리나라→일본→포르투갈→네덜란드 등의 순이었다.

[그림 2-6] OECD국가의 인구스트레스 갈등지수 순위



〈표 2-25〉 OECD국가의 인구스트레스 갈등지수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Korea	0.707	2	0.702	2	0.703	2	0.704	2	0.705	2
Australia	0.210	24	0.201	26	0.191	27	0.188	27	0.186	27
Austria	0.359	12	0.372	12	0.378	12	0.380	12	0.381	12
Belgium	0.468	7	0.479	6	0.490	6	0.493	6	0.497	6
Canada	0.149	28	0.156	28	0.162	28	0.163	28	0.164	28
Chile	0.432	9	0.429	10	0.422	10	0.420	10	0.419	10
Czech	0.238	20	0.245	20	0.250	19	0.252	19	0.253	19
Denmark	0.324	15	0.331	15	0.338	14	0.340	14	0.343	14
Estonia	0.430	10	0.445	9	0.452	7	0.453	7	0.455	7
Finland	0.220	23	0.227	22	0.232	21	0.233	21	0.234	21
France	0.280	17	0.280	17	0.281	18	0.281	18	0.282	18
Germany	0.228	21	0.229	21	0.228	23	0.228	23	0.229	23
Greece	0.467	8	0.446	8	0.430	9	0.428	9	0.426	9
Hungary	0.350	13	0.339	14	0.328	16	0.325	16	0.323	16
Iceland
Ireland	0.482	6	0.456	7	0.436	8	0.437	8	0.439	8
Israel	0.755	1	0.783	1	0.804	1	0.810	1	0.816	1
Italy	0.223	22	0.227	23	0.231	22	0.231	22	0.232	22
Japan	0.662	3	0.641	3	0.636	3	0.635	3	0.634	3
Luxembourg
Mexico	0.254	19	0.246	19	0.241	20	0.240	20	0.239	20
Netherlands	0.488	5	0.493	5	0.497	5	0.498	5	0.500	5
New Zealand	0.310	16	0.325	16	0.329	15	0.329	15	0.331	15
Norway	0.201	26	0.206	24	0.210	24	0.211	24	0.212	24
Poland	0.136	30	0.137	30	0.139	30	0.140	30	0.140	30
Portugal	0.580	4	0.556	4	0.543	4	0.540	4	0.539	4
Slovak	0.203	25	0.204	25	0.202	26	0.202	26	0.202	26
Slovenia
Spain	0.197	27	0.199	27	0.202	25	0.204	25	0.206	25
Sweden	0.137	29	0.140	29	0.147	29	0.148	29	0.150	29
Switzerland	0.342	14	0.349	13	0.355	13	0.357	13	0.359	13
Turkey	0.255	18	0.278	18	0.300	17	0.306	17	0.310	17
UK	0.381	11	0.391	11	0.399	11	0.402	11	0.404	11
USA	0.054	31	0.052	31	0.051	31	0.050	31	0.050	31

마. 사회갈등요인지수

사회갈등요인지수는 정치적 갈등, 경제적 갈등, 민족문화갈등, 인구스트레스의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정치갈등과 경제갈등에 대해서는 0.4의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민족문화갈등과 인구스트레스 갈등에 0.2의 가중치를, 그리고 인구스트레스 갈등에는 0.2의 가중치를 각각 부여하여 선형합산하였다. 민족문화갈등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결과 값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지수를 제외한 갈등요인지수도 추가로 산출하였다.

2006년의 사회갈등요인지수를 보면, 17개의 OECD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6위에 있었고, 민족문화갈등지수를 제외한 사회갈등요인지수(2)를 보면, 17개의 OECD국가 중에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사회갈등요인지수는 28개 OECD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9위였고, 민족문화갈등지수를 제외한 사회갈등요인지수(2)는 4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OECD 25개 국가 중에 11위였고, 사회갈등요인지수(2)는 4위이었다.

마지막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24개 OECD국가를 대상으로 사회갈등요인지수가 산출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요인지수 10위, 사회갈등요인지수(2) 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갈등요인지수의 순위가 높은 국가부터 살펴보면, 칠레→터키→이스라엘→스페인→미국→영국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민족문화갈등지수를 제외한 사회갈등요인지수(2)의 순위를 보면, 칠레→이스라엘→터키→한국→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 등의 순이었다. 비교적 양호한 순위를 보이고 있는 민족문화갈등지수를 포함할지에 대한 기준 여부가 종합 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6〉 OECD국가(N=17)의 사회갈등요인지수: 2006년

국가명	정치	경제	문화	인구	갈등요인지수		갈등요인지수2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Korea	4	9	32	2	0.344	6	0.415	2
Australia	9	.	20	27
Austria	25	15	23	12	0.196	13	0.214	14
Belgium	22	16	2	6	0.302	10	0.257	11
Canada	19	10	1	28	0.332	7	0.248	12
Chile	2	1	10	10	0.676	1	0.660	1
Czech	.	17	18	19
Denmark	31	21	22	15	0.129	16	0.140	16
Estonia	23	6	3	8	0.361	3	0.313	7
Finland	32	18	21	22	0.125	17	0.124	17
France	8	.	13	18
Germany	16	.	25	21
Greece	15	3	27	9	0.312	8	0.347	6
Hungary	13	.	17	14
Iceland	.	12
Ireland	18	11	19	7	0.288	11	0.303	8
Israel	10	.	6	1
Italy	5	.	30	23
Japan	20	4	31	3	0.308	9	0.370	4
Luxembourg	11	13
Mexico	1	.	5	20
Netherlands	30	14	26	5	0.185	15	0.221	13
New Zealand	17	.	9	16
Norway	29	.	24	24
Poland	12	7	28	30	0.257	12	0.263	10
Portugal	21	2	30	4	0.354	4	0.402	3
Slovak	26	20	11	25	0.192	14	0.155	15
Slovenia	14	19	15
Spain	6	8	7	26	0.349	5	0.301	9
Sweden	27	.	16	29
Switzerland	28	.	4	13
Turkey	3	.	12	17
UK	7	5	14	11	0.363	2	0.357	5
USA	24	.	8	31

주: 사회갈등요인지수1=(정치갈등×0.4 + 경제갈등×0.4 + 사회갈등×0.1 + 인구스트레스×0.1)
갈등요인지수2=정치갈등×0.4 + 경제갈등×0.4 +인구스트레스× 0.2

64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표 2-27〉 OECD국가(N=28)의 사회갈등요인지수: 2009년

국가명	정치	경제	사회	인구	갈등요인지수		갈등요인지수2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Korea	5	10	32	2	0.345	9	0.415	4
Australia	11	.	20	27
Austria	26	23	23	12	0.221	23	0.239	20
Belgium	12	25	2	6	0.333	12	0.288	15
Canada	13	13	1	28	0.356	8	0.272	18
Chile	4	1	10	10	0.639	1	0.623	1
Czech	.	27	18	19
Denmark	31	32	22	14	0.131	28	0.142	27
Estonia	24	12	3	7	0.356	7	0.309	12
Finland	32	29	21	21	0.142	27	0.142	26
France	10	17	13	18	0.303	16	0.284	17
Germany	22	19	25	23	0.230	22	0.236	21
Greece	8	11	27	9	0.315	13	0.349	8
Hungary	9	20	17	16	0.285	18	0.284	16
Iceland	.	28
Ireland	16	14	19	8	0.304	15	0.318	10
Israel	17	3	6	1	0.463	3	0.475	2
Italy	6	15	30	22	0.289	17	0.306	13
Japan	15	6	31	3	0.335	11	0.397	5
Luxembourg	14	21
Mexico	1	.	5	20
Netherlands	29	22	26	5	0.192	24	0.228	22
New Zealand	19	9	9	15	0.335	10	0.302	14
Norway	27	31	24	24	0.161	25	0.164	25
Poland	21	16	28	30	0.235	21	0.241	19
Portugal	25	5	30	4	0.314	14	0.362	7
Slovak	20	24	11	26	0.253	20	0.216	24
Slovenia	18	30	15
Spain	3	8	7	25	0.390	4	0.342	9
Sweden	30	26	16	29	0.159	26	0.139	28
Switzerland	28	18	4	13	0.277	19	0.223	23
Turkey	2	2	12	17	0.497	2	0.472	3
UK	7	7	14	11	0.370	6	0.365	6
USA	23	4	8	31	0.372	5	0.309	11

주: 사회갈등요인지수1=(정치갈등×0.4 + 경제갈등×0.4 + 사회갈등×0.1 + 인구스트레스×0.1)
갈등요인지수2=정치갈등×0.4 + 경제갈등×0.4 +인구스트레스× 0.2

〈표 2-28〉 OECD국가(N=25)의 사회갈등 요인 지수: 2010년

국가명	정치	경제	사회	인구	갈등요인지수		갈등요인지수2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Korea	11	11	32	2	0.323	11	0.394	4
Australia	9	9	20	27	0.317	13	0.309	12
Austria	25	22	23	12	0.206	20	0.224	20
Belgium	12	23	2	6	0.333	9	0.288	15
Canada	15	13	1	28	0.352	8	0.269	16
Chile	4	.	10	10
Czech	.	25	18	19
Denmark	30	27	22	14	0.151	24	0.162	23
Estonia	27	10	3	7	0.354	7	0.307	13
Finland	32	24	21	21	0.144	25	0.144	24
France	8	16	13	18	0.314	14	0.294	14
Germany	20	17	25	23	0.232	19	0.238	19
Greece	10	7	27	9	0.325	10	0.358	8
Hungary	7	.	17	16
Iceland	.	29
Ireland	16	14	19	8	0.308	15	0.322	9
Israel	21	3	6	1	0.459	3	0.472	3
Italy	6	12	30	22	0.293	16	0.309	11
Japan	18	.	31	3
Luxembourg	14	19
Mexico	1	1	5	20	0.659	1	0.594	1
Netherlands	29	18	26	5	0.202	21	0.239	18
New Zealand	17	.	9	15
Norway	26	28	24	24	0.165	22	0.169	22
Poland	23	15	28	30	0.233	18	0.239	17
Portugal	24	5	30	4	0.320	12	0.367	5
Slovak	19	20	11	26	0.256	17	0.219	21
Slovenia	13	26	15
Spain	3	6	7	25	0.408	4	0.360	7
Sweden	31	21	16	29	0.160	23	0.141	25
Switzerland	28	.	4	13
Turkey	2	2	12	17	0.500	2	0.476	2
UK	5	8	14	11	0.369	6	0.364	6
USA	22	4	8	31	0.379	5	0.316	10

주: 사회갈등요인지수1=(정치갈등×0.4 + 경제갈등×0.4 + 사회갈등×0.1 + 인구스트레스×0.1)
갈등요인지수2=정치갈등×0.4 + 경제갈등×0.4 +인구스트레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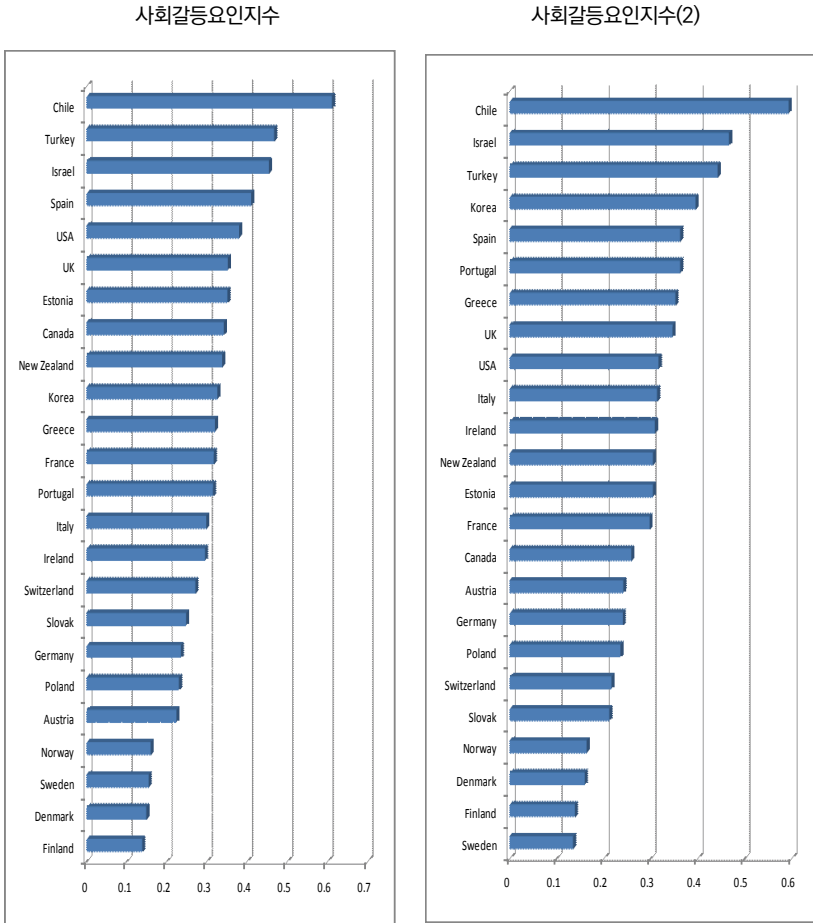
66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표 2-29〉 OECD국가(N=24)의 사회갈등요인지수: 2011년

국가명	정치	경제	사회	인구	갈등요인지수		갈등요인지수2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Korea	10	11	32	2	0.326	10	0.396	4
Australia	9	.	20	27
Austria	25	19	23	12	0.224	20	0.242	16
Belgium	16	.	2	6
Canada	17	13	1	28	0.342	8	0.259	15
Chile	6	1	10	10	0.611	1	0.594	1
Czech	.	24	18	19
Denmark	29	28	22	14	0.149	23	0.160	22
Estonia	27	8	3	7	0.351	7	0.305	12
Finland	32	23	21	21	0.139	24	0.139	23
France	5	16	13	18	0.317	12	0.298	14
Germany	23	17	25	23	0.235	18	0.241	17
Greece	8	9	27	9	0.320	11	0.353	7
Hungary	7	.	17	16
Iceland	.	26
Ireland	14	15	19	8	0.295	15	0.309	11
Israel	20	4	6	1	0.454	3	0.467	2
Italy	3	12	30	22	0.298	14	0.314	10
Japan	13	.	31	3
Luxembourg	15	20
Mexico	1	.	5	20
Netherlands	30	.	26	5
New Zealand	18	10	9	15	0.338	9	0.305	13
Norway	26	27	24	24	0.160	21	0.164	21
Poland	22	14	28	30	0.230	19	0.236	18
Portugal	19	6	30	4	0.315	13	0.363	6
Slovak	21	22	11	26	0.248	17	0.212	20
Slovenia	11	25	15
Spain	2	5	7	25	0.410	4	0.363	5
Sweden	31	21	16	29	0.155	22	0.135	24
Switzerland	28	18	4	13	0.271	16	0.217	19
Turkey	4	2	12	17	0.467	2	0.443	3
UK	12	7	14	11	0.352	6	0.347	8
USA	24	3	8	31	0.380	5	0.317	9

주: 사회갈등요인지수1=(정치갈등×0.4 + 경제갈등×0.4 + 사회갈등×0.1 + 인구스트레스×0.1)
갈등요인지수2=정치갈등×0.4 + 경제갈등×0.4 +인구스트레스× 0.2

[그림 2-7] OECD국가(N=24)의 사회갈등요인지수 순위: 2011년



제5절 사회갈등 관리지수

1. 사회갈등 관리지수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정부 효과성, 규제 의 질, 부패통제, 정부 소비지출비중이 포함되었다. 이에 관한 자료는 주로 세계은행에서 발간하는 World Governance 지표 자료를 활용하였다. World Governance 지표는 약 200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6년부터 산출하고 있으며, 정부 효과성, 규제 의 질, 부패통제 이외에도 voice and accountability,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rule of law에 대한 6개의 지표를 생산하고 있다.

〈표 2-30〉 정치적 갈등지수의 구성

영역	세부영역	자료원
정치 갈등	정부 효과성	World Bank, World Governance
	규제의 질	World Bank, World Governance
	부패통제	World Bank, World Governance
	정부소비지출비중	OECD statistics

2. 세부 영역별 사회갈등 관리지수

OECD국가의 정부 효과성 지수를 보면, 2011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OEC 34개국 중에서 핀란드가 가장 높은 정부 효과성 지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덴마크, 스웨덴,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등의 순이었고, 우리나라는 21번째로 정부 효과성이 높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1〉 OECD국가의 정부 효과성 지수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Korea	0.301	28	0.434	24	0.472	24	0.518	22	0.535	21
Australia	0.750	16	0.750	10	0.721	10	0.752	9	0.721	10
Austria	0.828	9	0.731	15	0.711	11	0.781	6	0.685	12
Belgium	0.754	15	0.738	13	0.674	13	0.672	13	0.705	11
Canada	0.830	8	0.810	5	0.744	7	0.759	8	0.755	8
Chile	0.477	22	0.517	21	0.523	21	0.536	21	0.534	22
Czech	0.266	30	0.411	26	0.379	27	0.389	27	0.397	27
Denmark	0.850	5	0.909	2	0.946	2	0.889	2	0.896	2
Estonia	0.309	27	0.422	25	0.437	25	0.473	23	0.466	23
Finland	0.906	1	0.916	1	0.950	1	0.953	1	0.958	1
France	0.732	17	0.725	16	0.634	17	0.615	18	0.583	19
Germany	0.810	11	0.656	18	0.674	14	0.665	14	0.658	15
Greece	0.277	29	0.307	30	0.263	30	0.234	31	0.215	31
Hungary	0.409	24	0.339	29	0.289	29	0.284	29	0.288	29
Iceland	0.861	4	0.847	3	0.703	12	0.677	12	0.670	13
Ireland	0.709	18	0.736	14	0.569	19	0.568	20	0.616	18
Israel	0.490	21	0.461	22	0.536	20	0.581	19	0.565	20
Italy	0.328	25	0.247	31	0.182	32	0.191	32	0.163	32
Japan	0.508	20	0.572	20	0.621	18	0.647	17	0.624	17
Luxembourg	0.835	7	0.754	9	0.741	8	0.726	11	0.738	9
Mexico	0.100	33	0.036	34	0.072	34	0.063	34	0.132	34
Netherlands	0.881	2	0.827	4	0.741	9	0.734	10	0.760	7
New Zealand	0.694	19	0.740	12	0.785	5	0.768	7	0.799	4
Norway	0.811	10	0.788	8	0.772	6	0.791	5	0.781	6
Poland	0.255	31	0.206	32	0.224	31	0.272	30	0.266	30
Portugal	0.441	23	0.453	23	0.493	23	0.435	25	0.408	26
Slovak	0.242	32	0.399	27	0.368	28	0.354	28	0.356	28
Slovenia	0.310	26	0.392	28	0.495	22	0.440	24	0.421	25
Spain	0.761	14	0.633	19	0.398	26	0.421	26	0.439	24
Sweden	0.837	6	0.802	6	0.869	3	0.852	3	0.835	3
Switzerland	0.874	3	0.802	7	0.834	4	0.801	4	0.793	5
Turkey	0.009	34	0.071	33	0.125	33	0.133	33	0.156	33
UK	0.791	12	0.742	11	0.639	16	0.663	15	0.660	14
USA	0.782	13	0.668	17	0.639	15	0.658	16	0.643	16

자료: World Governance

규제의 질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OECD국가 중에 31위 이었으나, 2011년에는 27위로 다소 상승하였다. 규제의 질 지수 순위를

70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011년 기준하여 보면, 뉴질랜드→스웨덴→덴마크→룩셈부르크→호주 등의 순이었다.

〈표 2-32〉 OECD국가의 규제의 질 지수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Korea	0.195	31	0.319	31	0.329	31	0.382	27	0.412	27
Australia	0.740	10	0.741	10	0.859	4	0.791	7	0.878	5
Austria	0.684	12	0.752	7	0.668	15	0.669	14	0.631	16
Belgium	0.514	19	0.551	21	0.591	19	0.574	20	0.549	19
Canada	0.682	13	0.717	11	0.794	7	0.790	8	0.788	8
Chile	0.640	15	0.647	17	0.677	13	0.664	15	0.674	14
Czech	0.269	29	0.480	25	0.593	18	0.582	19	0.529	20
Denmark	0.826	7	0.782	2	0.902	1	0.896	2	0.910	3
Estonia	0.577	17	0.602	18	0.637	16	0.631	17	0.628	17
Finland	0.853	6	0.791	1	0.868	2	0.897	1	0.866	6
France	0.369	24	0.536	23	0.532	20	0.583	18	0.497	21
Germany	0.673	14	0.684	15	0.701	12	0.729	12	0.718	13
Greece	0.309	27	0.377	28	0.318	32	0.223	32	0.148	32
Hungary	0.452	22	0.477	26	0.460	24	0.426	24	0.432	24
Iceland	0.718	11	0.747	9	0.419	26	0.353	29	0.421	25
Ireland	0.870	5	0.707	13	0.796	6	0.750	11	0.738	12
Israel	0.485	20	0.351	29	0.475	22	0.538	21	0.591	18
Italy	0.315	26	0.395	27	0.387	29	0.358	28	0.261	29
Japan	0.316	25	0.542	22	0.465	23	0.430	23	0.460	22
Luxembourg	0.897	2	0.768	4	0.773	9	0.792	6	0.883	4
Mexico	0.031	34	0.025	33	0.001	34	0.016	34	0.033	34
Netherlands	1.000	1	0.781	3	0.802	5	0.816	4	0.859	7
New Zealand	0.803	9	0.765	5	0.868	3	0.854	3	0.941	1
Norway	0.479	21	0.658	16	0.671	14	0.695	13	0.743	11
Poland	0.271	28	0.314	32	0.391	28	0.409	26	0.381	28
Portugal	0.397	23	0.561	20	0.401	27	0.265	31	0.209	31
Slovak	0.165	32	0.512	24	0.448	25	0.416	25	0.419	26
Slovenia	0.234	30	0.326	30	0.370	30	0.280	30	0.244	30
Spain	0.563	18	0.576	19	0.511	21	0.502	22	0.452	23
Sweden	0.622	16	0.695	14	0.780	8	0.778	9	0.911	2
Switzerland	0.873	4	0.708	12	0.730	11	0.768	10	0.763	10
Turkey	0.071	33	0.022	34	0.036	33	0.042	33	0.081	33
UK	0.875	3	0.752	6	0.737	10	0.815	5	0.773	9
USA	0.817	8	0.749	8	0.628	17	0.651	16	0.659	15

자료: World Governance

OECD 국가의 부패통제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 30위, 2005년 27위, 2009년 26위, 2011년 2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통제 지수가 높은 국가 순으로 보면, 덴마크→뉴질랜드→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룩셈부르크 순이었다.

〈표 2-33〉 OECD국가의 부패통제 지수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Korea	0.229	30	0.343	27	0.307	26	0.280	27	0.300	27
Australia	0.793	12	0.798	8	0.833	8	0.821	10	0.833	8
Austria	0.790	13	0.792	10	0.729	13	0.684	14	0.624	19
Belgium	0.629	17	0.591	19	0.618	16	0.640	17	0.662	15
Canada	0.883	9	0.762	12	0.834	7	0.839	8	0.807	10
Chile	0.656	16	0.627	17	0.593	19	0.637	18	0.650	17
Czech	0.173	32	0.300	29	0.256	29	0.233	28	0.245	29
Denmark	0.977	2	0.908	3	0.978	1	0.943	1	0.956	1
Estonia	0.362	28	0.468	23	0.448	24	0.431	23	0.454	23
Finland	1.000	1	0.922	1	0.907	3	0.867	4	0.879	4
France	0.595	19	0.593	18	0.615	17	0.621	19	0.649	18
Germany	0.775	14	0.761	13	0.716	14	0.720	12	0.711	12
Greece	0.397	25	0.268	31	0.150	33	0.095	33	0.087	33
Hungary	0.374	27	0.350	26	0.260	28	0.231	29	0.253	28
Iceland	0.919	5	0.915	2	0.826	9	0.786	11	0.789	11
Ireland	0.624	18	0.666	15	0.731	12	0.707	13	0.655	16
Israel	0.481	23	0.414	25	0.395	25	0.368	25	0.382	25
Italy	0.385	26	0.278	30	0.189	31	0.146	32	0.174	31
Japan	0.552	21	0.546	21	0.600	18	0.666	15	0.664	14
Luxembourg	0.838	11	0.694	14	0.802	11	0.828	9	0.862	6
Mexico	0.069	33	0.055	34	0.048	34	0.025	34	0.015	34
Netherlands	0.911	6	0.795	9	0.862	5	0.866	5	0.858	7
New Zealand	0.926	4	0.877	4	0.959	2	0.938	2	0.918	2
Norway	0.903	7	0.807	7	0.806	10	0.841	6	0.864	5
Poland	0.328	29	0.221	32	0.269	27	0.284	26	0.307	26
Portugal	0.537	22	0.496	22	0.490	21	0.487	21	0.505	21
Slovak	0.196	31	0.310	28	0.223	30	0.225	30	0.228	30
Slovenia	0.400	24	0.441	24	0.485	22	0.429	24	0.444	24
Spain	0.585	20	0.573	20	0.476	23	0.482	22	0.495	22
Sweden	0.940	3	0.812	6	0.903	4	0.912	3	0.880	3

72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Switzerland	0.875	10	0.814	5	0.838	6	0.839	7	0.824	9
Turkey	0.037	34	0.141	33	0.172	32	0.157	31	0.166	32
UK	0.886	8	0.772	11	0.676	15	0.662	16	0.670	13
USA	0.693	15	0.651	16	0.564	20	0.563	20	0.565	20

자료: World Governance

2000년에 OECD국가의 정부소비지출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이스라엘→덴마크→아이슬란드→프랑스→네덜란드 등의 순이었고,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에 30위이었다. 2011년에 정부소비지출비중이 가장 높은 OECD국가 순으로 살펴보면, 덴마크→네덜란드→스웨덴→아이슬란드→프랑스→핀란드→벨기에 등의 순이었고 우리나라는 29위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4〉 OECD국가의 정부소비지출비중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Korea	0.101	30	0.198	30	0.305	30	0.265	30	0.272	29
Australia	0.389	22	0.376	25	0.382	28	0.406	27	0.399	25
Austria	0.456	15	0.425	18	0.494	25	0.480	23	0.455	21
Belgium	0.570	8	0.641	7	0.744	7	0.720	7	0.731	7
Canada	0.435	19	0.452	16	0.612	12	0.595	12	0.578	11
Chile	0.082	32	0.026	34	0.137	32	0.118	32	0.103	31
Czech	0.520	10	0.578	10	0.584	15	0.572	15	0.543	13
Denmark	0.765	3	0.811	2	1.000	1	0.958	1	0.928	1
Estonia	0.494	12	0.365	26	0.594	14	0.546	18	0.468	19
Finland	0.536	9	0.635	9	0.767	5	0.746	6	0.732	6
France	0.654	5	0.696	5	0.747	6	0.752	5	0.732	5
Germany	0.457	14	0.444	17	0.508	23	0.483	22	0.463	20
Greece	0.451	17	0.411	21	0.534	18	0.423	26	0.375	26
Hungary	0.582	7	0.638	8	0.641	10	0.609	10	0.014	34
Iceland	0.679	4	0.740	4	0.834	4	0.807	4	0.778	4
Ireland	0.238	28	0.319	28	0.532	19	0.468	24	0.425	22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Israel	0.798	2	0.795	3	0.673	8	0.670	8	0.659	8
Italy	0.420	21	0.514	13	0.575	16	0.561	16	0.526	15
Japan	0.352	26	0.423	19	0.502	24	0.492	20	0.529	14
Luxembourg	0.260	27	0.331	27	0.388	27	0.350	28	0.342	27
Mexico	0.058	34	0.035	33	0.103	33	0.092	33	0.090	32
Netherlands	0.606	6	0.693	6	0.942	2	0.933	2	0.906	2
New Zealand	0.368	24	0.405	23	0.520	20	0.508	19	0.512	17
Norway	0.472	13	0.491	14	0.621	11	0.605	11	0.583	10
Poland	0.378	23	0.410	22	0.427	26	0.454	25	0.405	24
Portugal	0.454	16	0.564	11	0.611	13	0.587	13	0.502	18
Slovak	0.514	11	0.422	20	0.509	22	0.487	21	0.412	23
Slovenia	0.441	18	0.455	15	0.519	21	0.546	17	0.523	16
Spain	0.362	25	0.404	24	0.575	17	0.581	14	0.569	12
Sweden	0.801	1	0.819	1	0.894	3	0.842	3	0.837	3
Switzerland	0.059	33	0.083	32	0.063	34	0.052	34	0.054	33
Turkey	0.089	31	0.093	31	0.239	31	0.221	31	0.200	30
UK	0.422	20	0.557	12	0.668	9	0.640	9	0.604	9
USA	0.206	29	0.261	29	0.352	29	0.348	29	0.318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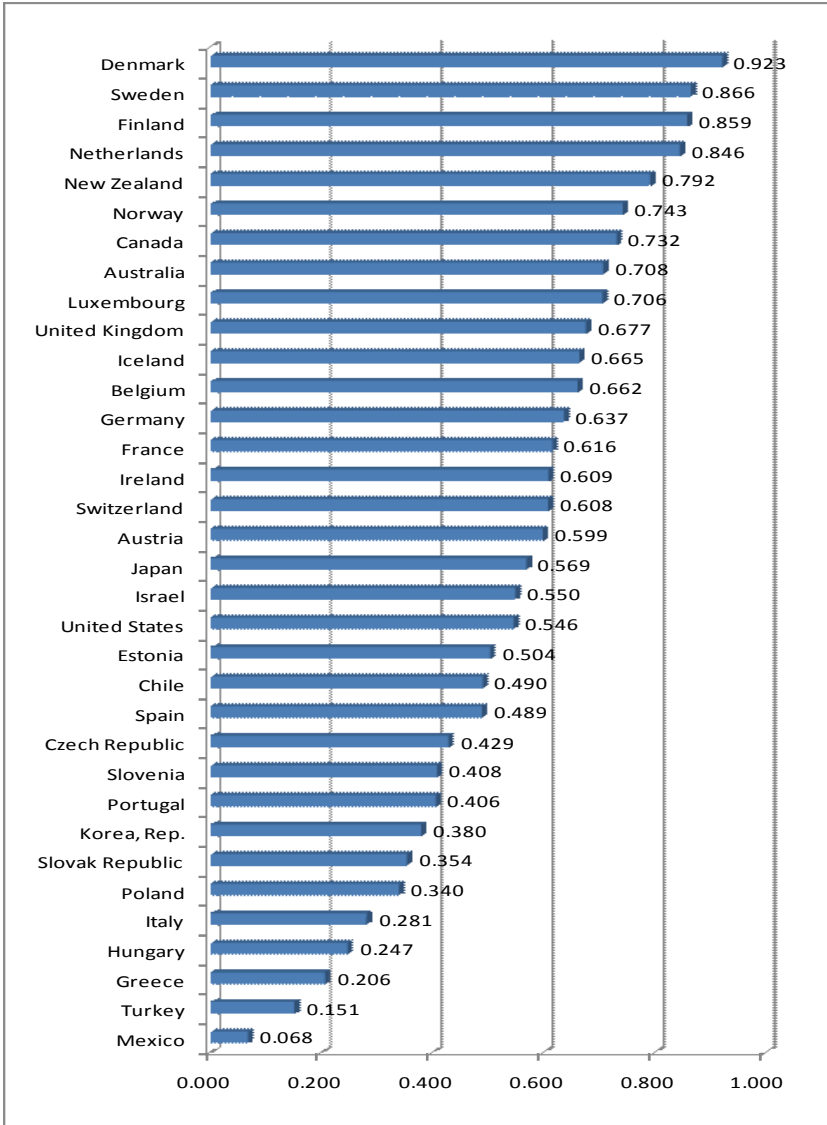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istics, 2014

3. 사회갈등 관리지수 산출 결과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정부 효과성, 규제 의 질, 부패통제, 정부소비지출 비중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에 0.25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선형합산하였다. OECD 국가의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덴마크→스웨덴→핀란드→네덜란드→뉴질랜드 등의 순이었고,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 2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74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그림 2-8] OECD 국가의 갈등관리지수 순위



〈표 2-35〉 OECD국가의 갈등관리지수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표준화 지표	순위
Korea	0.206	32	0.323	31	0.353	29	0.361	29	0.380	27
Australia	0.668	13	0.666	11	0.699	8	0.693	9	0.708	8
Austria	0.690	10	0.675	10	0.651	14	0.653	12	0.599	17
Belgium	0.617	16	0.630	15	0.657	12	0.651	13	0.662	12
Canada	0.707	8	0.685	9	0.746	6	0.746	6	0.732	7
Chile	0.464	21	0.454	24	0.482	24	0.489	23	0.490	22
Czech	0.307	30	0.442	26	0.453	26	0.444	24	0.429	24
Denmark	0.854	1	0.852	1	0.957	1	0.921	1	0.923	1
Estonia	0.435	24	0.464	23	0.529	20	0.520	21	0.504	21
Finland	0.824	3	0.816	2	0.873	2	0.866	2	0.859	3
France	0.587	18	0.637	12	0.632	16	0.643	15	0.616	14
Germany	0.679	11	0.636	14	0.650	15	0.649	14	0.637	13
Greece	0.358	27	0.341	30	0.316	32	0.244	32	0.206	32
Hungary	0.454	23	0.451	25	0.412	27	0.387	27	0.247	31
Iceland	0.794	5	0.812	3	0.695	9	0.656	11	0.665	11
Ireland	0.610	17	0.607	16	0.657	13	0.623	16	0.609	15
Israel	0.564	20	0.505	22	0.520	21	0.539	20	0.550	19
Italy	0.362	26	0.359	29	0.333	30	0.314	31	0.281	30
Japan	0.432	25	0.521	20	0.547	18	0.559	18	0.569	18
Luxembourg	0.707	7	0.637	13	0.676	11	0.674	10	0.706	9
Mexico	0.065	33	0.038	34	0.056	34	0.049	34	0.068	34
Netherlands	0.850	2	0.774	5	0.837	4	0.837	4	0.846	4
New Zealand	0.697	9	0.697	7	0.783	5	0.767	5	0.792	5
Norway	0.666	14	0.686	8	0.718	7	0.733	7	0.743	6
Poland	0.308	29	0.288	32	0.328	31	0.354	30	0.340	29
Portugal	0.457	22	0.518	21	0.499	22	0.444	25	0.406	26
Slovak	0.279	31	0.411	27	0.387	28	0.370	28	0.354	28
Slovenia	0.346	28	0.404	28	0.467	25	0.424	26	0.408	25
Spain	0.568	19	0.546	19	0.490	23	0.496	22	0.489	23
Sweden	0.800	4	0.782	4	0.861	3	0.846	3	0.866	2
Switzerland	0.670	12	0.602	17	0.616	17	0.615	17	0.608	16
Turkey	0.052	34	0.082	33	0.143	33	0.138	33	0.151	33
UK	0.743	6	0.706	6	0.680	10	0.695	8	0.677	10
USA	0.625	15	0.582	18	0.546	19	0.555	19	0.546	20

주: 갈등관리지수 산출을 위해 4개 지표 각각에 가중치=0.25로 동일하게 부여하여 선형합산 하였음.

제6절 OECD 국가의 사회갈등지수 비교 결과

사회갈등지수는 사회갈등요인지수와 사회갈등관리지수의 관계로 산출된다. 갈등관리지수가 높은 국가일 경우에 사회갈등지수가 감소하게 되며, 사회갈등요인지수가 높은 국가일 경우에는 사회갈등지수가 증가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갈등요인지수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첫 번째 사회갈등요인지수는 정치갈등과 경제갈등의 가중치를 각각 0.4로 부여하였고, 민족문화갈등과 인구스트레스의 가중치는 0.1로 각각 부여하여 산출하였다. 또 다른 사회갈등요인지수는 민족문화갈등을 제외하고 인구스트레스 갈등의 가중치를 0.2로 부여한 결과이다.⁴⁾

〈표 2-36〉에서 제시된 OECD 국가의 사회갈등지수(1)은 첫 번째 사회갈등요인지수를 적용하여 사회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2009년에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28개 국가 중에 4위에 있었고, 2010년에는 OECD 25개 국가 중에 5위, 2011년에는 OECD 24개 국가 중에 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을 기준하여 사회갈등지수가 높은 국가 순으로 보면, 터키→칠레→그리스→한국→이스라엘→이탈리아 등의 순이었고, 사회갈등지수가 낮은 국가 순으로 보면, 덴마크→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네덜란드 등의 순이었다.

민족문화갈등지수를 제외한 또 다른 사회갈등요인지수를 적용한 OECD 국가의 사회갈등지수를 살펴보면, 2009년에 우리나라는 3위, 2010년 4위, 2011년 5위 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37 참조).

〈표 2-36〉 OECD 국가의 사회갈등지수(1) 비교

4) 가중치 부여를 위한 설문조사를 고려하였으나,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bias가 발생하는 문제점 등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의 판단하에 영역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그러나, 향후에는 보다 객관화된 가중치 부여를 위한 분석이 필요할 것임.

국가명	2009년(N=28)		2010년(N=25)		2011년(N=24)	
	갈등지수	순위	갈등지수	순위	갈등지수	순위
Korea	0.976	4	0.895	5	0.857	5
Australia	.	.	0.457	18	.	.
Austria	0.340	23	0.316	20	0.375	19
Belgium	0.506	16	0.511	14	.	.
Canada	0.476	18	0.472	17	0.468	16
Chile	1.325	2	.	.	1.246	3
Czech
Denmark	0.137	28	0.164	25	0.162	24
Estonia	0.672	11	0.681	11	0.697	10
Finland	0.163	27	0.167	24	0.162	23
France	0.480	17	0.488	16	0.516	14
Germany	0.354	22	0.357	19	0.368	20
Greece	0.998	3	1.332	3	1.551	2
Hungary	0.692	9
Iceland
Ireland	0.464	19	0.495	15	0.484	15
Israel	0.891	5	0.851	6	0.825	7
Italy	0.869	6	0.933	4	1.060	4
Japan	0.613	14
Luxembourg
Mexico	.	.	13.406	1	.	.
Netherlands	0.229	24	0.242	21	.	.
New Zealand	0.428	21	.	.	0.427	18
Norway	0.224	25	0.225	22	0.215	21
Poland	0.716	8	0.656	12	0.675	12
Portugal	0.630	13	0.722	8	0.777	8
Slovak	0.654	12	0.691	9	0.702	9
Slovenia
Spain	0.796	7	0.823	7	0.839	6
Sweden	0.184	26	0.189	23	0.179	22
Switzerland	0.450	20	.	.	0.446	17
Turkey	3.474	1	3.621	2	3.097	1
UK	0.545	15	0.531	13	0.520	13
USA	0.682	10	0.682	10	0.697	11

주: 사회갈등지수(1)=(사회갈등요인지수1)/(사회갈등관리지수)

사회갈등요인지수1=정치갈등×0.4+경제갈등×0.4+민족문화갈등×0.1+인구스트레스×0.1

2009년에 사회갈등지수가 높은 국가 순으로 보면, 터키→칠레→한국→그리스→이탈리아 등의 순이었고, 2011년에 사회갈등지수가 높은 국가 순으로 보면, 터키→그리스→칠레→이탈리아→한국→포르투갈 등의 순이었다.

78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표 2-37〉 OECD 국가의 사회갈등지수(2) 비교

국가명	2009년(N=28)		2010년(N=25)		2011년(N=24)	
	갈등지수	순위	갈등지수	순위	갈등지수	순위
Korea	1.175	3	1.090	4	1.043	5
Australia	.	.	0.446	16	.	.
Austria	0.367	20	0.343	20	0.405	16
Belgium	0.438	18	0.443	17	.	.
Canada	0.364	21	0.360	19	0.353	20
Chile	1.292	2	.	.	1.212	3
Czech
Denmark	0.148	28	0.176	23	0.174	22
Estonia	0.583	12	0.591	11	0.605	10
Finland	0.163	26	0.166	25	0.162	23
France	0.449	17	0.458	15	0.484	15
Germany	0.364	22	0.367	18	0.378	18
Greece	1.104	4	1.469	3	1.712	2
Hungary	0.689	11
Iceland
Ireland	0.485	16	0.517	14	0.508	14
Israel	0.914	6	0.874	6	0.849	7
Italy	0.918	5	0.986	5	1.119	4
Japan	0.727	8
Luxembourg
Mexico	.	.	12.087	1	.	.
Netherlands	0.273	24	0.285	21	.	.
New Zealand	0.385	19	.	.	0.384	17
Norway	0.229	25	0.230	22	0.220	21
Poland	0.736	7	0.675	9	0.695	9
Portugal	0.725	9	0.828	7	0.893	6
Slovak	0.559	14	0.592	10	0.599	11
Slovenia
Spain	0.699	10	0.726	8	0.742	8
Sweden	0.162	27	0.166	24	0.156	24
Switzerland	0.361	23	.	.	0.357	19
Turkey	3.301	1	3.447	2	2.940	1
UK	0.537	15	0.523	13	0.513	13
USA	0.567	13	0.569	12	0.581	12

주) 사회갈등지수(2)=(사회갈등요인지수2)/(사회갈등관리지수)

사회갈등요인지수2=정치갈등×0.4 + 경제갈등×0.4 +인구스트레스× 0.2



제3장

사회갈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제1절 갈등과 경제성장: 선행연구

제2절 사회갈등지수와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

제3절 패널분석 결과



3

사회갈등이 경제성장에 << 미치는 영향

제1절 갈등과 경제성장: 선행연구

사회갈등은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 갈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를 다룬 국내외 연구들을 발견할 수 있다.

1. 선행연구: 모형을 중심으로

가. Rodrick(1998)

Rodrick(1998)은 경제성장이 단순히 고전적인 성장모형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마다 직면하게 되는 외생적 충격을 흡수하여 소득분배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의해서 경제성장이 결정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예를 들어, 국제경제에서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주요 계층의 소득분배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이 원활히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관리방식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을 경우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Delta growth = - external\ shocks \times \frac{latent\ soical\ conflict}{institutions\ of\ conflict\ management}$$

따라서 외생적 충격은 사회갈등과 사회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식 사이의 균형에 따라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계층간 소득 불균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잠재적 사회갈등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회갈등을 관리하는 제도가 취약하다면, 즉 공정한 방식으로 소득효과를 배분할 수 없다면, 외생적 충격은 경제성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갈등이 적거나 또는 이러한 사회갈등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외생적 충격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나. De Grauwe & Skudelny(1999)

De Grauwe & Skudelny(1999)는 Rodrick(1998)의 분석모형을 적용하여 사회갈등과 갈등관리의 대리지표를 포함한 경제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begin{aligned}
 GDPCGR = & c + \alpha_1 SHOCK + \alpha_4 CONFL + \alpha_3 MGTINST \\
 & + \alpha_4 \ln GDPY1 + \alpha_5 SAV + \alpha_6 GFCF + \alpha_7 POPGR \\
 & + \alpha_8 EDUEXP_i + \alpha_9 EUM + \alpha_{10} TRADE
 \end{aligned}$$

여기서,

$$\begin{aligned}
 CONFL_i = & \begin{cases} GINI_i \\ ELF_i \\ GOVC \\ PMC \end{cases} \\
 MGTINST = & \begin{cases} BUR_i \\ GVTEXP \\ TAX \end{cases}
 \end{aligned}$$

GDPCGR = 일인당 GDP 성장률

SHOCK = 외생적 충격

GDPY1 = 첫 번째 연도의 일인당 GDP

SAV = GDP대비 저축률 비중(%)

GFCF = GDP대비 투자율 비중(%)

POPGR = 인구증가율

EDUEXP = 교육지출

EUM = EU 회원국 더미

TRADE = (수입+수출)/GDP

CONFL = 사회갈등(GINI 지니계수; ELF 언어수; GOVC 정부수; PMC 국무총리 수)

MGTINST = 사회갈등관리제도(BUR 행정효율성지수; GVTEXP GDP대비 정부소비지출 비중; TAX GDP대비 세수 비중)

위의 분석 식은 외부충격, 사회갈등, 갈등관리제도가 장기간에 걸쳐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외부충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갈등변수를 통해 확대되는 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할 수 있으며, 외부충격과 갈등변수의 상호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GDPCGR = c + \beta_1 ACT + \beta_2 \ln GDPY1 + \beta_3 SAV + \alpha \beta_4 GFCF \\ + \beta_5 POPGR + \beta_6 EDUEXP_i + \beta_7 EUM + \beta_8 TRADE$$

여기서,

ACT=외생적 충격, 사회갈등, 갈등관리제도의 interaction term

$$\begin{bmatrix} SHOCK*GINI*BUR & SHOCK*GINI*GVTEXP & SHOCK*GINI*TAX \\ SHOCK*ELF*BUR & SHOCK*ELF*GVTEXP & SHOCK*ELF*TAX \\ SHOCK*GOVC*BUR & SHOCK*GOVC*GVTEXP & SHOCK*GOVC*TAX \\ SHOCK*PMC*BUR & SHOCK*PMC*GVTEXP & SHOCK*PMC*TAX \end{bmatrix}$$

외생적 충격의 정의(Rodrick, 1998)

$$SHOCK_p = \left(\frac{M+X}{GDP} \right)_p \times \sqrt{\frac{1}{10} \sum_{y=1}^{10} (\Delta tot_y - \Delta tot_p)^2} \quad \text{if } (tot_y - tot_p) < 0$$

$$0 \quad \text{otherw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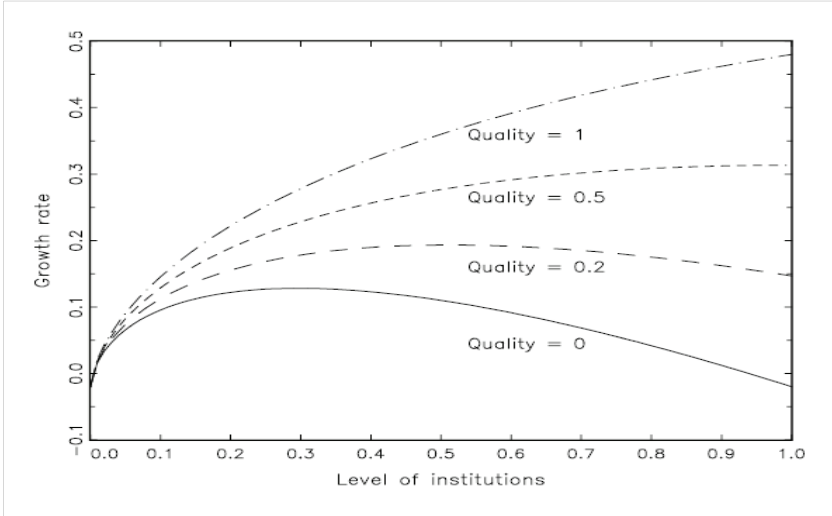
여기서 M=수입, X=수출, y=당해년도, p=10년

다. Schneider & Wagner(2001)

Schneider & Wagner(2001)은 사회갈등은 비용을 유발하며,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가정과 갈등관리와 같은 제도는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렌트추구(rent-seeking)와 같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 번째 가정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갈등관리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일 경우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두 번째 가정에 있어서는 상충되는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갈등관리제도가 성장 잠재력에 기여하지만, 렌트추구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분석할 경우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갈등관리제도를 두 가지 상충되는 영역으로 구분하여 비용을 유발하는 영역(τ)과 비용을 유발하지 않는 영역(μ)의 관계인 $\frac{\mu}{\tau}$ 를 살펴해보았다. $\frac{\mu}{\tau}$ 를 제도의 질(quality)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고, 갈등관리 제도의 질이 1이 될 경우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보고 있다.

[그림 3-1] 갈등관리제도의 질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도식도



자료: Schneider & Wagner(2001)

라. 박준 외(2009)

박준 외(2009)⁵⁾에서는 OECD 27개국을 대상으로 사회갈등지수가 1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회갈등으로 인해 1인당 GDP의 27%를 갈등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회귀분석: 1인당 GDP = 갈등지수+교육+경제규제+대외개방도+
정부지출
- 갈등지수: 소득불균형, 민주주의 지수, 정부효과성지수
- 갈등비용: 1인당 GDP의 27% 비용 발생

5) 박준·김용기·이동원 외,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2009

그러나, 박준 외(2009)에서 제시된 사회갈등지수는 소득불균형, 민주주의 지수, 정부효과성지수로 구성되어, 사회갈등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사회갈등비용 산출 모형이 단순하고, 갈등지수가 타당한지 여부, 그리고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2. 선행연구: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가. 비용회계방법(cost accounting method)

비용회계방법(cost accounting method)은 갈등의 경제적 비용(economic cost of conflict)을 측정하는 가장 단순하면서 직접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갈등으로 인한 직접비용(direct cost)과 간접비용(indirect cost)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직접비용은 실제적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며, 간접비용은 갈등기간 이후(post-conflict period)동안 생산손실가치, 자본손실로 인한 생산손실가치와 같은 비용을 추론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Arunatilake et al.(2001)은 1984-1996년 동안에 걸친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내전(civil war)의 경제적 비용을 추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직접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갈등이 없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경제적 규모와 갈등 발생으로 실제 나타나게 된 데이터를 비교하여 직접비용을 산출하였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스리랑카의 내전으로 인한 직접비용은 1996년 스리랑카 GDP의 61.9%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US dollar로 환산하면, 약 6십억달러에 해당된다. 내전으로 인해 군비지출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GDP의 41.3%), 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LTTE) 군비

지출(GDP의 4.1%), 재난민에 제공된 비용(GDP의 3.0%), 자본자산 및 토지 손실로 인한 비용(GDP의 13.5%)이다. 회귀분석 및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간접비용을 산출하였는데, 갈등으로 인해 외국투자 손실(GDP의 8.61%), 여행객 감소(GDP의 17%), 외국투자감소(GDP의 71.2%),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인적자본 손실(GDP의 2.5%) 등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회계방법(cost accounting method)는 전쟁참여에 대한 경제적 비용 산출에도 적용할 수 있다. Davis et al.(2006)은 미국의 이라크 참전에 대한 현재가치 비용을 산출하였는데, 이 비용에는 미군의 자원, 생명손실, 부상으로 인한 비용, 부상군인의 치료에 소요되는 평생 의료비, 전후 재건 등을 포함하였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연간 비용을 도출한 후, 여러 방식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하였다. 미국의 이라크 참전으로 추정된 비용은 2003년을 기준으로 약 1천억 달러~8천7백억달러(미국 GDP의 0.9~7.8%)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방법을 적용한 또 다른 연구결과인 Bilmes & Stiglitz(2006)은 미국의 이라크 참전으로 인해 지출된 경제적 비용은 약 1조달러(보수적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을 경우)~3조달러(중간의 시나리오를 적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추정하였다.

비용회계방법(cost accounting method)은 비용산출 과정과 방법이 상대적으로 쉽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추계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회계방법은 모든 유형의 비용을 열거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열거된 비용 목록은 상호배타적이어서 비용계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산출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계할 때 실제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수반된다. 통계적 관점에서 본다면, 비용회계방법은 불확실성의 크기

를 제공할 수 있는 표준편차를 산출할 수 없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나. Inference based on cross-section data

갈등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선형회귀분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회귀방정식은 어떤 경제적 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측정된 갈등수준과 통제변수에 대해 회귀분석을 하는 형태로 분석한다. 횡단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경우에, 측정된 갈등 수준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횡단적 차이를 모형화 할 수 있다.

Venieris & Gupta(1986)는 간단한 모형을 통한 예를 제시해 준다. 사회정치적 불안정성(socio-political instability: SPI)은 사망자 수로 구성된 지표이고, 그리고 민주주의 및 체제 유형과 같은 변수가 저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비공산권 국가인 49개 국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분석하였다.

$$\frac{S}{Y} = -0.022SPI + \text{other covariates}$$

여기서, 종속변수는 GDP대비 저축 비중을 말하며, SPI는 사회정치적 불안정성을 나타낸다. 이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SPI가 높을수록 저축율이 낮다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사회정치적 불안정성 변수는 지수(index)이므로, SPI index에서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GDP대비 저축 비중에 대한 양적 효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소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SPI index의 효과를 보기 위해 index의 표준편차를 활용한다면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자는 SPI index에 대한 기술통계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사회정치적 불안정성이 GDP대비

저축 비중에 미치는 양적 영향을 정확히 추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Alesina & Perotti(1996)는 정치적 암살로 표현된 지수인 사회정치적 불안정성 수준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71개국의 1960~1985년동안 자료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회귀모형을 분석하였다.

$$\frac{I}{Y} = -0.50 SPI + other\ covariates$$

여기서, 종속변수는 GDP 대비 투자를 나타낸다. 이들은 이 모형에 투자가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역 상관관계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편의(bias)를 보정하기 위해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 추정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설명변수의 scale이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회귀계수 추정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설명변수가 index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lesina & Perotti(1996)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SPI 지수의 표준편차가 11.95이고, 미국에서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칠레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비교할 때, SPI 지수가 11.95만큼 증가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PI 지수에서 표준편차가 1만큼 증가할 경우, GDP 대비 투자에 있어서 투자는 $0.5 \times 11.95 = 5.975\%$ 감소하게 될 것이다. SPI 지수에서 표준편차 1의 변화가 발생할 때, SPI 지수는 최저값과 최고값에 이르는 지수에서의 변화가 발생하며(이는 단기간에 특정 국가에서 관찰하기 어려움), 갈등비용의 횡단면 추정치는 각 국가들의 평균적인 효과를 제시하기 때문에, 특정 갈등 에피소드가 투자율에 비해 더 적거나 더 많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arro(1991)는 98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성장의 요소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Delta y_i = -0.0075 y_{0i} - 0.0195 REV_i - 0.0333 ASSASS_i + other\ covariates$$

(-6.25) (-3.10) (-2.15)

$$\left(\frac{I}{Y}\right)_i = -0.0098 y_{0i} - 0.055 REV_i - 0.068 ASSASS_i + other\ covariates$$

(-2.04) (-2.62) (-2.52)

여기서, Δy_i 는 1960~1985년 동안에 걸쳐 국가 i 의 평균 일인당 성장률을 나타낸다. $\left(\frac{I}{Y}\right)_i$ 는 GDP대비 민간투자, y_{0i} 는 초기 일인당 GDP, REV는 연간 혁명 또는 쿠데타 수, ASSASS는 연간 인구 백만명당 정치적 암살 수를 말한다. 경제성장이 정치적 불안성에 미치는 reverse causation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Barro(1991)는 도구변수 추정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REV와 ASSASS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나타내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변수의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양적 효과(quantitative effect)를 산출하였다. REV(연간 혁명 또는 쿠데타 수)에서의 표준편차 증가는 일인당 성장률을 0.5%정도 감소시킨다($-0.0195 \times 0.23 = -0.0045$). 그리고 GDP 대비 민간투자는 1.26%정도 감소시킨다($-0.055 \times 0.23 = -0.0126$). 이와 유사하게, ASSASS(연간 인구 백만명당 정치적 암살 수)에서의 표준편차 증가는 일인당 성장률을 0.29% 감소시키며($-0.0333 \times 0.086 = -0.0029$), 0.58%정도 투자비중을 감소시킨다($-0.068 \times 0.086 = -0.0058$).

Abadie & Gardeazabal(2008)은 98개국(2003년)을 대상으로 테러가 순외국인직접투자(net foreign direct investment: N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rac{NFDI\ position}{Y} = -0.0025\ GTI + other\ covariates$$

(-2.0833)

종속변수는 GDP 대비 net FDI를 말하여, 독립변수의 GTI는 국제테러지수(Global Terrorism Index)를 제시한다. 테러리즘 지수의 표준편차는 19.82이었다. 한단위의 표준편차 변화는 테러위험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예, 미국과 이탈리아의 테러위험을 비교하면, 이탈리아가 미국보다 더 위험도가 낮음). 테러위험에 대한 표준편차 증가는 GDP에 대한 net FDI를 감소시키게 되는데, $0.0025 \times 19.82 = 0.0495\%$ 정도 감소시키게 된다.

Koubi(2005)는 78개 국가를 대상으로 전쟁동안과 전후 시기를 구분하여 전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Delta y_{60-89} = -0.266 \times BD_{60-89} + other\ covariates$$

(-1.87)

$$\Delta y_{75-89} = 3.25 \times BD_{60-74} + other\ covariates$$

(1.94)

여기서, Δy_{60-89} 와 Δy_{75-89} 는 1960-1989년과 1975-1989년 동안 실질 연평균 성장률을 말한다. BD_{60-74} 과 BD_{60-89} 는 1960-1974년과 1960-1989년동안의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나타낸다. 전쟁발생 당시에는 전쟁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는 부정적이었으나, 전후 기간동안에 성장률은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저자는 “peace dividend” effect라 하였다. 분석결과,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에서의 표준편차 증가시, $-0.266 \times 10^{-7} \times 230,635 = 0.0061$ 로, 연평균 성장률의 0.61% 감소를 초래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횡단면 분석의 제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몇 개의 공변량이 독립변수와 결합되어 있거나 인과성 문제(reverse causation)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내생성 편의(endogeneity bias)

가 존재할 수 있다. 둘째,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갈등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할 경우 분석단위의 평균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특정 갈등 에피소드가 보다 작거나 또는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에 미치는 영향이 정태적이므로 동태적 효과에 대한 결과를 추정하는 데에 한계가 따른다.

다. Inference using time series

시계열 분석 방법은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갈등관리에 대한 시계열적 변이를 구성하게 된다. 시계열 분석 방법은 크게 interrupted time series approach, transfer function, vector autoregression으로 접근할 수 있다.

1) interrupted time series approach

Interrupted Time Series(ITS) 접근방식은 quasi-experimental time series analysis라고도 하는데, 이 방법은 다양한 정책 또는 중재유형을 분석하도록 고안된 연구기법이라 할 수 있다. 갈등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경우, 분석된 중재(intervention)은 특정 갈등 에피소드이다. ITS 모형을 단순화시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y_t = \beta_0 + \beta_1 \times iLevel_t + \beta_2 \times Trend_t + \beta_3 \times iTrend_t + \epsilon_t$$

여기서, $iLevel_t$ 는 중재(ie, conflict) 기간 동안에 1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다. $iTrend_t$ 는 샘플의 첫 번째 시점을 1로, 두 번째 시점을 2로

하는 가산변수(count variable)이다. ϵ_t 는 zero mean uncorrelated disturbance이다. β_1 계수는 중재 이후에 변화된 수준을 말하며, β_3 계수는 중재 이후 추이(trend) 변화를 나타낸다.

Anderson & Carter(2001)는 국제 교역에 있어 전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ITS 접근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들은 두 개의 중재 모형을 설정하였는데, 전쟁(war)과 평화(peace)를 고려하였다. 14개의 전쟁 에피소드에 대한 ITS 추정값을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1904~1928년 동안, 프랑스와 독일 간의 교역에 대한 연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1914~1918 동안의 전쟁과 전쟁 이후의 평화를 모형화하였다.

$$\ln(\text{France/Germany Trade})_t = \underset{(16.74)}{7.03} + \underset{(0.75)}{0.06} \times \text{Trend}_t - \underset{(1.41)}{1.21} \times \text{War Level}_t \\ - \underset{(5.63)}{1.35} \times \text{War Trend}_t + \underset{(9.19)}{6.80} \times \text{Peace Level}_t + \underset{(5.71)}{1.37} \times \text{Peace Trend}_t + \epsilon_t.$$

1914~1918년의 프랑스-독일간 전쟁은 국제교역 추이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였고, 양 국가의 갈등 이후 기간 동안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교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TS 방법은 중재이후에 시간의 변화에 따라 성과(outcome)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를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ITS는 성과(outcome)에 대한 규모(level)와 추이(trend)의 변화를 모형에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ITS는 중재가 시작되고 끝나는 정확한 순간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중재로서 갈등을 고려할 경우에 특정 갈등이 정확히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에 대해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다. 게다가 인위적으로 구성된 규모(level)와 추이(trend) 중재변수는 갈등의 강도가 갈등기간 동안 일정하다고 가정하므로, 많은 갈등에 프소드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2) 전이함수 접근방법(transfer function approach)

ITS 방식과는 달리, 전이함수 접근방법(transfer function approach)은 인과관계의 수, 정치적 암살 등과 같은 측정된 갈등에 의존한다. 그래서 정확한 갈등기간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간에 따른 갈등의 다양한 크기도 변화시켜 반영할 수 있다. transfer model은 갈등이 장기간에 누적되어 미치는 효과 뿐만 아니라, 갈등발생 당시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분석할 수 있는 구조/framework)을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단순한 형태의 transfer model를 고려해 보자.

$$y_t = ay_{t-1} + bx_t + \epsilon_t \dots (f1)$$

결과 변수 y_t 는 t-1기의 결과변수(y_{t-1})에 영향을 받고, 당시의 갈등(x_t), 오차항에 영향을 받게 된다. 측정된 갈등 1단위가 t기에 증가한다면, 그리고 t+1기에는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때에 outcome 변수의 당시의 응답은 b가 된다. 그리고 t+1기에는 outcome은 ab가 되며, t+2기에 a^2b , t+3기에 a^3b 등이 된다. 파라미터 a가 절대값에서의 1보다 작다는 가정 하에서, outcome 변수의 시계열은 정태적(stationary)이고, 그렇게 때문에 갈등의 단위 증가에 대한 누적 응답을 계산할 수 있다. $b(1+a+a^2+a^3+\dots) = b/(1-a)$. 그러므로 outcome 변수의 응답이 높을수록 b의 값이 더 커지고, 이러한 응답은 좀더 지속될수록 a의 값은 1에 더 가까워진다.

이론적으로 보면, b 값은 네거티브일 것이고 다시 말해서, 갈등이 증가할 경우에 outcome 변수는 감소하게 된다.

일반적인 전이모형(transfer model)은 다음과 같다.

$$y_t = \frac{B(L)}{A(L)}x_t + \frac{C(L)}{D(L)}\varepsilon_t \quad \dots(f2)$$

여기서, y_t 는 일인당 GDP와 같은 outcome 변수이고, x_t 는 갈등의 강도, $A(L)$, $C(L)$, $D(L)$ 은 $A(L) = 1 - a_1L - a_2L^2 - \dots - a_pL^p$ 에서 나온 다항식이다. L 은 lag의 연산자이다. $B(L) = b_0 - b_1L - b_2L^2 - \dots - b_qL^q$ 이고 ε_t 은 zero-mean white noise이다. $A(L)=D(L)=1-aL$, $B(L)=b$, $C(L)=1$ 이라 가정한다면, f(2)식은 f(1)로 도출될 수 있다.

전이함수 방법은 갈등비용의 동태적 영역을 간단히 설명해 준다. Enders et al.(1992)는 그리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의 1968-1988년 동안의 자료로 transfer function analysis를 활용하여, 국가간 테러가 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outcome 변수 y_t 는 분기별로 모든 다른 국가의 관광시장 점유율에 대한 해당국의 관광 시장 (로그) 점유율로 구성하였다. Enders et al.(1992)는 그리스의 경우에 대해 전이함수 형태로 추정하였다.

$$y_t = \underset{(7.39)}{0.7085}y_{t-1} - \underset{(-2.23)}{0.0064}x_{t-3} + \varepsilon_t - \underset{(3.19)}{0.4076}\varepsilon_{t-4}$$

이들 결과에 의하면, 테러 발생 수(x_t)에서의 한 단위 증가는 그리스 관광시장 점유율을 3사분기 이후에 0.0064만큼 감소시킨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반응(response)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저자는 관광객이 자신의 관광계획을 짜는데 시간이 걸리며, 항공기나 크루즈의 예약이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고는 변경될 수 없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에서의 추가적인 테러 발생은 그리스의 관광시장 점유율을 3사분기 이후에 (로그)0.0064($e^{0.0064} = 1.0064\%$)만큼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4사분기 이후인 1년 후에는 $0.0064 \times 0.7085 = 0.0045$ ($e^{0.0045} = 1.0045\%$)만큼 감소시키게 된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접근방식으로 Enders & Sandler(1996)이 있는데, 테러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테러가 발생할 경우에 재정적 위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테러는 외국 자본이 유입을 저해하고 국내자본이 고갈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스페인의 순외국인투자와 1975-1991년 동안의 다국가간 테러 발생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전이함수를 추정하였다.

$$y_t = 23.663 - 0.593 y_{t-1} - 23.817 x_{t-11} + \varepsilon_t - 0.459 \varepsilon_{t-6}$$

(1.713) (-5.989) (-2.900) (-3.763)

순외국인투자의 첫 번째 lag 계수가 음수이므로, 순외국인투자의 테러 발생에 대한 반응은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진동하게 된다. 발생이후 12쿼터에서의 순외국인투자는 $23.8 \times 0.593 = 14.113$ million dollar만큼 증가하게 된다.

전이함수 방법은 전체적인 수준(country or sector)에서 갈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별적 사례 분석(individual case analysis)을 수행할 경우 매우 타당하다. 그리고 현재까지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지 않지만, 갈등의 미시경제적 결과를 분석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는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TS 방법과 비교해 볼 때, 전이함수는 결과(outcome) 변수에 대한 시계열적 상황을 더 잘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전 시점(lag)의 outcome과 갈등을 고려하고 flexible disturbance dynamics

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이함수 모형은 갈등을 제외하고 outcome 변수의 다른 결정요인들과 결합해서 분석하지 못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갈등이 외생적이라는 강한 가정을 하고 있어 결과에서 갈등으로 가는 역인과관계(reverse causation)이 존재할 경우에 일관되지 못한 추정치가 도출될 수 있다.

3)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ons: VAR)

결과 변수와 갈등간의 동태적 상호관계를 모형화하는 또 다른 방식은 벡터자기회귀모형(VAR)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 모형에서는 outcome 변수와 갈등, 그리고 여타의 변수들이 동시에 모든 변수의 lag 값에 의해 결정된다. 간단한 VAR 모형을 보기 위해, 결과(outcome) y_t 에 대한 두 개 변수의 one-lag model을 보면 다음과 같다.

$$y_t = a_{11}y_{t-1} + a_{12}x_{t-1} + \epsilon_{yt}$$

$$x_t = a_{21}y_{t-1} + a_{22}x_{t-1} + \epsilon_{xt}$$

여기서 a_{ij} 는 파라미터이며, ϵ_{yt} 와 ϵ_{xt} 는 zero mean random disturbance이고 서로 동시에 상호연관될 수 있다. 오른쪽에 있는 변수가 모든 방정식에 동일할 경우 그리고 VAR파라미터에 어떤 제약도 없다면, 추정치는 각 방정식의 단순 OLS가 된다. VAR는 첫 번째 방정식을 통해 갈등이 outcome에 주는 인과적 관계를 도출하고, 또한 두 번째 방정식을 통해 경제적 성과가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을 고려한다.

Enders & Sandler(1991)은 스페인의 관광방문객 수(n_t)와 다국가 테

러 발생 수(n_t)에 대한 VAR 모형을 추정하였다.

$$n_t = \alpha_1 + A_{11}(L)n_{t-1} + A_{12}(L)i_{t-1} + \varepsilon_{nt}$$

$$i_t = \alpha_2 + A_{21}(L)n_{t-1} + A_{22}(L)i_{t-1} + \varepsilon_{it}$$

여기서, $A_{ij}(L)$ 은 lag 다항식을 말함.

1970~1988년의 월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12-lag VAR모형을 분석한 결과, 사건 발생에 따라 관광객 수의 누적된 반응은 140,847명이 스페인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ckstein & Tsiddon(2004)은 1980-2003년 동안의 이스라엘 경제에 대한 VAR모형을 구축하였는데, 여기에는 거시경제의 규모를 나타내는 일인당 GDP, 투자, 수출, 비내구재(예, 식품, 연료 등) 소비에 대한 항목종속변수로, 독립변수로는 테러 지수(terrorism index)로 구성된 4개의 방정식을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내구재 소비 방정식을 제외하고 테러 모든 계수가 유의하게 테러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VAR모형은 추정이 비교적 쉽고, 방법론도 매우 일반화되어 있으며,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s: IRF)의 계산 결과도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Granger 인과관계 검정과 단기 예측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VAR 방법은 single subject analysis에 국한되어 적용할 수 있다. 가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많을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패널로 구성된 데이터 셋이 있을 경우에는 패널 분석이 좀 더 모형의 신뢰성이 높을 수 있다.

라. Panel data methods

Barro & Lee(1994)의 연구에 의하면 10년동안 추가적인 쿠데타로 인해 10년동안의 평균성장률이 1.71% 감소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Easterly & Levine(1997)은 10년간 추가적인 정치적 암살은 10년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을 약 2.4% 감소시키게 됨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Collier(1999)는 내전(civil war)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연평균 20.4% 감소를 가져온다고 하였고, Blomberg et al.(2004)는 갈등유형을 1) 테러 2) 내부 갈등 3) 외부 갈등을 구분하여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Blomberg et al.(2004)에서는 테러는 내부갈등 또는 외부갈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보다 적으며, 내부갈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보다 외부갈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분석방법의 한계점

지금까지 갈등의 경제적 비용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살펴본 문헌들은 갈등이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것으로 보여 주고 있다. 갈등은 직접 산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리변수(proxy measurements)를 활용한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기 때문에, 갈등의 효과 또는 결과에 대한 회귀분석 추정치는 측정오류(errors of measurement)가 잠재변수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다소 하향 편향(downward bias)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행연구 결과,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이슈가 제기된다. 첫째, 기존 문헌

에서 제공하고 있는 추정값의 범위가 매우 크다. 이는 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의 이질성(heterogeneity)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갈등의 모든 유형들이 동일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치적 불안정성, 테러, 내전 등과 같은 갈등은 매우 다양하게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다양한 분석 자료 및 샘플(단위 및 기간)과 분석방법에서 오는 차이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몇 개의 개별 연구결과가 통합될 필요가 있으며, 예를 들어 메타 분석(meta-analysis)을 통하여 기존의 연구결과를 다시 통합한 분석결과를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고찰한 문헌들의 실증적 근거는 주로 갈등과 경제적 규모와의 인과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이러한 양적인 결과(effect)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다. 인과적 관계가 설정이 된 이후에, 양적인 효과 결과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단계로 진입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갈등의 규모(scale of the conflict measurement)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제2절 사회갈등지수와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

사회갈등지수=사회갈등요인지수/사회갈등관리지수로 표현하여 갈등지수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009년~2011년 동안 OECD 국가의 사회갈등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갈등요인과 사회갈등관리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회갈등요인과 사회갈등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사회갈등관리

와 사회갈등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사회갈등관리는 사회갈등을 감소시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표 3-1〉 갈등요인과 갈등관리와의 관계

			갈등관리	갈등요인(1)	갈등요인(2)
2009년 (n=28)	갈등관리	상관계수	1.0000	-0.5286	-0.5787
		p-value		0.0038	0.0013
2010년 (n=25)	갈등관리	상관계수	1.0000	-0.6946	-0.7437
		p-value		0.0001	<.0001
2011년 (n=24)	갈등관리	상관계수	1.0000	-0.4706	-0.5514
		p-value		0.0203	0.0052
'09~'11년*	갈등관리	상관계수	1.0000	-0.5715	-0.6256
		p-value		<.0001	<.0001

주: * 국가 및 3개년도(n=77)를 pooling 한 결과임.

사회갈등지수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산출한 사회갈등지수와 일인당 GDP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갈등지수와 일인당 GDP는 (-)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2〉 사회갈등지수와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

			갈등관리	갈등요인1	갈등요인2	사회갈등 지수1	사회갈등 지수2
2009년 (n=28)	일인당 GDP	상관계수	0.603	-0.482	-0.513	-0.591	-0.602
		(p-value)	0.000	0.009	0.005	0.001	0.001
2010년 (n=25)	일인당 GDP	상관계수	0.614	-0.532	-0.558	-0.525	-0.537
		(p-value)	0.000	0.006	0.004	0.007	0.006
2011년 (n=24)	일인당 GDP	상관계수	0.642	-0.494	-0.546	-0.625	-0.634
		(p-value)	<.0001	0.014	0.006	0.001	0.001
'09~'11년*	일인당 GDP	상관계수	0.618	-0.502	-0.537	-0.435	-0.453
		(p-value)	<.0001	<.0001	<.0001	<.0001	<.0001

주: * (PPP, Int'l\$)

제3절 패널분석 결과

1. Pooled OLS 결과

pooled OLS를 수행한 결과, 사회갈등지수를 10%감소시킬 경우에 일인당 GDP는 1%감소하는 것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출과 수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며, 여성노동참가율의 경우에는 10% 유의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 3-3〉 Pooled OLS 결과(2009~2011년)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상수	8.112	1.375	5.900	<.0001
로그(사회갈등지수)	-0.100	0.134	-0.750	0.467
자본	0.011	0.018	0.620	0.544
여성노동참가율	0.013	0.007	1.830	0.090
실업률	-0.012	0.010	-1.230	0.241
정부지출	0.026	0.017	1.550	0.146
수출	0.047	0.016	2.880	0.013
수입	-0.056	0.017	-3.200	0.007

주: 종속변수 = 로그_일인당 GDP

2. 고정효과(Fixed Effect) 분석 결과

회귀분석에 포함된 모든 변수를 로그화하여, 사회갈등지수의 β (계수) 값이 1% 변화할 경우 1인당 GDP의 % 증감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OECD 국가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도 패널데이터를 구성하고, 각 국가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고정효과(fixed effect) 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회갈등지수(1)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0.1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갈등지수가 10% 감소된다면

일인당 GDP가 1.62%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일인당 GDP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사회갈등지수와 함께 자본, 여성노동참가율, 실업률 등이 있었다.

〈표 4-4〉 Fixed Effect 분석결과(사회갈등지수1 적용)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상수	10.071	0.913	11.030	<.0001
사회갈등지수1	-0.162	0.053	-3.040	0.003
자본	-0.418	0.148	-2.830	0.006
여성노동참가율	0.595	0.192	3.100	0.003
실업률	-0.233	0.064	-3.640	0.001
수출	-0.107	0.195	-0.550	0.585
수입	-0.072	0.227	-0.320	0.751
2009년	-0.094	0.056	-1.670	0.099
2010년	-0.001	0.056	-0.010	0.991

주: 종속변수 = 로그(일인당 GDP)

사회갈등지수2를 적용하여 고정효과 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회갈등지수가 일인당 GDP를 감소시키게 되는데 즉, 사회갈등지수가 10% 감소한다면, 일인당 GDP는 1.79%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전체적인 분석 결과는 사회갈등지수1을 적용한 경우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표 3-5〉 Fixed Effect 분석결과(사회갈등지수2 적용)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상수	10.423	0.937	11.130	<.0001
사회갈등지수2	-0.179	0.053	-3.360	0.001
자본	-0.440	0.144	-3.060	0.003
여성노동참가율	0.526	0.196	2.680	0.009
실업률	-0.257	0.062	-4.130	0.000
수출	-0.154	0.194	-0.790	0.432
수입	-0.015	0.226	-0.070	0.946
2009년	-0.094	0.055	-1.700	0.093
2010년	0.001	0.055	0.020	0.988

주: 종속변수 = 로그(일인당 GDP)

사회갈등지수를 분해하여 사회갈등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갈등요인 지수와 사회갈등관리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사회갈등요인지수1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회갈등관리지수는 경제성장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갈등관리지수가 10% 증가할 경우에 일인당 GDP는 2.47%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사회갈등요인지수2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갈등요인지수 2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사회갈등관리지수를 10% 증가시킬 경우, 일인당 GDP는 2.4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갈등관리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3-6〉 Fixed Effect 분석결과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상수	10.542	0.976	10.800	<.0001
사회갈등요인지수1	-0.086	0.079	-1.090	0.281
사회갈등관리지수	0.247	0.084	2.950	0.004
자본	-0.405	0.147	-2.750	0.008
여성노동참가율	0.498	0.205	2.430	0.018
실업률	-0.246	0.065	-3.810	0.000
수출	-0.148	0.196	-0.750	0.453
수입	-0.012	0.230	-0.050	0.958
2009년	-0.096	0.056	-1.730	0.089
2010년	0.002	0.056	0.040	0.965

주: 종속변수 = 로그(일인당 GDP)

〈표 3-7〉 Fixed Effect 분석결과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상수	10.698	0.978	10.930	<.0001
사회갈등요인지수2	-0.120	0.080	-1.500	0.140
사회갈등관리지수	0.241	0.083	2.900	0.005
자본	-0.421	0.145	-2.890	0.005
여성노동참가율	0.464	0.206	2.260	0.027
실업률	-0.258	0.062	-4.130	0.000
수출	-0.172	0.195	-0.880	0.382
수입	0.014	0.228	0.060	0.952
2009년	-0.096	0.055	-1.740	0.087
2010년	0.003	0.055	0.050	0.961

주: 종속변수 = 로그(일인당 GDP)

3. 랜덤효과(Random Effect) 분석 결과

국가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완화하여 랜덤효과(Random Effect)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갈등지수1은 일인당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사회갈등지수1이 10%감소할 경우 일인당 GDP는 1.43%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표 3-8〉 Random Effect 분석결과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상수	8.356	0.501	16.680	<.0001
사회갈등지수1	-0.143	0.032	-4.420	<.0001
자본	0.135	0.038	3.540	0.001
여성노동참가율	0.284	0.115	2.470	0.018
실업률	-0.055	0.029	-1.920	0.062
수출	0.062	0.082	0.770	0.449
수입	0.023	0.088	0.260	0.794
2009년	-0.018	0.008	-2.440	0.019
2010년	-0.005	0.005	-0.940	0.353

주: 종속변수 = 로그(일인당 GDP)

또한, 사회갈등지수2가 10% 감소할 경우, 일인당 GDP는 1.46%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9〉 Random Effect 분석결과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상수	8.368	0.498	16.790	<.0001
사회갈등지수2	-0.146	0.032	-4.490	<.0001
자본	0.133	0.038	3.530	0.001
여성노동참가율	0.279	0.114	2.440	0.019
실업률	-0.055	0.028	-1.940	0.060
수출	0.062	0.081	0.760	0.449
수입	0.026	0.087	0.300	0.768
2009년	-0.018	0.008	-2.440	0.019
2010년	-0.005	0.005	-0.920	0.361

주: 종속변수 = 로그(일인당 GDP)

사회갈등지수를 사회갈등요인지수와 사회갈등관리지수로 분해해서 분석한 결과, 갈등요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갈등관리는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일인당 GDP는 1.75% 증가하게 됨을 보여준다.

사회갈등요인지수2와 사회갈등관리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이 모형에서도 갈등요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갈등관리는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갈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분석을 통해 살펴 본 결과, 갈등지수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미친다는 결과는 일관되지 않은 반면, 갈등관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었다. 즉, 갈등을 치유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10〉 Random Effect 분석결과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상수	8.280	0.505	16.410	<.0001
사회갈등요인지수1	-0.068	0.072	-0.940	0.355
사회갈등관리지수	0.175	0.042	4.150	0.000
자본	0.139	0.038	3.620	0.001
여성노동참가율	0.329	0.120	2.730	0.010
실업률	-0.056	0.029	-1.960	0.058
수출	0.093	0.086	1.090	0.284
수입	-0.009	0.092	-0.100	0.923
2009년	-0.020	0.008	-2.590	0.014
2010년	-0.006	0.005	-1.180	0.245

주: 종속변수 = 로그(일인당 GDP)

〈표 3-11〉 Random Effect 분석결과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상수	8.294	0.504	16.460	<.0001
사회갈등요인지수2	-0.078	0.074	-1.050	0.301
사회갈등관리지수	0.174	0.042	4.140	0.000
자본	0.138	0.038	3.590	0.001
여성노동참가율	0.321	0.121	2.660	0.011
실업률	-0.056	0.029	-1.960	0.058
수출	0.090	0.086	1.050	0.300
수입	-0.004	0.092	-0.050	0.962
2009년	-0.020	0.008	-2.570	0.014
2010년	-0.006	0.005	-1.150	0.259

주: 종속변수 = 로그(일인당 GDP)





제4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치영역, 경제영역, 사회문화영역으로 구성된 갈등요인을 분석하여 OECD 국가의 갈등요인지수를 산출하여 국제비교를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2006년에는 비교대상 17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갈등요인지수는 민족문화갈등지수를 포함하면 6번째로 높은 순위의 국가였으며, 민족문화갈등요인을 제외한 경우 두 번째로 높은 순위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위치는 해가 지나면서 다소나마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2011년의 갈등요인지수는 민족갈등지수를 포함한 경우 24개국 중 10위, 민족문화갈등지수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4위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갈등요인지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욱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갈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정부 효과성, 규제질, 부패통제, 정부소비지출을 포함한 갈등관리지수 순위는 34개 OECD 국가 중 2000년 32위의 매우 낮은 순위에서 31위(2005년) → 29위(2009년) → 29위(2010년) → 27위(2011년)로 조금씩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갈등요인지수와 사회갈등관리지수를 결합한 사회갈등지수를 산출하여 OECD 국가간 비교를 수행한 결과에서는 우리나라가 비교대상 25개국 중 5위(2011년 기준)로 하위 20%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갈등지수 순위가 열악한 국가들은 터키, 칠레, 그리스, 이탈리아 등이었고, 반면 갈등지수가 낮은 국가들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의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하였다.

사회갈등지수를 경제성장모형에 포함하여 갈등요인과 갈등관리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 하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사회갈등지수와 일인당 GDP와의 상관관계에서는 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09~2011년 기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고정효과(fixed effects)와 랜덤효과(random effect)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고정효과 분석의 경우, 사회갈등과 경제성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됨을 알 수 있었다. 갈등지수를 갈등요인과 갈등관리로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갈등관리가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갈등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랜덤효과 분석에서도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다. 패널분석결과, 갈등지수는 경제성장과 연관관계가 있는데, 갈등요인보다는 갈등관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즉, 갈등요인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보다 갈등관리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 박준·김용기·이동원 외,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2009.
- Okediji, *Social fragmetaion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developing countries*. 4th Minnesota Inter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Conference, May 2007.
- Abadie A., Gardeazabal J., Terrorism and the World Economy, *European Economic Review*, 2008, vol. 52, n.1, pp. 1-27.
- Anderson C, Carter J. The impact of war on trade: and Interrupted times-series study, *Journal of Peace Reserch*, 2001; 38(4); 445~457.
- Andrew Sharpe, Brendon Andrews An assessment of weighting methodologies for composite indicators: The case of the index of economic well-being. Centre for the study of living standards(CSLs) Research Report No.2012-10, 2012,
- Arunatilake N., Jayasuriya S., Kelegama S., *The Economic Cost of the War in Sri Lanka*, World Development, 2001; 29(9); 1483~1500.
- Barro, Robert and Jong-Wha Lee. *Sources of economic Growth*,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1994.
- Barro, Robert J. Economic Growth in a Cross-section of Countri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91; 106: 407~443.
- Blomberg S. B., Rose A. Z., Editor's Introduction to the Economic Impacts of the September 11, 2001, Terrorist Attacks, *Peace Economics*, 2009.
- CMP, 'Conflict Management Toolkit', Conflict Management Program of the Paul H.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2011.
- Democracy Barometer, 2014.

- Desmet, Ortuño-Ortín, Wacziarg Culture, Ethnicity and Diversity 2014.
- Early warning indicators for preventive policy: a new approach in early warning research,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Working paper 2003.
- Eckstein Z., Tsiddon D.,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Terror: Theory and the Case of Israel,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004; 51(5): 971~1002.
- Enders W., Sandler T., Parise G. F., An Econometric Analysis of the Impact of Terrorism on Tourism, *Kyklos*, 1992; 45(4): 531~554.
- Fearon J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by country. *Journal of Economic Growth* 2003; 8(2): 195~222
- Fearon J., Laitin D, Ethnicity, insurgency and civil wa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2003; 97: 75~90
- Fearon J., Laitin D, Explaining interethnic cooper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996; 90(4): 715~735 .
- Grauwe, Paul De and Frauke Skudelny . *Social Conflict and Growth in Euroland*, University of Leuven and CEPR. 1999.
- Hagmeier-Gaverus and Weissmann *Early warning indicators for preventive policy: a new approach in early warning research*,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Working paper 2003.
- Koubi V, War and Economic Performance, *Journal of Peace Research*, 2005; vol. 42(1): 67-82.
- Marshall M et al. *Polity IV Project*. Center for Systemic Peace. 2013.
- Rodrik D, 'Where Did All the Growth Go? External Shocks, Social Conflict and Growth Collapses', *CEPR Discussion Paper*, 1789 January, 1998
- Rodrik, D. Where did all the growth go? External shocks, social

- conflict, and growth collapses, *Journal of Economic Growth*, 1999; 4: 385~412.
- Rodrik, D. Why Do More Open Economies Have Bigger Governme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98;106: 997~1032.
- Samarasinghe et al., *Conflict Vulnerability Analysis*. Tulan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2001
- Sambanis N., What is civil war? Conceptual and empirical complexities of and operational defini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004; 48(6) 814~58.
- Sambanis N., What is civil war? Conceptual and empirical complexities of and operational defini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004; 48(6) 814~58.
- Schneider, Friedrich and Alexander Wagner. *Shocks, Corporatism, and Economic Growth in the European Union - extended version*, Linz / Cambridge, MA: University of Linz and Harvard University. 2001.
- Schneider, Wagner Institutions of Conflict Management and Economic Growth in the European Union, 2011.
- Tsakalotos, *Social Conflict and Macroeconomics: what determines the effectiveness of aggregate demand policie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Working paper series No.68.



부록 <<

〈부표 1〉 OECD국가의 공공서비스의 정치적 비독립성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Korea	2.24	2	4.16	19	3.84	16	3.84	16	3.84	16
Australia	5.32	28	5.63	30	5.75	32	5.75	32	5.75	32
Austria	4.17	19	4.45	21	4.64	25	4.64	25	4.64	25
Belgium	3.01	10	2.52	5	2.71	10	2.71	10	2.71	10
Canada	5.84	32	4.92	28	5.70	31	5.70	31	5.70	31
Chile	3.40	13	4.84	26	4.22	19	4.22	19	4.22	19
Czech	2.52	6	2.96	8	2.42	6	2.42	6	2.42	6
Denmark	4.67	23	6.12	34	6.18	34	6.18	34	6.18	34
Estonia	3.59	15	4.46	22	4.53	23	4.53	23	4.53	23
Finland	6.49	34	6.03	33	4.37	21	4.37	22	4.37	22
France	3.27	12	3.30	13	2.96	12	2.96	12	2.96	12
Germany	5.08	26	4.78	25	4.93	27	4.93	27	4.93	27
Greece	2.33	3	2.52	5	1.94	2	1.94	2	1.94	2
Hungary	3.08	11	3.05	10	2.00	3	2.00	3	2.00	3
Iceland	4.99	25	4.92	27	4.44	22	4.34	21	4.34	21
Ireland	5.70	29	4.09	18	5.12	28	5.12	28	5.12	28
Israel	4.19	20	2.97	9	3.07	13	3.07	13	3.07	13
Italy	2.19	1	2.10	2	1.72	1	1.72	1	1.72	1
Japan	3.80	17	3.65	16	4.13	18	4.13	18	4.13	18
Luxembourg	5.12	27	3.88	17	4.62	24	4.62	24	4.62	24
Mexico	2.63	8	3.37	15	2.65	8	2.65	8	2.65	8
Netherlands	6.10	33	5.80	31	5.81	33	5.81	33	5.81	33
New Zealand	5.82	31	5.89	32	5.33	29	5.33	29	5.33	29
Norway	4.47	21	4.66	24	3.96	17	3.96	17	3.96	17
Poland	3.60	16	1.65	1	2.52	7	2.52	7	2.52	7
Portugal	2.52	6	2.29	3	2.35	5	2.35	5	2.35	5
Slovak	2.92	9	4.55	23	2.30	4	2.30	4	2.30	4
Slovenia	2.38	4	2.85	7	3.22	15	3.22	15	3.22	15
Spain	3.86	18	3.29	12	3.17	14	3.17	14	3.17	14
Sweden	3.45	14	3.24	11	4.83	26	4.83	26	4.83	26
Switzerland	5.71	30	5.36	29	5.45	30	5.45	30	5.45	30
Turkey	2.60	7	3.35	14	2.92	11	2.92	11	2.92	11
UK	4.68	24	2.55	6	2.71	10	2.71	10	2.71	10
USA	4.57	22	4.20	20	4.30	20	4.30	20	4.30	20
OECD(평균)	4.01		3.95		3.85		3.84		3.84	

주: (-)공공서비스의 정치적 비독립성(공공서비스가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수준)
 자료: Democracy Barometer, 2014

<부표 2> OECD국가의 정부 비효과적 실행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Korea	3.49	4	3.98	13	3.15	8	5.01	23	5.03	20
Australia	6.54	27	7.00	32	5.49	27	4.40	20	4.59	19
Austria	5.60	20	5.92	26	4.57	23	5.14	26	5.18	21
Belgium	5.01	13	3.77	9	3.49	13	3.00	10	4.23	15
Canada	6.61	28	4.92	18	4.42	21	5.12	25	6.15	25
Chile	5.27	15	6.41	30	4.23	19	5.47	28	6.78	33
Czech	2.87	1	3.68	8	3.79	16	3.70	16	4.05	13
Denmark	6.85	32	7.85	34	7.43	34	6.03	32	6.52	30
Estonia	5.00	12	5.29	20	3.40	12	5.64	29	6.48	28
Finland	8.05	34	7.05	33	6.00	30	6.15	33	6.77	32
France	5.82	23	4.80	17	3.93	17	3.69	15	3.60	10
Germany	4.92	11	3.61	7	4.67	24	4.49	21	5.41	22
Greece	4.69	10	3.29	3	1.59	1	2.28	5	2.41	5
Hungary	5.50	16	4.45	15	1.90	2	1.95	3	3.26	8
Iceland	6.80	31	6.33	27	6.67	33	2.28	6	2.36	4
Ireland	6.53	26	5.37	21	4.10	18	3.77	17	4.12	14
Israel	5.22	14	4.36	14	3.52	14	4.09	19	4.58	18
Italy	3.04	2	3.33	4	2.86	7	2.85	9	2.15	2
Japan	4.28	6	3.78	10	2.62	4	3.26	11	2.24	3
Luxembourg	7.08	33	6.38	29	6.00	30	5.94	30	6.35	27
Mexico	4.69	9	3.39	5	2.83	6	1.58	1	2.90	7
Netherlands	6.66	30	4.55	16	4.99	25	3.91	18	5.46	23
New Zealand	5.72	22	5.82	25	5.90	28	5.08	24	6.49	29
Norway	5.53	17	5.60	23	5.41	26	5.25	27	6.29	26
Poland	3.80	5	2.12	1	3.33	11	3.54	14	3.89	12
Portugal	4.41	8	3.02	2	4.48	22	3.51	13	3.38	9
Slovak	4.31	7	6.35	28	3.29	10	2.78	8	3.64	11
Slovenia	3.35	3	3.58	6	3.63	15	2.17	4	1.90	1
Spain	6.43	25	3.93	11	2.14	3	1.88	2	2.56	6
Sweden	5.53	18	5.05	19	6.39	32	6.21	34	7.48	34
Switzerland	6.63	29	6.44	31	6.11	31	6.02	31	6.64	31
Turkey	5.56	19	5.78	24	4.23	20	4.71	22	6.12	24
UK	5.70	21	3.98	12	2.82	5	2.51	7	4.55	17
USA	5.94	24	5.44	22	3.24	9	3.41	12	4.42	16
OECD(평균)	5.39		4.90		4.19		4.02		4.65	

주: (-) 정부의사결정에서의 비효과적인 실행 평가
 자료: Democracy Barometer, 2014

〈부표 3〉 OECD국가의 정보접근제한 수준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Korea	2	20	2	16	2	15	2	15	2	15
Australia	2	20	2	16	2	15	2	15	2	15
Austria	2	20	2	16	2	15	2	15	2	15
Belgium	2	20	2	16	2	15	2	15	2	15
Canada	2	20	2	16	2	15	2	15	2	15
Chile	0	6	0	3	2	15	2	15	2	15
Czech	1	12	1	6	1	3	1	3	1	3
Denmark	3	31	3	30	3	30	3	30	3	30
Estonia	3	31	3	30	3	30	3	30	3	30
Finland	3	31	3	30	3	30	3	30	3	30
France	2	20	2	16	2	15	2	15	2	15
Germany	0	6	0	3	2	15	2	15	2	15
Greece	2	20	2	16	2	15	2	15	2	15
Hungary	2	20	2	16	2	15	2	15	2	15
Iceland	3	31	3	30	3	30	3	30	3	30
Ireland	1	12	1	6	1	3	1	3	1	3
Israel	2	20	2	16	2	15	2	15	2	15
Italy	2	20	2	16	2	15	2	15	2	15
Japan	0	6	1	6	1	3	1	3	1	3
Luxembourg	0	6	0	3	0	1	0	1	0	1
Mexico	0	6	2	16	2	15	2	15	2	15
Netherlands	3	31	3	30	3	30	3	30	3	30
New Zealand	2	20	2	16	2	15	2	15	2	15
Norway	3	31	3	30	3	30	3	30	3	30
Poland	0	6	3	30	3	30	3	30	3	30
Portugal	3	31	3	30	3	30	3	30	3	30
Slovak	0	6	3	30	3	30	3	30	3	30
Slovenia	2	20	2	16	2	15	2	15	2	15
Spain	2	20	2	16	2	15	2	15	2	15
Sweden	3	31	3	30	3	30	3	30	3	30
Switzerland	0	6	0	3	2	15	2	15	2	15
Turkey	0	6	2	16	2	15	2	15	2	15
UK	0	6	2	16	2	15	2	15	2	15
USA	2	20	2	16	2	15	2	15	2	15
OECD(평균)	1.59		1.97		2.15		2.15		2.15	

주: 정보접근제한(정보접근에 대한 자유 제한수준)
 자료: Democracy Barometer, 2014

<부표 4> OECD국가의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Korea	-0.32	17	-0.47	22	-0.46	23	-0.46	23	-0.46	23
Australia	-1.02	33	-1.01	33	-0.91	33	-0.91	33	-0.91	33
Austria	-0.29	14	-0.29	14	-0.30	12	-0.30	12	-0.30	12
Belgium	-0.39	20	-0.08	7	-0.08	7	-0.08	7	-0.08	7
Canada	-0.53	28	-0.49	23	-0.49	24	-0.49	24	-0.49	24
Chile	-1.19	34	-1.18	34	-1.29	34	-1.29	34	-1.29	34
Czech	-0.48	25	-0.51	25	-0.33	15	-0.33	15	-0.33	15
Denmark	-0.52	27	-0.60	29	-0.54	29	-0.54	29	-0.54	29
Estonia	-0.22	11	-0.76	32	-0.76	30	-0.76	30	-0.76	30
Finland	-0.07	5	-0.08	6	-0.08	6	-0.08	6	-0.08	6
France	-0.04	2	-0.02	2	-0.01	2	-0.01	2	-0.01	2
Germany	-0.42	22	-0.52	26	-0.52	26	-0.52	26	-0.52	26
Greece	-0.05	3	-0.05	3	-0.02	4	-0.02	4	-0.02	4
Hungary	-0.39	21	-0.40	18	-0.40	18	-0.40	18	-0.40	18
Iceland	-0.70	31	-0.45	21	-0.45	21	-0.45	21	-0.45	21
Ireland	-0.54	29	-0.54	27	-0.53	28	-0.53	28	-0.53	28
Israel	-0.13	6	-0.13	9	-0.04	5	-0.04	5	-0.04	5
Italy	-0.38	18	-0.43	20	-0.30	14	-0.30	14	-0.30	14
Japan	-0.20	10	-0.20	13	-0.19	10	-0.19	10	-0.19	10
Luxembourg	-0.19	9	-0.19	12	-0.19	11	-0.19	11	-0.19	11
Mexico	-0.31	16	-0.30	17	-0.37	16	-0.37	16	-0.37	16
Netherlands	-0.29	12	-0.30	16	-0.30	13	-0.30	13	-0.30	13
New Zealand	-0.75	32	-0.71	30	-0.90	32	-0.90	32	-0.90	32
Norway	-0.30	15	-0.30	15	-0.44	20	-0.44	20	-0.44	20
Poland	-0.39	19	-0.10	8	-0.45	22	-0.45	22	-0.45	22
Portugal	-0.50	26	-0.50	24	-0.50	25	-0.50	25	-0.50	25
Slovak	-0.05	4	-0.05	4	-0.44	19	-0.44	19	-0.44	19
Slovenia	-0.44	24	-0.42	19	-0.38	17	-0.38	17	-0.38	17
Spain	-0.29	13	-0.18	11	-0.11	9	-0.11	9	-0.11	9
Sweden	-0.15	7	-0.15	10	-0.11	8	-0.11	8	-0.11	8
Switzerland	-0.18	8	-0.07	5	-0.01	1	-0.01	1	-0.01	1
Turkey	-0.43	23	-0.56	28	-0.52	27	-0.52	27	-0.52	27
UK	-0.64	30	-0.71	31	-0.79	31	-0.79	31	-0.79	31
USA	-0.03	1	-0.01	1	-0.02	3	-0.02	3	-0.02	3
OECD(평균)	-0.38		-0.38		-0.39		-0.39		-0.39	

주: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신문에서의 이데올로기적 중립성 수준)

자료: Democracy Barometer, 2014

〈부표 5〉 OECD국가의 언론자유(법적) 제한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Korea	24	14	22	6	21	5	21	5	21	6
Australia	28	30	26	18	24	14	24	15	25	19
Austria	24	14	22	6	22	8	22	8	22	9
Belgium	28	30	28	29	27	27	27	27	27	27
Canada	27	24	27	22	25	18	25	19	25	19
Chile	21	7	22	6	21	5	21	5	22	9
Czech	24	14	24	8	26	23	26	23	26	23
Denmark	28	30	28	29	28	31	28	32	28	32
Estonia	25	19	25	13	26	23	26	23	25	19
Finland	28	30	28	29	27	27	27	27	27	27
France	28	30	26	18	24	14	24	15	24	14
Germany	24	14	25	13	24	14	24	15	24	14
Greece	20	5	22	6	21	5	21	5	21	6
Hungary	25	19	25	13	25	18	23	11	20	4
Iceland	28	30	29	34	29	34	29	34	29	34
Ireland	24	14	27	22	26	23	26	23	25	19
Israel	19	3	25	13	23	10	23	11	23	11
Italy	28	30	21	3	19	3	19	3	19	3
Japan	28	30	28	29	28	31	28	32	28	32
Luxembourg	28	30	28	29	28	31	28	32	28	32
Mexico	20	5	19	2	15	2	14	2	13	2
Netherlands	24	14	29	34	28	31	27	27	27	27
New Zealand	26	22	28	29	27	27	27	27	27	27
Norway	26	22	27	22	27	27	27	27	27	27
Poland	22	8	25	13	22	8	22	8	22	9
Portugal	21	7	28	29	26	23	26	23	25	19
Slovak	15	2	25	13	23	10	23	11	24	14
Slovenia	24	14	27	22	23	10	22	8	22	9
Spain	24	14	26	18	25	18	25	19	26	23
Sweden	26	22	28	29	28	31	28	32	28	32
Switzerland	26	22	27	22	25	18	25	19	25	19
Turkey	8	1	14	1	9	1	8	1	8	1
UK	23	9	25	13	24	14	24	15	24	14
USA	28	30	25	13	25	18	25	19	26	23
OECD(평균)	24.18		25.32		24.15		23.97		23.91	

주: 언론자유(법적) 제한 press freedom, legal environment (worst 30, best 0)
 자료: Democracy Barometer, 2014

<부표 6> OECD국가의 뉴스매체 내용에 대한 정치적 통제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Korea	24	5	29	8	28	8	28	9	26	5
Australia	38	32	33	20	31	13	31	14	31	15
Austria	36	25	32	16	32	18	32	18	32	18
Belgium	35	22	36	28	36	29	36	29	36	31
Canada	34	19	32	16	32	18	32	18	32	18
Chile	29	10	30	9	28	8	27	7	27	8
Czech	31	12	31	12	33	21	33	21	32	18
Denmark	38	32	37	32	36	29	36	29	34	25
Estonia	34	19	34	24	35	26	34	24	34	25
Finland	33	16	37	32	37	33	37	33	37	33
France	27	8	31	12	31	13	30	11	30	12
Germany	36	25	34	24	34	23	33	21	33	22
Greece	24	5	26	3	26	5	26	4	25	4
Hungary	22	3	32	16	31	13	31	14	29	10
Iceland	38	32	36	28	36	29	35	27	35	29
Ireland	33	16	33	20	34	23	34	24	34	25
Israel	25	6	27	5	24	3	26	4	25	4
Italy	27	8	27	5	29	9	28	9	27	8
Japan	28	9	28	7	27	6	27	7	27	8
Luxembourg	36	25	36	28	37	33	37	33	37	33
Mexico	15	2	20	2	13	1	10	1	9	1
Netherlands	36	25	34	24	33	21	33	21	33	22
New Zealand	37	29	36	28	35	26	35	27	34	25
Norway	40	34	37	32	37	33	37	33	36	31
Poland	33	16	32	16	31	13	31	14	30	12
Portugal	36	25	34	24	34	23	34	24	34	25
Slovak	33	16	31	12	31	13	31	14	31	15
Slovenia	30	11	31	12	30	10	30	11	30	12
Spain	32	13	27	5	26	5	26	4	27	8
Sweden	37	29	37	32	35	26	36	29	35	29
Switzerland	38	32	37	32	37	33	37	33	37	33
Turkey	15	2	19	1	22	2	22	2	19	2
UK	34	19	33	20	32	18	32	18	32	18
USA	35	22	33	20	32	18	32	18	32	18
OECD(평균)	31.74		31.82		31.32		31.15		30.65	

주: political control over the content of news media (worst 40, best 0)
 자료: Democracy Barometer, 2014

〈부표 7〉 OECD국가의 시민의 합법시위 참가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Korea	14.47	16	18.02	3	8.68	16	6.34	19	6.34	19
Australia	20.12	8	20.12	2	20.12	3	20.12	3	20.12	3
Austria	8.25	26	8.25	17	5.04	24	4.24	25	4.24	25
Belgium	7.49	27	7.49	19	7.21	20	7.14	17	7.14	17
Canada	19.53	9	14.31	10	23.88	2	26.27	2	26.27	2
Chile	18.03	10	11.67	12	11.11	13	10.97	13	10.97	13
Czech	10.81	22	4.60	28	4.53	25	4.51	24	4.51	24
Denmark	8.31	25	8.31	16	8.22	17	8.19	15	8.19	15
Estonia	20.86	7	1.60	34	2.07	34	2.19	32	2.19	32
Finland	12.76	20	5.13	25	2.63	31	2.00	33	2.00	33
France	15.77	15	15.77	8	19.15	4	20.00	4	20.00	4
Germany	24.88	4	9.76	15	11.38	12	11.79	10	11.79	10
Greece	5.45	32	5.45	24	5.93	21	6.05	20	6.05	20
Hungary	9.25	24	2.15	33	2.63	30	2.76	29	2.76	29
Iceland	14.00	18	14.00	11	14.00	7	14.00	8	14.00	8
Ireland	6.33	29	6.33	22	7.25	19	7.48	16	7.48	16
Israel	16.07	13	16.07	6	8.77	15	6.94	18	6.94	18
Italy	16.83	12	16.83	5	7.91	18	5.68	22	5.68	22
Japan	12.89	19	4.60	27	3.67	27	3.44	27	3.44	27
Luxembourg	15.84	14	15.84	7	15.84	5	15.84	5	15.84	5
Mexico	14.29	17	17.08	4	12.68	10	11.59	12	11.59	12
Netherlands	5.48	31	5.48	23	5.82	22	5.91	21	5.91	21
New Zealand	21.38	5	14.83	9	14.83	6	14.83	7	14.83	7
Norway	26.13	3	10.32	14	12.95	9	13.61	9	13.61	9
Poland	9.76	23	4.17	30	2.14	33	1.63	34	1.63	34
Portugal	3.54	34	3.54	31	3.15	28	3.05	28	3.05	28
Slovak	11.96	21	3.27	32	2.51	32	2.32	31	2.32	31
Slovenia	4.43	33	4.43	29	2.94	29	2.57	30	2.57	30
Spain	28.59	2	21.90	1	27.67	1	29.12	1	29.12	1
Sweden	32.62	1	7.77	18	9.41	14	9.82	14	9.82	14
Switzerland	16.87	11	10.52	13	11.47	11	11.71	11	11.71	11
Turkey	6.27	30	6.83	20	5.07	23	4.63	23	4.63	23
UK	6.64	28	6.64	21	4.14	26	3.51	26	3.51	26
USA	21.38	6	4.82	26	13.01	8	15.06	6	15.06	6
OECD(평균)	14.33		9.64		9.35		9.27		9.27	

주: 시민의 합법시위 참가(합법적 시위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
 자료: Democracy Barometer, 2014

124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부표 8〉 OECD국가의 Gini계수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Korea	0.314	13	0.310	14	0.311	13
Australia	0.317	8	0.334	9	.	.
Austria	.	.	0.261	21	0.269	25	0.269	21	0.282	19
Belgium	.	.	0.279	17	0.269	23	0.264	23	.	.
Canada	0.315	9	0.317	10	0.320	11	0.319	11	0.316	12
Chile	0.510	1	.	.	0.503	1
Czech	.	.	0.261	20	0.258	29	0.258	25	0.256	24
Denmark	0.227	17	0.232	23	0.238	32	0.252	26	0.253	25
Estonia	.	.	0.335	5	0.309	15	0.317	12	0.323	10
Finland	0.255	15	0.266	19	0.260	28	0.265	22	0.265	22
France	0.287	12	0.288	14	0.293	18	0.303	16	0.309	14
Germany	0.264	13	0.297	11	0.288	19	0.286	17	0.293	17
Greece	.	.	0.346	4	0.332	8	0.338	7	0.335	8
Hungary	0.293	10	0.291	12	0.272	22
Iceland	.	.	0.275	18	0.266	27	0.246	29	0.251	26
Ireland	.	.	0.323	8	0.312	14	0.313	13	0.302	16
Israel	0.347	4	0.378	2	0.373	4	0.376	4	0.377	4
Italy	0.323	7	.	.	0.315	12	0.321	10	0.321	11
Japan	0.337	6	.	.	0.336	7
Luxembourg	.	.	0.283	16	0.278	21	0.271	19	0.276	20
Mexico	0.507	1	0.466	1	.	.
Netherlands	0.292	11	0.284	15	0.283	20	0.283	18	.	.
New Zealand	0.339	5	.	.	0.324	10	.	.	0.323	9
Norway	0.261	14	.	.	0.245	31	0.249	27	0.250	27
Poland	.	.	0.327	7	0.305	16	0.307	15	0.304	15
Portugal	.	.	0.376	3	0.340	6	0.345	5	0.341	7
Slovak	.	.	0.288	13	0.266	26	0.263	24	0.261	23
Slovenia	.	.	0.246	22	0.247	30	0.246	28	0.245	28
Spain	.	.	0.323	9	0.329	9	0.334	8	0.344	6
Sweden	0.243	16	.	.	0.269	24	0.269	20	0.273	21
Switzerland	0.298	17	.	.	0.289	18
Turkey	0.411	2	0.417	2	0.412	2
UK	0.352	3	0.335	6	0.345	5	0.341	6	0.344	5
USA	0.357	2	0.380	1	0.379	3	0.380	3	0.389	3
OECD(평균)	0.313		0.304		0.308		0.308		0.312	

자료: OECD stat

〈부표 9〉 OECD국가의 소득 분포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Korea	1.9	15	1.9	14	1.9	14
Australia	2.0	7	2.0	10	.	.
Austria	.	.	1.7	19	1.8	22	1.7	24	1.8	20
Belgium	.	.	1.7	19	1.7	28	1.7	24	.	.
Canada	1.9	10	1.9	11	1.9	15	1.9	14	1.9	14
Chile	3.3	1	.	.	3.3	1
Czech	.	.	1.8	14	1.8	22	1.7	24	1.7	24
Denmark	1.5	17	1.6	22	1.6	32	1.6	28	1.6	28
Estonia	.	.	2.1	5	2.0	9	2.1	7	2.1	7
Finland	1.7	15	1.7	19	1.7	28	1.7	24	1.7	24
France	1.9	10	1.9	11	1.9	15	1.9	14	1.9	14
Germany	1.8	13	.	.	1.8	22	1.8	19	1.9	14
Greece	.	.	2.1	5	1.9	15	2.0	10	1.9	14
Hungary	1.9	10	1.9	11	1.9	15
Iceland	.	.	1.7	19	1.7	28	1.6	28	1.7	24
Ireland	.	.	1.9	11	2.0	9	2.0	10	1.9	14
Israel	2.1	4	2.3	2	2.2	4	2.2	4	2.2	4
Italy	2.0	7	.	.	1.9	15	1.9	14	1.9	14
Japan	2.0	7	.	.	2.0	9
Luxembourg	.	.	1.8	14	1.8	22	1.8	19	1.8	20
Mexico	3.3	1	2.9	1	.	.
Netherlands	1.8	13	1.8	14	1.8	22	1.8	19	.	.
New Zealand	2.1	4	.	.	2.0	9	.	.	2.1	7
Norway	1.6	16	.	.	1.6	32	1.6	28	1.6	28
Poland	.	.	2.1	5	1.9	15	1.9	14	1.9	14
Portugal	.	.	2.4	1	2.2	4	2.2	4	2.1	7
Slovak	.	.	1.7	19	1.8	22	1.8	19	1.8	20
Slovenia	.	.	1.7	19	1.7	28	1.7	24	1.7	24
Spain	.	.	2.0	8	2.0	9	2.1	7	2.1	7
Sweden	1.7	15	.	.	1.7	28	1.7	24	1.7	24
Switzerland	1.8	22	.	.	1.8	20
Turkey	2.5	2	2.5	2	2.5	2
UK	2.1	4	2.0	8	2.1	6	2.1	7	2.1	7
USA	2.1	4	2.2	3	2.2	4	2.2	4	2.3	3
OECD(평균)	1.97		1.91		1.94		1.93		1.96	

주: 소득분포(P90/P50 disposable income decile ratio)

자료: OECD stat

〈부표 10〉 OECD국가의 사회문화적 갈등지수

국가명	민족다양성		문화다양성		사회문화적 갈등지수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Korea	0.000	23	0.552	11	0.528	17
Australia	0.244	7	0.552	8	0.918	10
Austria
Belgium
Canada	0.626	3	0.558	5	1.602	1
Chile	0.162	10	0.565	4	0.983	9
Czech	0.007	20	0.537	20	0.318	22
Denmark
Estonia	0.486	4	0.517	23	0.757	12
Finland	0.053	17	0.552	10	0.613	14
France	0.135	11	0.583	1	1.210	4
Germany	0.073	14	0.576	2	1.014	7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0.000	23	0.557	6	0.614	13
Japan	0.004	21	0.527	21	0.159	23
Luxembourg
Mexico	0.643	1	0.548	13	1.464	3
Netherlands
New Zealand	0.041	18	0.538	19	0.378	20
Norway	0.066	15	0.539	18	0.441	19
Poland	0.020	19	0.544	15	0.444	18
Portugal
Slovak	0.134	12	0.542	17	0.583	15
Slovenia	0.056	16	0.547	14	0.540	16
Spain	0.294	6	0.552	9	0.993	8
Sweden	0.228	8	0.544	16	0.760	11
Switzerland	0.638	2	0.557	7	1.595	2
Turkey	0.204	9	0.519	22	0.336	21
UK	0.127	13	0.573	3	1.049	5
USA	0.336	5	0.551	12	1.042	6

자료: Desmet et al., 2014

〈부표 11〉 OECD국가의 사회이질성 갈등지수

국가명	민족다양성		문화다양성		사회이질성_갈등지수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Canada	1.00	1	1.00	1	2.00	1
Belgium	0.95	3	0.93	3	1.88	2
Estonia	0.86	6	0.99	2	1.84	3
Switzerland	0.96	2	0.84	5	1.80	4
Mexico	0.91	4	0.87	4	1.78	5
Israel	0.88	5	0.49	10	1.37	6
Spain	0.84	7	0.52	8	1.36	7
United States	0.82	9	0.54	7	1.36	8
New Zealand	0.61	10	0.73	6	1.33	9
Chile	0.83	8	0.33	15	1.16	10
France	0.45	13	0.50	9	0.95	11
United Kingdom	0.54	11	0.36	13	0.90	12
Slovenia	0.38	14	0.34	14	0.72	13
Sweden	0.31	15	0.37	11	0.69	14
Hungary	0.31	16	0.37	12	0.67	15
Czech Republic	0.54	12	0.12	24	0.66	16
Ireland	0.28	17	0.31	16	0.59	17
Australia	0.24	18	0.29	17	0.53	18
Finland	0.22	19	0.26	18	0.47	19
Denmark	0.21	20	0.25	19	0.46	20
Austria	0.21	21	0.19	20	0.40	21
Norway	0.16	22	0.19	21	0.35	22
Germany	0.15	23	0.17	22	0.33	23
Netherlands	0.12	24	0.15	23	0.27	24
Greece	0.09	25	0.09	25	0.19	25
Poland	0.07	26	0.07	26	0.15	26
Italy	0.06	27.5	0.07	27.5	0.13	27.5
Portugal	0.06	27.5	0.07	27.5	0.13	27.5
Japan	0.01	29	0.02	29	0.03	29
Korea	0.00	30	0.00	30	0.00	30

자료: Fearon, 2003

128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부표 12〉 OECD국가의 인구밀집도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Korea	487	1	497	1	507	1	509	1	513	1
Australia	2	34	3	34	3	34	3	34	3	34
Austria	97	19	100	18	102	18	102	18	102	18
Belgium	339	4	346	4	357	3	361	3	365	3
Canada	3	32	4	32	4	32	4	32	4	32
Chile	21	28	22	28	23	27	23	27	23	27
Czech	133	11	132	11	135	11	136	11	136	11
Denmark	126	12	128	12	130	12	131	12	131	12
Estonia	33	25	32	26	31	26	31	26	31	26
Finland	17	29	17	29	18	29	18	29	18	29
France	111	17	115	14	118	14	119	14	119	14
Germany	236	7	236	7	235	7	235	7	235	7
Greece	85	20	86	22	87	22	87	22	86	22
Hungary	114	14	113	16	111	17	110	17	110	17
Iceland	3	33	3	33	3	33	3	33	3	33
Ireland	55	23	60	23	66	23	66	23	66	23
Israel	291	5	320	5	346	5	352	4	359	4
Italy	194	8	197	8	201	8	202	8	202	8
Japan	348	3	351	3	350	4	350	5	351	5
Luxembourg	168	10	180	10	192	10	196	9	200	9
Mexico	53	24	57	24	60	24	61	24	61	24
Netherlands	472	2	483	2	490	2	493	2	495	2
New Zealand	15	30	16	30	16	30	17	30	17	30
Norway	12	31	15	31	16	31	16	31	16	31
Poland	125	13	125	13	125	13	126	13	127	13
Portugal	112	15	115	15	116	15	116	15	115	15
Slovak	112	16	112	17	112	16	112	16	112	16
Slovenia	99	18	99	19	101	19	102	19	102	19
Spain	81	22	87	21	93	20	93	21	94	21
Sweden	22	27	22	27	23	28	23	28	23	28
Switzerland	182	9	186	9	194	9	196	10	198	10
Turkey	82	21	88	20	93	21	94	20	95	20
UK	243	6	250	6	257	6	259	6	261	6
USA	31	26	32	25	34	25	34	25	34	25

〈부표 13〉 OECD국가의 도시인구 집중도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Korea	26	11	25	11	24	14	24	14	24	14
Australia	24	12	24	14	23	16	22	16	22	16
Austria	29	9	30	9	31	9	31	9	31	9
Belgium	18	22	18	22	18	22	18	22	18	22
Canada	19	20	19	20	20	20	20	20	20	20
Chile	43	4	42	4	41	4	41	4	41	4
Czech	15	25	16	24	16	24	16	24	17	24
Denmark	24	15	24	13	25	12	25	13	25	13
Estonia	41	5	43	3	43	3	43	3	44	3
Finland	24	13	25	12	25	11	25	11	25	11
France	21	18	21	18	21	19	21	19	21	19
Germany	6	31	6	31	6	31	6	31	6	31
Greece	40	6	38	6	37	6	36	6	36	6
Hungary	27	10	26	10	25	10	25	10	25	12
Iceland
Ireland	44	3	41	5	39	5	39	5	39	5
Israel	48	1	48	1	47	1	47	1	47	1
Italy	9	27	9	27	9	27	9	27	9	27
Japan	35	7	32	8	32	8	32	8	32	8
Luxembourg
Mexico	24	14	23	17	22	17	22	17	22	17
Netherlands	8	28	8	29	7	29	7	30	7	30
New Zealand	32	8	33	7	34	7	34	7	34	7
Norway	23	16	23	16	23	15	23	15	23	15
Poland	7	30	7	30	7	30	7	29	7	29
Portugal	48	2	45	2	44	2	44	2	44	2
Slovak	14	26	14	26	14	26	14	26	14	26
Slovenia
Spain	16	23	16	25	16	25	16	25	16	25
Sweden	16	24	16	23	17	23	17	23	17	23
Switzerland	20	19	21	19	21	18	21	18	21	18
Turkey	21	17	23	15	24	13	25	12	25	10
UK	19	21	19	21	19	21	19	21	19	21
USA	8	29	8	28	7	28	7	28	7	28

